

국립국어원 2007-01-67

발간등록번호
11-1370252-000110-01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책임자: 김 재 훈(대구대학교)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관하여 귀 원
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의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합니다.

2007년 12월 21일

연구책임자 : 김재훈(대구대학교)

공동연구원 : 조항록(상명대 교육대학원)

이상돈(직업능력개발원)

〈제목 차례〉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1
1.1. 연구의 목적	1
1.1.1. 연구 내용	1
1.1.2. 연구 방법	2
1.2. 연구의 필요성	3
2. 세종학당 설립 추진의 필요성	5
2.1. 세종학당에 대한 수요 현황	5
2.2. 국외 한국어 교육의 실태와 세종학당의 필요성	10
<자료> 한국 정부의 한국어 교육 관련 활동	13
1. 역사적 전개과정	13
2. 정부 각 부처의 한국어 보급 사업	14
2.3. 주요 국가의 자국어 국외보급 모델	21
2.3.1.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	23
2.3.2. 일본어국제센터	25
2.3.3. 독일문화원(Goethe Institut)	27
2.3.4. 프랑스문화원(Alliance française)	28
3. 세종학당 설립의 경제적 효과	30
3.1. 세종학당 설립의 직접적 경제효과	30
3.1.1. 세종학당의 운영 계획	30
3.1.2. 세종학당의 인력수요	31
3.1.3. 세종학당의 직접적 경제적비용	34
3.1.4. 세종학당의 직접적 경제편익	38
3.1.5. 세종학당 설립에 따른 직접적 경제효과	39
3.2. 세종학당 설립의 간접적 경제효과	41
3.2.1. 국외 투자 기업의 생산성 증대효과	41
3.2.2. 한국제품의 수출증대 효과	53
3.2.3. 국내 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의 생산성 증대 효과	63
3.2.4. 국내 영어교육 비용 감소 효과	72
3.2.5. 국외동포 한글 습득에 따른 효과	76

4. 세종학당 설립에 따른 사회적 효과	83
4.1.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 적응력 증대 효과	83
4.2. 문화 교류 증대 효과	87
5. 세종학당 설립의 교육적 효과	92
5.1. 한국어 교육의 확대	92
5.1.1. 일본	93
5.1.2. 중국	94
5.1.3. 동남아	95
5.1.4. 미국/캐나다	96
5.1.5. 서유럽	97
5.1.6. 동유럽/중유럽	98
5.1.7. 러시아	99
5.1.8. 대양주	100
5.1.9. 중앙아시아	100
5.1.10. 중남미	101
5.1.11. 중동/아프리카	102
5.2. 한국어 교재 개발 및 사용의 측면에서 본 기대 효과	102
5.2.1. 태동과 점진적 성장기의 한국어 교재	103
5.2.2. 한국어 교육 도약기의 한국어 교재	105
5.2.3. 한국어 교육 확대기의 한국어 교재	107
5.2.4. 최근 국내외의 한국어 교재 개발 현황	109
5.2.5. 세종학당 추진이 한국어 교재 개발에 미칠 효과	113
5.3. 한국어 교사 육성 및 자질 향상의 측면에서 본 기대 효과	117
6. 결론-세종학당 설립의 효과와 국외 한국어교육의 체계화	121
6.1.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의 경제적 효과 요약	121
6.2. 국외 한국어 보급 사업의 전반적인 예산 규모	123
6.3. 국외 한국어 보급 사업의 체계화 방안	124
참고문헌	127

〈표 차례〉

<표 2- 1> 국외동포와 한글(한국)학교 현황	6
<표 2- 2> 고용허가제에 의한 취업자의 송출국가별 현황	8
<표 2- 3> 국외 한국어 교육 기관 현황(2007년 현재)	10
<표 2- 4> 부처별 국외한국어 교육의 교육 대상과 특성 비교	11
<표 2- 5> 국외 한국어 교육 기관의 사업 성과	11
<표 2- 6> 한국어 교육 기관 연혁	14
<표 2- 7> 주요 국가의 해외 현지인 대상 자국어와 문화 교류 기관 현황	21
<표 2- 8> 주요 국가의 국제 문화 교류 기관	22
<표 2- 9> 주한 영국문화원의 강좌 구성	24
<표 2-10> 2004년도 일본국제교류기금의 지역별 활동 내용 구성비	26
<표 2-11> 주한 일본어국제센터 강좌 구성	27
<표 2-12> 주한 독일문화원의 강좌 구성	28
<표 2-13> 주한 프랑스문화원의 강좌 구성	29
<표 3- 1> 제1단계(2007년 ~ 2011년) 설립 및 운영 계획	30
<표 3- 2> 제2단계(2012년 ~ 2016년) 설립 및 운영 계획	31
<표 3- 3> 종류별 한국어 교원 자격증 인증 현황(2007년 4월말 현재)	32
<표 3- 4> 제1단계 설립 계획에 따른 교원 수요 전망	32
<표 3- 5> 제2단계 설립 계획에 따른 교원 수요 전망	33
<표 3- 6> 세종학당 제1차 계획 소요예산 및 투자 계획	35
<표 3- 7> 세종학당 설립에 따른 경제적 비용	37
<표 3- 8> 세종학당 설립에 따른 경제적 편익	38
<표 3- 9> 세종학당 설립의 직접적 경제효과	40
<표 3-10> 한국의 국외직접투자 규모 추세	42
<표 3-11> 한국의 지역별 국외 투자 동향	42
<표 3-12> 한국의 국외 투자 기업, 지사 현황(2006.1.1 현재)	43
<표 3-13> 재중동포의 한국기업에 대한 기여도	45
<표 3-14> 기여도가 높은 이유	45
<표 3-15> 재중동포 기여도의 민족별 분포	46
<표 3-16> 세종학당 설립에 따른 통역 고용 비용 감소 효과	52
<표 3-17> 한류의 경제적 효과 종합	54
<표 3-18> 국가별 한류의 수출 증대 효과	55
<표 3-19> 관광객 유치에서 한류 효과	55

<표 3-20> 한류 관광의 경제적 효과	56
<표 3-21> 문화 산업의 수출규모	58
<표 3-22> 문화 산업 지역별 수출현황(2005년도)	59
<표 3-23> 세종학당의 연간 졸업생수	60
<표 3-24> 외국인력 체류현황 추이(2000.12 ~ 2007.4)	65
<표 3-25> 국적별 외국인의 평균연령 및 평균 체류기간	66
<표 3-26>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고려사항 (복수응답)	67
<표 3-27> 외국인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업무의 수준	67
<표 3-28> 외국인력의 직무수행에 관한 요인별 영향 실태	68
<표 3-29> 취업교육 내용별 수강비율	69
<표 3-30> 외국인근로자 스스로 평가한 한국어 및 영어능력 수준	70
<표 3-31> 내국인근로자 대비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 임금, 노동비용	71
<표 3-32> 세종학당 설립에 따른 유학생의 변화 전망	73
<표 3-33> 세종학당 설립에 따른 교육수지 적자 변화 전망	74
<표 3-34> 지역형 영어마을 예와 세종학당의 연간 운영비 비교	75
<표 3-35> 재외동포현황(2005년 현재)	79
<표 4- 1> 외국인과의 혼인 현황	83
<표 4- 2>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별 혼인	84
<표 4- 3> 부부의 평균 혼인 연령차	84
<표 4- 4> 농림어업 종사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별 현황	85
<표 4- 6> 합법취업 외국인근로자들의 애로요인 현황(복수응답)	87
<표 5- 1> 1단계 세종학당 추진지역의 한국어 교사의 충원과정 및 자격요건	118
<표 5- 2> 1단계 세종학당 추진지역 대상 한국어 교사 자질 향상 지원 활동	119
<표 6- 1>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의 경제적 효과	121
<표 6- 2> 2006년도 한국어 교육 관련 정부 부처의 실행 예산	123

〈그림 차례〉

[그림 2-1] 해외 일본어 학습자 수	26
[그림 3-1] 국가브랜드 수익	60
[그림 3-2] 국가브랜드 가치	61
[그림 3-3] 지식경영프로세스	63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1.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세종학당의 설립 및 운영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의 국외 한국어 보급이 주로 국외 동포들에 대한 민족교육을 일환으로 혹은 국가 간의 학술교류의 일부로서 진행된 데 대해 세종학당은 국외 대중들의 한국어 학습 수요를 사회 교육 차원에서 충족시킴으로써 전례 없을 정도로 폭넓은 한국어 보급을 낳아서 획기적인 문화 교류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얼마나, 어떻게 그러한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추산해서 세종학당의 설립 및 운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1.1.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세종학당 설립의 필요성과 그 비용편익을 분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비용편익분석에서는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과 설립 및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직접적 편익, 간접적 편익을 비교한다. 직접적 편익은 세종학당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국외 한국어 학습자들이 납부하는 수업료 및 기타 운영수입, 그리고 국외 파견 한국어 교원과 행정요원의 일자리 창출 규모가 된다.

간접적 편익에는 국외에 투자한 한국기업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현지인들이 증가했을 때에 나타날 현지 투자 기업의 생산성 증대 효과,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늘어난 국가들과 한국과의 무역 증대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 국내 취업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생산성 증대 효과, 그리고 국외 한국어 사용인구 증가가 한국인의 영어 사용의 필요성을 일부 감소시켜서 발생할 한국인의 영어 학습 비용 감소 등이 있을 수 있다.

그 외에 세종학당의 설립과 그 운영에 따른 사회적 효과와 교육적 효과를 분석한다. 사회적 효과에는 결혼이주민과 국내 취업 근로자들이 한국어를 사용 가능케 된 데 따른 인권 보호, 생활상의 편의 등이 있고, 교

육적 효과는 세종학당 설립과 운영에 따른 국외 한국어 교육의 확대와 체계화가 주된 내용이다. 전문적인 한국어 교원의 양성과 파견, 전문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 현지 생활과 현지인의 정서를 고려한 교재 개발 등이 세종학당의 운영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세종학당의 설립이 국가경제에 단기적으로는 국가적 투자(초기 매몰비용)를 요하지만 그것이 국가경제에 경제적 외부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선진적 문화국가로서 세계사회에 위상을 구축하는 데에 긴요함을 밝히게 된다.

1.1.2. 연구 방법

영어와 같이 이미 세계 언어가 된 경우에는 국외 자국어 보급이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낳는가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제출되어 있다. 또 외국으로부터 이주민의 유입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온 나라들 경우에도 유입된 이주민이 자국어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그들의 소득, 따라서 국내 생산성의 증대에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갖는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제출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장기 시계열분석을 이용하는 연구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어의 국외 보급의 역사가 일천하고, 또 이주민의 유입의 역사도 일천하다. 따라서 기존 외국 선행연구들이 채택하고 있는 시계열분석을 통한 모형 분석방법이 우리의 경우에는 적용하기에 곤란한 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대체적인 혹은 우회적인 분석방법을 동원하여 한국어의 국외 보급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수밖에 없다.

국외 한국어 보급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 방법은, 첫째, 국외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생산성 증대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국외 한국어 보급이 현지에서 통역 고용 비용을 얼마나 감소시킬 것인가를 추산한다. 국외 사업장에서의 생산성 증대 효과는 이보다 훨씬 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생산성 증대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비용 감소 크기를 대신 사용한다.

둘째, 세종학당의 설립 및 운영은 국외에서 한국 문화와 한국 상품에

대한 인지도와 충성도를 높여서 한국 상품의 수출 증대 효과를 창출한다. 이에 관해 영어 사용인구의 증대가 미국 또는 캐나다의 경제에 수출증대 효과를 얼마나 가져올 것인가에 관한 시계열분석이 축적되어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아직 국외 한국어 보급의 역사가 일천하므로 이러한 연구방법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대입해서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를 계산해서 수출증대 효과를 우회적으로 추산하게 된다.

셋째, 최근에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들이 국내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면 그 생산성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이 생산성 증대의 크기는 한국어 사용 수준과 소득 증대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추산할 수 있다.

그 외에 세종학당의 설립과 운영은 국외 한국어 보급을 크게 확대하고 또 그 보급을 훨씬 체계화시키게 될 것이다. 전문적인 한국어 교원의 양성과 파견, 수준 높은 한국어 교재의 개발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원의 수준과 향후 양성될 수준, 또 기존의 한국어 교재의 실태와 향후 개발될 교재의 내용 및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1.2. 연구의 필요성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국외 한국어 보급은 거의 국외 동포들에 대한 민족교육의 일환으로서 혹은 국가 간의 학술교류의 일부로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경제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국외에서 대중적인 한국어 학습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 보급 기관과 보급 체계가 필요하나 현재는 이러한 시대 변화에 대한민국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국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어 학습 수요는 현지에서 자생적인, 따라서 비전문적인 한국어 교원들에 의해 비체계적인 교재들로 무질서하게 충족되고 있는 난맥상을 띄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도 영국이 브리티시 카운슬을 통해, 프랑스가 알리앙스 프랑세즈를 통해, 독일이 괴티 인스티투트를 통해, 그리고 일본이 일본국제교류기금을 통해 장기간 체계적으로 자국어를 해외에 보급시키려고 노

력했던 국가적 노력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국가적 투자가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측정되지 않고, 또 단기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선 직접적인 비용 대비 편익을 생각하면 국가적 투자를 망설이게 되는 성격의 사업이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는 군사적 대결의 시대에서 문화적 대결의 시대로 이행하고 있어서 문화 선진국이 곧 경제 선진국이 되는 시대가 되어 있다. 또 동시에 세계가 이념의 갈등에서 문화적 종교적 갈등의 시대로 이행함으로써 문화 간 대화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하는 시대를 맞아 긴요하게 된 우리 문화의 국외 보급과 선양은 곧 문화의 중심을 이루는 언어의 국외 보급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다.

우리는 어떤 때에는 문화제국주의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선진국들이 국외 자국어 보급을 위해 국외에 설립한 자국어 교육 기관에 그 설립 및 운영비용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을 오랫동안 국가가 지출해왔던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관점에서, 어떤 체계를 통해, 어느 정도의 투자를 통해 한국어를 국외 대중들에게 보급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고민을 진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고민의 출발을 본 연구가 내딛으려 하는 것이다. 한 국가의 경제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문화적 힘(soft power)'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을 본 연구가 제기하려는 것이다.

2. 세종학당 설립 추진의 필요성

2.1. 세종학당에 대한 수요 현황

국외 한국어 교육 또는 한민족의 민족 교육을 위해서는 이미 세계 곳곳에 한글학교 또는 한국학교가 설립되어 있다. 이들 학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세종학당을 설립하는 데에는 그만큼의 당위성 혹은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세종학당 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최근 재외 교포 교육의 실태와 재외 교포 구성상의 변화, 외국인들의 한국어 교육 수요의 변화, 두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2007년 4월 1일 현재 국외 한글학교는 모두 1천517개교로서 14개국에서 9천487명의 교원이 9만 4천319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그 외 일본에서는 244개의 강습소에서 8천982명의 학생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 한글 외에 전반적인 민족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학교는 14개국 26개의 학교가 있어서 798명의 교원(그 중 본국에서 파견된 교원 72명)이 9천448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대체로 한글학교는 선진국에 집중적으로 있고, 한국학교는 후진국에 자리 잡고 있다. 한글학교와 한국학교는 둘 다 현지 국가의 교육 체계 속에 포함되어 있으나 한글만을 배우는 재외 동포 학생들에게는 한글학교가 보완적으로 존재하고, 현지 국가의 교육 체계가 질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는 한국학교가 전반적인 교육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한국학교와 한글학교의 학생 숫자를 재외 동포 1천 명당 수로 표시해 보면 전체적으로 14.73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평균치에 미달하는 곳이 중국이다. 중국은 동포 1천 명당 1.46명의 학생이 한글학교 또는 한국학교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일본은 강습소를 제외하면 6.5명, 이를 포함하면 16.55명). 중국의 교육 체계 속에서 소수 민족이 한국어 또는 조선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 숫자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엄밀한 비교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에 거주하는 동포 276만 2천명에서 192만 4천명을 뺀 83만 8천명은 한중 국교 정상화 이후 최근 중국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새로이 중국에서 살게 된 교포라 할 수 있다. 새로이 늘어난 교포 1천명당 한국학교 학생의 숫자도 4.8명에 머물러 평균치에

크게 모자라고 있다. 그 외 중동 지역이 교포 1천 명당 학생 숫자 10.11명이어서 모국 교육의 혜택을 적게 받고 있다.

<표 2-1> 국외동포와 한글(한국)학교 현황

(단위: 천명, %, 개, 백만 달러)

	재외동포 현황			현지투자 한국기업		한국(한글)학교 학생 수 현황			
	숫자	구성비	4년간 증감율	건수	구성비	한글 학교	한국 학교	한국(글) 학교 비중	동포 1천명당
중국	2,762 (1,924) ^①	39.21 (27.31)	28.82	19,253	21.9	-	4,024	3.88	1.46 (4.80)
일본	894 (296) ^②	12.69	-0.56	667	0.76	3,854 (8,982) ^⑥	1,961	5.60 (14.32)	6.50 (16.55)
기타 아시아	384	5.46	95.72	9,155 ^⑤	10.4	4,185 ^⑦	2,534 ^⑧	6.48	17.49
미국	2,017 (1,077) ^③	28.63	-6.54	7,986	9.1	43,746	-	42.16	21.68
캐나다	217 (102) ^④	3.08	27.34	398	0.3	5,776	-	5.56	26.62
중남미	108	1.53	1.89	773	0.9	2,481	729	3.09	29.72
구소련	534	7.58	-4.27	273	0.3	31,645	109	30.59	60.63
유럽	112	1.58	17.92	1,183	1.4	2,632	-	2.54	23.50
중동	9	0.13	17.92	179	0.2	-	91	0	10.11
아프리카	8	0.12	66.60	235	0.3	-	-	-	-
합계	7,045	100	11.17	88,064	100	94,319	9,448	100	14.73

①2000년도 중국 전국인구조사상의 조선족(중국 국적) 총수

②1952~2005년간 재일동포 귀화자 총수(조선적 포함)

③2000년도 미국통계청 인구센서스상의 한인 총수

④2001년도 캐나다통계청 인구센서스상의 한인 총수

⑤기타 지역과 오세아니아주 포함. ⑥244개의 강습소 학생 8천982명.

⑦모두 오세아니아주 소재. ⑧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모두 동남아 소재.

자료: 외교통상부

한편 최근 수년간(여기에서는 2003-07년의 4년간에 대한) 현지동포의 증감 상황에 비추어 한국(한글)학교의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역시 4년간 28.82%의 교포 증가율을 보이는데 한국 또는 한글학교의 숫자가 적은 형편이고, 중국 일본을 제외한 여타 아시아국에서의 교포 증가율이 무려 95.72%를 기록하고 있는데 교포 1천명당 학생 숫자는 17.49명에 머물러서

이 지역에 대해서도 한국의 정책 당국의 배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 전체 재외동포 수의 구성비에 대해 한국(한글)학교 숫자의 구성비를 비교해보면 중국이 단연 가장 낮은데, 이를 위에서와 같이 중국 교육체계 속에서 소수민족으로서 민족교육을 받을 숫자를 제외한 최근 새로이 거주하게 된 교포의 숫자를 전체 국외 동포 구성 상의 비중 11.9명과 비교해보더라도 한국학교의 비중 3.88%는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대체로 미국과 구소련의 경우 교포의 비중에 비해 많은 한국학교 또는 한글학교가 소재해서 그나마 타국 땅에서 소수민족으로서 민족언어와 민족교육을 받고 있고, 여타 상대적으로 소수가 사는 곳은 그 혜택을 적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 바깥에 새로이 국외에서 한국어교육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니, 이들이 바로 한국경제 및 한국사회의 발전에 따라 한국과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된 순수 외국인들이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한류)에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에 취업을 희망하거나 국외 현지에 투자한 한국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이다.

우리나라에는 2000-01년에 30만명 전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해서 2003년부터는 40만명 전후의 숫자를 2007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05년 8월 17일부터는 국내취업을 원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소속 국가 정부나 기관을 통해 한국정부에 노동허가를 신청, 허가를 받은 뒤 최장 3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다. 2007년 9월 현재 한국과 인력송출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가는 모두 13개국이다. 2005년 인도네시아, 몽골, 스리랑카, 필리핀, 태국, 베트남 6개국과 MOU를 체결하였고, 2006년에는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이 추가되었다. 노동부는 2007년 2월 제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방글라데시, 미얀마, 네팔, 키르기즈, 동티모르 5개국을 송출국가로 선정하고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기즈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표 2-2> 고용허가제에 의한 취업자의 송출국가별 현황

(단위: 명, %)

		2004	2005	2006	2007. 5	총 계
취업현황(총계)		7,095	60,473	79,199	15,426	162,193 (100.0)
일반 고용 허가	소 계	3,167	31,659	28,976	9,234	73,036 (45.0)
	베 트 남	704	8,619	5,712	3,286	18,321 (11.3)
	필 리 핀	832	5,308	8,434	2,131	16,705 (10.3)
	태 국	558	5,964	6,746	1,262	14,530 (9.0)
	몽 골	500	4,433	4,703	1,076	10,712 (6.6)
	인 니	359	4,361	1,215	914	6,849 (4.2)
	스리랑카	214	2,974	2,166	565	5,919 (3.6)
특례 고용 허가	소 계	3,928	28,814	50,223	89,157	89,157 (55.0)
	한국계중국	3,920	28,778	50,139	89,003	89,003 (54.9)
	한국계러시아	5	7	7	5	24 (0.0)
	기 타	3	29	77	130	130 (0.1)

주: 총계는 연도별 누적인원임.

자료: 통계청

이 고용허가제에 의해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의 국적별 분포를 보면 고용허가제-일반은 2007년 5월말 현재 우리나라와 송출국가 정부 간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국가가 10개국에 이르지만 인력이 수입되고 있는 국가는 6개국이다. 국적별로 보면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고용허가제의 경우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순이어서 대체로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특례고용허가제의 경우 99.8%인 8만 9천2명이 한국계 중국인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고용허가제에서 일정한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요구함으로써 한국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학습열풍이 부는 것이다. 평균 월급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인 우즈베키스탄, 한 달 월급이 1백만동(7만원 정도)이지만 한국에서 일하게 되면 1천2백만동(75만원 정도)으로 12배를 받을 수 있는 베트남, 현지에서 일할 때보다 한국에 오면 10배 이상 벌 수 있는 네팔 등에서는 한국은 기회의 땅이다. 이런 곳에서 최근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YTN, 2007.8.10, 머니투데이, 2008.1.7).

이 열풍을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 열풍에서 단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노동부 주관 한국어능력시험에 1997년에는 2천274명이 응시했으나, 2000년 4천850명, 2003년 1만 416명, 2005년 2만 3천401명, 2006년 3만 259명 등으로 시험

시행 10년만에 무려 13배나 늘었다. 그리고 연 1회 시행에서 2회 시행으로 시험 시행 횟수를 늘린 2007년의 9월 16일 있었던 시험에는 전 세계 23개 나라 72개 지역에서 2006년에 비해 260% 늘어난 8만 1천6백여 명이 응시했다.

현지 한국어시험 응시료가 30달러로 월평균 임금보다 상당히 비싸거나 (네팔), 월평균 임금의 3분의 1(몽골)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2007년 5월에는 수도 울란바토르 인구 100만 명의 1.5%에 해당하는 1만 5천명이 응시하기도 하였다(연합뉴스, 2007. 5.21). 몽골, 베트남의 근로자 송출 인원은 이미 약 1만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통상 한국어학원 수강료가 월 30~50달러, 네팔인들의 월급을 생각하면 엄청 비싼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번 돈을 한국어 공부에 다 쏟는 사람이 수도룩한" 실정이다(머니투데이,2008.1.7).

그러나 이렇게 한국어 학습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비해 공급 여건은 훨씬 못 미치고 있어 심각한 격차를 야기하고 있다. 한국어강좌를 위한 시설의 부족, 교재의 부실, 강사의 자질 부족 등이 심각한 문제로 거론된다. 중국의 주중 한국문화원의 경우 한국어강좌에 1천 2백 명이 신청했는데 시설 상의 문제로 5백 명만 받았다거나, 4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하고 곧바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교수가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쉬용빈,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교수; YTN, 2007.7.10). 학습 교재도 대부분 중국인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 문제들은 거의 비슷하게 제기된다. 네팔에서도 "최근 두 달여 사이에 생긴 2백여 개의 한국어학원들 대부분이 전문적인 교사 교재, 교육기자재의 부족으로 초보적인 수업을 하는데 그치는 실정"이다(머니투데이,2008.1.7). 한 학원당 20명을 단위로 하는 강좌가 5개 정도 있다고 가정하면 1백명의 수강생이 있고, 네팔에서 2백개의 한국어학원이 있으니 2만 명의 학생이 있는 셈이다.

북경 한국문화원의 한국어강좌 수강자는 1994년 7백여 명이었으나 2005년에는 1만여 명이 지원하여 강좌의 수용한계를 초과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2006년 한국어능력시험에 19개 도시에서 8천여 명이 응시한 바 있다. 외국어능력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초급 1,2단계 혹은 중급 1,2단계까지도 이수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사례로 미루어보면 이렇게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의 숫자에는 그 저변에 최소한 4-5배의 학습자 수요가 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2.2. 국외 한국어 교육의 실태와 세종학당의 필요성

이처럼 국외에서 한국어 학습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서비스 제공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설, 교재, 강사의 양적 질적 부족이 심각하다. 그 밖에도 각 정부 부처와 재단 등으로 나누어진 한국어 교육지원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YTN, 2007.7.10).

<표 2-3> 국외 한국어 교육 기관 현황(2007년 현재)

관련부처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교육기관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한국문화원
개소수	26개(14개국)	35개(14개국)	2,072개(107개국)	12개(9개국)
지원기관	국제교육진흥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재외동포재단	국립국어원, 한국어세계화재단, 한글학회

전반적으로 재외동포들에 대한 민족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외교통상부, 그 산하의 국제교육진흥원,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 학술영역 혹은 유학생 상호교류 차원에서 중등 또는 고등교육 수준에서 학자 교류와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한국 및 한국어 교육이 있는데,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국제교육진흥원과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외교통상부의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교육인적자원부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한국국적의 재외국민, 한국 국적이 없는 동포 그리고 외국의 한국학 연구자를 대상으로 국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학 연구자 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외국민 대상의 정규 국어교육 과정에 의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를 위해 국어교사 자격증 소지자나 국어(국문)학과출신이 교원자격을 갖는다.

<표 2-4> 부처별 국외한국어 교육의 교육 대상과 특성 비교

구분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관계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재단법	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의 보급 등)
교육 대상	· 한국국적의 재외국민 · 한국 국적이 없는 동포 · 외국의 한국학 연구자	· 한국 국적의 외국 장기 체류자 및 영주권자 ·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	· 현지 외국인(일반대중) · 국제결혼 이주 여성 및 외국 국적의 이주 근로자
교육 내용	· 국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한 한국어 교육 · 한국학 연구자 지원	·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보급 · 국외 한국학 진흥 지원	· 일반 대중(낮은 층위) 대상의 생활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이해
교육 성격	재외국민 대상의 정규 국어교육과정에 의한 한국어 교육 실시	재외 동포 한국어 교육 및 문화사업	· 문화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한국어 교육과 쌍방향 문화 교류 확대 및 문화적 연대 도모
교원 자격	· 국어교사 자격증 ※국어(국문)학과	해당 없음	· 국어교사 자격증 ※국어(국문)학과

출처: 세종학당 운영요강(2007)

외교통상부는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라 한국 국적의 외국 장기 체류자 및 영주권자,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보급과 국외 한국학 진흥 지원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재외 동포 한국어 교육 및 문화사업을 실시하고 교원에 대한 특별한 자격을 두고 있지 않다.

<표 2-5> 국외 한국어 교육 기관의 사업 성과

기관명	소속	사업항목	사업효과(연인원)		
			2007	2006	2005
한국국제교류재단	외교통상부	한국어펠로십	..	106	84
국제교육진흥원	교육인적자원부	장단기 학생 교육 국내외 교사 연수	..	823 1315	..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과건	280	170	60

자료: 국제교육진흥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그런데 재외동포들과 학술교류를 제외한 대중적 차원에서 외국인들의

한국어 학습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함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한국어펠로십 프로그램(2006년 106명)이 있고, 국제교육진흥원에서 국내외 교사 연수 프로그램(2006년 1천315명)이 있지만, 이는 기존의 한글학교 또는 한국학교 교사에 대한 재교육이지 새롭게 급증한 한국어 학습 수요에 대한 대응은 아니다. 한국국제협력단에서 파견하는 해외봉사단원 가운데 한국어 강사가 있지만(2006년 170명), 이들은 단기적 활동을 하고 복귀하는 봉사 단원이기 때문에 한국어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세종학당은 소수 지식인 중심이 아닌 국외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개방형 한국어 문화학교'를 지향한다. 즉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보급하는 사회교육원 형태의 현지 교육시설'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국어기본법(제19조 국어의 보급 등)에 따라 현지 외국인(일반대중), 국제결혼 이주 여성 및 외국 국적의 이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 대중(낮은 층위)을 대상으로 생활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이해를 교육내용으로 한다. 이는 '문화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한국어 교육과 쌍방향 문화 교류 확대 및 문화적 연대 도모를 의미한다.

<자료> 한국 정부의 한국어 교육 관련 활동

1. 역사적 전개과정

최초의 기록 - 1950년대 일본 내에서 조청련계의 민족학교가 활성화되면서 민단 계열의 재이동포 자녀가 이들 학교에 다니게 되는 것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대응하여 민단계 학교의 설립 및 민족합급의 개설을 추진함

최초의 관련 법령의 제정 - 1977년에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 그러나 이는 한국 국적의 재외동포의 모국 수학 및 현지 교육 지원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한국어의 국외 보급을 목표로 한 정책이나 법규로 보기 어려움

정책적 지원의 시작 - 1998년 후반에 현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전신인 국제문화협회에서 방송을 통하여 한국어 강좌를 송출하면서 시작된 국내에서의 한국어 교육 지원 활동은 1990년 중앙부서로서 문화부가 설치되고 어문출판국 내의 어문과에서 외국인/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재를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에 위탁하여 개발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함. 이와 함께 재외동포의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한 교재 개발 사업을 전개함. 이후 획기적인 일은 1995년부터 연구 개발 기간을 거쳐 1997년에 실시한 한국어능력시험(교육부 산한 한국학술진흥재단 주관)과 1998년부터 문화체육부가 주관한 한국어세계화추진사업임. 이후 다양한 지원 활동이 여러 부서에 의하여 추진됨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여 한국 정부의 한국어 교육 주관 내지는 지원 활동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 같음

<표 2-6> 한국어 교육 기관 연혁

연도	주요 사업
2007	국립국어원 세종학당 추진
2006	제1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실시
2005	국어기본법 제정, 공포, 발효 문화관광부 국외보급사업이 국립국어원으로 이관 한국어국외보급사업협의회 구성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실시
2004	교육인적자원부의 스테디 코리아 2005 발표
2002	제1회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실시
2001	한국어세계화재단 설립
1998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 설치: 한국어 교재개발 등 연구, 보급 사업
1997	재외동포재단 설립: 재외동포 관련 업무 전담 재외동포재단법 공포, 발효 제1회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1992	(재외국민교육원에서) 국제교육진흥원으로 개편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연구자료지원사업 시작
1991	재외국민교육원을 교육부 직속의 국제교육진흥원으로 개편 한국국제교류재단 설립 한국국제협력단 설립 국립국어연구원 설립
1990	문화부가 신설되고, 한국어 국외 보급 업무를 문화부로 이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국어심의회 조항)에 한글의 국외 보급 명문화
1977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정 서울대학교 재외국민교육원 개원

2. 정부 각 부처의 한국어 보급 사업

1)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외동포교육과에서는 재외동포 교육 기관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하기관인 국제교육진흥원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동포교육을 위해 세계 곳곳에 한국교육원과 한국학교를 두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산하 단체로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두고 있는데,

1981년에 설립된 한국학술진흥재단은 국제교류사업의 일부로 한국학 연구 지원을 하고 있으며, 1978년에 설립된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해외 한국학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1) 교육인적자원부 재외동포교육과

재외한국교육원(14개국 35개) 운영 지원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 II) 한국어 채택관련 고등학교 한국어강사 급여 지원

캐나다(UBC주)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지원

호주(NSW주) 한국어 자문관 지원 등

(2) 국제교육진흥원

국제교육진흥원은 재외동포교육과 국제교육 교류·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교육인적자원부 소속의 국가기관으로서 1962년 모국수학생 지도를 위한 서울대학교 학생지도연구소로 출발하였으며, 1992년 국제교육진흥원으로 개편되었고, 2001년부터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재외동포 교육전문기관이다.

○ 재외동포교육

가. 국제화 인적자원 개발 및 육성

장기교육과정(9개월 28주 수업) 및 단기 교육과정 (3개월 12주 수업)

교육 내용 :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사, 현장체험학습 등 특별활동

계절제 교육과정 : 재일동포 대학생준계학교 외

나. 국외 현지연수(한글학교 교원) 및 재외동포 교육용 교재 개발 보급

다. 한국어교육정보시스템(<http://www.kosnet.go.kr>)운영 및 「Education in Korea」 발간

○ 국제교류협력

가. 한국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초청·관리

40개국 215명 내외(박사과정 및 석사과정)

나. 외국정부초청 장학생 선발·파견

17개국 170명 내외(연구/학위/연수과정 등)

다. 한국·일본 교육교류

연간 상호 교류 인원 : 중·고생, 대학생, 교원 520명

라. 중국 한국어학과 대학생 초청연수

마. 아시아 미래 지도자 및 BRICS 국가 대학생 초청연수

○ 외국인 유학생유치

가. 일본 공과대학 유학생(학부과정) 및 국비유학생(학위과정) 선발 파견 관리

나. 교원 국외연수(과학 및 제2외국어 교과)

다. 외국인 및 한국학교 교원 초청연수

라.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한국유학안내시스템(www.studykorea.go.kr) 관리

해외유학박람회 개최 및 한국 유학 안내 자료 제작 배포

외국인 유학생의 날 행사 지원

(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 개발(국제교육진흥원 위탁 사업)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4) 한국학술진흥재단

해외 대학에 한국어 객원교수 파견

2)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는 산하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을 두고 있는데, 이들 기관이 모두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정부차원의 대외무상협력사업을 전담하는 한국국제협력단은 1991년에

설립되었는데 한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개도국에서 한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한국어 교수, 학생을 초청하여 한국어 연수를 실시하기도 하고, 한국어 교수 요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1991년에 설립된 외교부 산하 단체로서 외국과의 각종 교류 사업을 통해 국제 사회에 한국을 올바르게 알리고 국제적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은 학습기회 확대 사업, 교육자 양성 사업, 교육기반 구축 사업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최근 들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1997년에 설립된 재외동포재단은 외교통상부 산하 기관으로 재외동포 사업을 통괄하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비영리 공공법인이다. 1996년 5월 3일 “제 1차 재외동포정책 위원회”에서 재외동포재단 설립이 합의 되었으며, 1997년 3월 27일 “재외동포재단법” (법률 제5313호)이 공포되고 이 해 10월 30일 재외동포재단이 발족되어 공식업무를 시작하였다. 한글학교 지원을 비롯하여 모국어 및 민족교육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1)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내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외동포재단은 3대 중점사업을 추진한다. 첫째, 한민족의 동질성 유지를 지원하고, 둘째, 사이버 한민족 공동체인 한민족네트워크(Korean.net)를 성공리에 확충하며, 셋째, 상공인, 무역인, IT인, 과학기술자단체 등의 통합네트워크인 한상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 모국어 및 민족교육 지원사업
 - 가. 재외 한글학교 지원
 - 나. 교육자료 및 교육기자재 지원
 - 다. 중국지역 등 민족학교 지원
- 재외동포 장학사업

- 가.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 나. 중국·CIS 지역 장학금 지원
- 다. 모국 수학, 재외동포 장학사업
- 재외동포 초청 교육연수사업
 - 가.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
 - 나.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 다. 재외동포 민족교육자 초청 모국연수
 - 라. CIS지역 한국어교사 초청 모국연수
- 영어권 재외동포 사이버 한국어 강좌(Teen Korean)개발, 운영

(2) 한국국제교류재단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각종 교류 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지원 및 참가,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국외 한국연구의 지원 및 연구결과 보급,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제반 활동,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친선의 증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민족적 유대감을 고취하기 위한 재외동포 관련 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에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및 부대사업을 실시한다.

- 국외 한국어 학습 기회 확대 사업
 - 가. 해외 대학에 한국어 교수직 설치 지원
 - 나. 개설 초기의 한국어 강좌에 객원교수 파견 및 교수인력의 급여 등 지원
 - 다. 초·중·고 과정의 한국어 교육 지원(미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 한국 관련 교육자 육성 사업
 - 가. 한국 전공 대학원생 장학 제도: 한국어·한국학 전공 외국의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중국 등 일부 지역은 학부생 포함) 장학금 지급
 - 나. 한국어 연수 펠로십: 전문적인 한국어 구사능력을 필요로 하는 외국의 한국어 강사 및 대학(원)생, 한국연구학자, 또는 한국 관련업무 종사자들에게 국내 대학의 한국어연수기관에서 학습기회 제공

- 다. 국외 각급 학교 교사 연수
- 라. 한국어, 한국학 전공 외국 대학생의 한국어 문화 연수
- 한국어 교육기반 구축 사업
 - 가. 국외 각급 교육현장 및 일반 대중 대상의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 지원
 - 나. 국외 및 국내 한국어 교수 및 학자들의 연구, 회의 지원
 - 다. 한국어·한국학 프로그램 운영 대학에 한국어 학습교재와 한국 사회, 문화, 예술에 대한 인쇄, 시청각, 멀티미디어 자료 제공

(3) 한국국제협력단

1991년 4월 외교통상부산하의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되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정부차원의 대외무상협력사업을 전담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연수생 초청 사업
 - 한국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한국어학과 교수, 학생, 외교부 관계자 등
- 한국어교육 봉사단파견사업

3)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의 한국어 국외 보급 사업은 민족문화과에서 거의 담당해 왔으며, 1991년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문을 연 국립국어원은 1992년부터 중국과 구소련지역의 한국어교사를 초청하여 교육하고, 전문가 파견 사업을 해 왔다. 그러나 2005년부터 한국어 국외 보급 사업은 대부분 국립국어원으로 이관되어 운영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산하에 설립된 한국어세계화재단은 한국어교육능력 인증시험, 노동부의 한국어능력시험실시 기관으로의 임무를 하고 있다.

(1) 국립국어원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학습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어 국외 보급에 대한 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립국어원에서는 국외의 한국어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국외 한국어 교사 교육, 한국어 학습용 교재와 자료의 개발·보급, 한국어 교원 자격 검정 시험의 실시, 한국어 학습자용 포털사이트 개발, 그리고 국내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어 학습용 교재 개발·보급, 한국어 교원 자격 검정 시험, 한국어 학습자용 포털사이트 개발 등의 사업은 보조사업자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다.

- 한국어 국외 보급 사업
 - 가. 국외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
 - 나. 한국어 전문가 파견
 - 다.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 한국어 문화권 확산 시스템 구축
 - 가. 한류 드라마 등 활용 교재 개발
 - 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
 - 다. 국제 결혼 이주여성·이주노동자 한국어언어문화 교육

(2) 한국어세계화재단

- 국립국어원의 사업 위탁 시행
 - 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실시
 - 나. 한국어 교재 개발 및 보급, 연구서 개발 등
 - 다. 국제 결혼 이주여성 교재 개발 및 교사교육
 - 라. 한국어 표준교육과정 개발

- 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위탁 사업 시행
 - 가. 해외 고용허가제 한국어 시험 실시
 - 나. 농촌 이주여성 교재 개발(농림부)

2.3. 주요 국가의 자국어 국외보급 모델

세종학당의 설립과 운영은 향후 운영이 본 궤도에 오르면 다양한 사업 방식이 모색될 수 있겠지만 아직 설립 초창기인 만큼 정부예산의 투자를 통해 진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설립과 운영이 국가경제에 어떤 효과를 미칠지 분석하는 것은 곧 정부투자사업의 효과를 측정하는 문제, 즉 정부투자사업에 따른 비용(cost)과 편익(benefit) 분석 비교의 문제가 된다.

비용과 편익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작업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기에 앞서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들 사례를 참조하도록 한다. 자국어를 국외에 보급하는 외국 주요 기관으로는 영국의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 일본의 일본어국제센터, 독일의 독일문화원(Goethe Institut), 프랑스의 프랑스문화원(Alliance française) 등이 있다. 이들 기관의 운영실태를 비교해서 정리한 것이 <표 2-7>과 <표 2-8>이다. 이를 각 국 별로 검토해보자.

<표 2-7> 주요 국가의 해외 현지인 대상 자국어와 문화 교류 기관 현황

(2007년 현재)

구분	개설국가 수	보급시설 수	2006년도 예산
프랑스(알리앙스 프랑세즈)	136개국	1,074개소	독립채산제에 의한 유료교육
영국(브리티시 카운실)	110개국	238개소	9,200억원
독일(괴테 인스티튜트)	79개국	147개소	2,700억원
일본(일본어국제센터)	10개국	122개소	438억원
중국(공자학원)	52개국	140개소	250억원
한국(세종학당)	2개국	3개소	16억원

주: 중국은 2010년까지 공자학원을 5백개소로 늘리고, 일본은 '일본어국제센터'를 현재의 10개 거점에
서 1백개 거점으로 늘릴 계획임(조선일보, 2007.1.10).

<표 2-8> 주요 국가의 국제 문화 교류 기관

구분	영국 British Council (영국문화원)	독일 Goethe Institute (독일문화원)	일본 Japan Foundation (일본국제교류기금)
설립 년도	1934년	1951년	1972년
기관 성격 (소관 부처)	공익법인 (외무성 재정지원)	공익법인(외무성과 무대행 계약 체결)	독립행정법인
설립 목적	영국 및 영어에 대한 이해 증진, 외국과 문화·과학· 기술·교육분야 상호 협력 촉진	해외 독일어 보급과 지 원,국제간 문화 교류 증진	일본에 대한 제외국의 이해 를 심화, 국제상호 이해를 증진
주요 사업	- 영어 보급사업 - 초청, 파견 등 국제협력사업 - 예술 및 과학분야 교류 사업 - 영국 내 교육훈련 사업	- 독일어 보급사업 - 문화 교류사업 (예술, 음악, 연극) - 독일 관련 각종 정보 제공	- 해외일본연구지원 (일본어보급 포함) - 인물교류, 문화예술교류 - 출판자료사업 - 일·미협력사업
주요 재원	- 정부보조금 57% - 자체수입 40% (영어교습비,운용수익 등) - 민간기부금 3%	- 정부보조금 67% - 자체수입 33% (독어교습비 등)	- 정부보조금 85% - 자체수입 9% (운용수익, 기부금 등) - 민간기부금 6%(11억엔) ※적립금 1,110억엔
연간 예산	4억 8천 5백만 파운드(8억 8 천 2백만불) *2004/05년 예산	2억 7천 8백만 유로(3 억 3천 5백만불) *2004 년도	162억엔(1억 5,000만불) *2003년 예산 기준
인원 (해외)	5,400여명(3,800여명)	3,100여명	310여명(80여명)
해외지 부/센터	110개국 220여개소 (사무소, 어학센터)	78개국 144개소 (사무소, 어학센터)	18개국 22개소(사무소, 일본 문화센터, 일본어센터)

<표 2-8> 주요 국가의 국제 문화 교류 기관-계속

구분	스페인 Cervantes Institute (스페인문화원)	포르투갈 Camoës Institute (까몽이스 재단)	스웨덴 Swedish Institute (스웨덴 재단)
설립년도	1991년	1992년	1945년
기관성격 (소관부처)	외무부 산하 비영리 법인	외무부 산하 재단법인	공익법인 (외무부에서 재정지원)
설립목적	스페인어 및 스페인어권 문화의 보급	포르투갈 언어와 문화의 해외보급과 국제 통용어로서 포르투갈어의 진흥	스웨덴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외국과의 교류를 증진
주요사업	- 스페인어 보급 사업 - 스페인어어권 문화소개 (공연, 전시, 영화, 출판 등) - 도서관 운영(스페인어권 문화관련 최신정보 제공)	- 포르투갈어 진흥 사업 - 문화 소개 사업 - 해외 포르투갈문화센터 관리, 지원 - 외국과의 문화협 정 체결 준비, 추진	- 스웨덴에 관한 지식 및 정보보급(출판, 인터넷 등) - 스웨덴연구 및 스웨덴어 교육 지원 - 문화 교류사업 - 국제협력(중·동부 유럽 대상)
주요재원	- 정부보조금 40% - 자체수입 60% (스페인어교습비 등)	- 정부보조금 99% - 자체수입 1%	- 정부보조금100% (주로 외무부 예산이며, 기타 교육부, 문화부 예산도 사용)
연간예산	4천 7백만불 *2001년 예산 기준	30억 에스쿠두 (1천 3백 5십만불)	1억 8천 5백만 크로나 (1천 8백만불) *2003년 기준
인원(해외)	985명	90여명	90여명
해외지부/ 센터	28개국 37개소	14개국 20개소(포르투갈 문화센터, 포르투갈어센터)	1개소 (파리 스웨덴 문화센터)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2005), 「2005년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1)」

2.3.1.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

영국의 경우 영어보급을 위해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을 일찍이 1934년부터 설립 운영하고 있다. 영국문화원의 설립 목적은 영어 습득을 증진시키고, 영국과 기타 국가 간 협력 강화 그리고 외국 사람들에게 영국의 창의성과 과학적 혁신에 대한 감상력과 이해력을 높이며 영국문화의

다양성에 노출되는 기회를 강화함에 있다. 하지만 이런 목적과 함께 영어 강좌를 통해 영어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그 수익금을 문화보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수익과 투자가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특징이 있다.

영국문화원은 비정부 공익법인이며 종사하는 인원은 2006년 현재 약 7천5백여명에 달하고 예산은 약 9억7천만 달러(2005년 8억 8천2백만 달러, 5천4백여명), 우리나라 돈으로 9천2백억 원에 이른다. 해외 109개국 238개소에 지부를 두어, 연간 2천4백만 명 이상이 영국문화원을 이용하고 있다. 해외 53개국에서 2천명의 교사들이 32만 5천명의 학생들에게 110만 강의시간의 영어를 교육제공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92만 5천명의 지원자들에게 130만 영국시험을 제공해서 2천5백만 파운드 수입을 획득하고 있다. 이렇게 영어는 문화를 전파하는 동시에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이 된다.

<표 2-9> 주한 영국문화원의 강좌 구성

강좌종류		기간	수료단계	강좌시기	수업료
어린이영어교실		정규 학기 코스 7주/주당 2회 (90분 수업)		연간 6학기 6개반	학기당 325,000원
성인반	정규회화코스	7주 / 주당 4회 (90분 수업)	5개 단계	연간 6학기 4개반	440,000원
	특별코스	7주 / 주당 2회 (90분 수업)	4개 단계	연간 6학기 4개반	250,000원
	특별코스 (토요반)	7주 / 주당 1회 (195분 수업)	4개 단계	연간 6학기 1개반	250,000원
	IELTS준비반	7주 / 주당 6회 (90분 수업)	1개 단계	연간 6학기 2개반	440,000원
	주중코스	7주 / 주1회 (190분 수업)	1개 단계	연간 6학기 2개반	
비즈니스회화		7주 / 주 1회 21시간	2개 단계	연간 6학기 5개 모듈	학기당 250,000원

주: 교사연수는 제외함.

자료: 주한 영국문화원

영국문화원의 수입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주한 영국문화원의 강좌 구성과 수업료를 살펴보자. 강좌는 크게 어린이교실과 성인반, 비즈니스회화로 나누어져 있고, 성인반은 다시 정규회화코스, 특별코스, IELTS 준비반, 주중코스 등으로 나누어져있고 각 코스는 다시 몇 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각 코스는 7주로 이루어지며 연간 6학기가 진행된다. 매 학기당 25만원 혹은 그 이상의 수업료를 받으며 이 수업료가 영국문화원 전체의 예산 중 자체수입 비중 40%를 가능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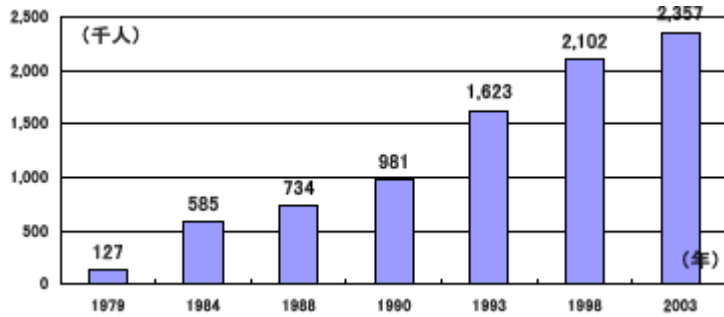
2.3.2. 일본어국제센터

일본의 일본어국제센터는 국제 상호 이해와 우호 친선 촉진을 위해 1972년 10월 일본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이라는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어 2003년 독립하여 행정법인화 됐다. 주요 사업은 일본어 교육, 일본 연구, 문화 예술 교류 등이 3대 주요 업무이다. 2006년 현재 438억원의 자금으로 세계 10개국 122개 거점에 일본어 교육 전문가, 주니어 전문가(2004년도까지는 청년 일본어 교사), 일본어 교육 지도 보조원 및 일본어 교육 시니어 객원교수를 파견하고 있다. 또 대학 등의 신규로 강좌를 개설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중등 교육 분야의 일본어 교육 지원을 위해 타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인도, 아일랜드, 헝가리 등에 전문가를 신규로 파견하고 있다.

또한 2003년에는 「일본어 교육 기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본어국제센터에서 세계 50개국 이상으로부터 연간 약 5백명 초빙하여 국외 일본어 교사 대상 연수와 교재의 개발 및 기증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외에서 「일본어능력시험」을 1984년부터 실시해 와서, 2005년도에는 제22회째로 국외 44개국, 116개 도시에서 실시, 수험자는 35만 천여명에 이른다. 2002년 「여러분의 교재 사이트」를 개설한 이후 기능 계속 확대되어 2005년 한국어판을 제작하였으며 『기초 일본어 학습 사전』(태국어판) 제2판 등을 간행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특히 1990년대 들어 해외 일본어 학습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그 늘어난 숫자의 현황은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해외 일본어 학습자 수



자료: 經濟産業省(2006; 121)

<표 2-10> 2004년도 일본국제교류기금의 지역별 활동 내용 구성비

(단위: %, 백만 엔)

구분	활동 내용						총액	비중
	재외사업비	문화예술	일본연구, 지적교류	일본어교육	협력사업 필요 경비	조사연구, 정보제공		
서구	51.5	27.7	10.0	8.0	2.7	0.1	1,511	18.4
대양주	52.1	14.1	6.5	27.2	-	0.1	536	6.5
북미	13.8	9.5	60.2	5.2	11.1	-	1,526	18.5
동아시아	9.0	18.5	38.5	24.4	9.4	0.2	1,085	13.2
동남 아시아	16.4	20.7	13.5	49.4	-	0.01	1,250	15.2
동유럽	3.9	31.1	15.4	48.7	0.7	0.2	733	8.9
중동, 북아프리카	6.6	52.2	16.7	24.4	-	0.1	642	7.8
아프리카	-	63.5	15	16.4	5.2	-	104	1.3
남아시아	6.6	45.8	16.3	31.2	-	0.01	350	4.3
중남미	25.7	43.8	6.3	24.1	-	0.1	485	5.9

자료: 일본국제교류기금(2005), 「일본국제교류기금 연보」

일본의 일본국제교류기금의 지역별 활동 내용 구성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투입 예산의 크기별로 지역을 보면, 북미, 서구, 대양주, 동구의 선진국 지역이 전체의 52.3%, 후진국 지역은 34.5%였다.1) 이러한 선진국 지역 중심의 교류는 그 형태에 있어서도 여타 지역 교류와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곧, 서구와

1) 또한, 동아시아가 전체의 13.2%인데 한국과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일본의 국제교류지원이 선진국 지역(65.5%) 중심임을 알 수 있다.

대양주의 경우에는 재외사업비가 가장 큰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고, 북미와 한국, 중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일본연구 및 지적교류가 최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동남아와 동유럽에서는 일본어교육이, 나머지 지역에서는 문화예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차 순위에 있어서도 후진국 지역에서는 문화예술과 일본어교육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일본의 이들 지역과의 문화 교류에서는 문화예술과 일본어교육을 특히 우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1> 주한 일본어국제센터 강좌 구성

강좌 종류	기간	수료단계	강좌시기	수강료
번역	13주(100분 수업)	2개 단계	연간 2학기	학기당 150,000원
대화기술	13주(100분 수업)	2개 단계	연간 2학기	
테마토론	13주(100분 수업)	2개 단계	연간 2학기	
작문기술	13주(100분 수업)	1개 단계	연간 2학기	
청해와 일본어이해	13주(100분 수업)	1개 단계	연간 2학기	
일본문화	13주(100분 수업)	1개 단계	연간 2학기	

주: 교사연수를 제외한 일반강좌 구성임.
 자료: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주한 일본어국제센터의 경우 강좌가 그 용도에 따라 번역, 대화기술, 테마토론, 작문기술, 듣기이해(청해와 일본어이해), 그리고 일본문화 전반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강좌는 13주를 한 학기로 해서 연간 2학기로 구성되어 있다. 수강료는 각 강좌 공히 학기당 15만원이다.

2.3.3. 독일문화원(Goethe Institut)

독일문화원(Goethe Institut)은 1951년에 설립되었는데, 설립 목적은 국외에 독일어를 알리고 국제문화협력 활동을 지원하며, 문화, 사회, 정치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포괄적인 독일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괴테-인스티튜트, 괴테-센터, 문화단체 및 자료실을 비롯하여 어학능력시험센터와 어학교육센터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통하여 대외 문화 및 교육 정책의 중심 과제를 수행한다.

2006년 현재 2천7백억원의 예산으로 78개국 133개소(괴테센터 9개국

30개소 제외)와 독일 국내 괴테인스티투트를 포함하면 세계 79개국 147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5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곳에서는 전 세계에서 17만 5천명 이상을 매년 교육하고 있고 독일, 독일어, 독일 문화에 관심을 갖는 모두에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표 2-12> 주한 독일문화원의 강좌 구성

강좌 종류	기간	수료단계	강좌시기	반 정원
일반강좌	방학 코스 8주 / 주당 3회 (150분 수업)	1 단계	연간 2회	성인 최대20명
	정규 학기 코스 12주/ 주당 2회 (150분 수업)			
초집중강좌	주당 5회/ 24시간	준비강좌	연간 4회	
	주당 5회/20시간/ 3.5주	1 단계	연간 12회	
직장인 위탁교육강좌	수시 상담			

주: 소재지-서울 대전, 1시간 수업은 45분으로 구성.
자료: 주한 독일문화원

주한 독일문화원은 강좌를 일반강좌, 초집중강좌, 직장인 위탁교육강좌로 나누고 일반강좌는 8주 또는 12주로 연간 2회, 초집중강좌는 연간 4회 또는 12회로 운영된다.

2.3.4. 프랑스문화원(Alliance française)

프랑스문화원(Alliance française)은 세계 처음으로 1883년에 국외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화의 진흥, 국제 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파리에 설립되었고 2006년 현재 136개국 1천74개소에 소재해 있다. 지금까지 세계 약 43만명의 학생이 알리앙스 프랑세즈의 수업을 수강했다. 그 연륜이 오래된 만큼이나 예산은 본부에 해당하는 파리 알리앙스 프랑세즈의 경우, 연간 운영 예산 약 144억원 가운데 95%를 수강료, 교재 판매 등의 자체 수입으로 조달하고, 약 5%만 국고 보조를 받고 있다. 또한 국외의 알리앙스 프랑세즈는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 프랑스문화원은 TCF

DAP, 신 DELF& DALF, TCF 프랑스어 능력 테스트, TEF 프랑스어 평가 테스트 등 다양한 어학테스트를 운영하고 있다.

<표 2-13> 주한 프랑스문화원의 강좌 구성

Kurstyp	Dauer			Termine	수업료	장소
성인반	중급반	9주	주1회 주당 2시간	연간 1회	130.000원	프랑스문화원
	고급반	9주				
청소년반	Classe B~F	9주	주1회 주당 2시간	연간 1회	270.000원	프랑스 학교
	기초1, 기초2	9주	주1회 주당 3시간	연간 1회		

주: 소재지-서울 전주 부산

자료: 주한 프랑스문화원

주한 프랑스문화원의 강좌 구성을 살펴보면, 성인반과 청소년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반은 기초1과 기초2로 구성된 기초반과 Classe B~F로 구성되고 성인반은 중급반과 고급반으로 구성된다. 강의 시간은 주당 2~3시간정도이며 연간1회 운영된다. 수업료는 청소년반의 수업료는 27만원, 성인반은 13만원 정도이다.

3. 세종학당 설립의 경제적 효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사업주체의 주관적 사업구상이 아닌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사업타당성 검토는 사업의 결과가 당초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거나 다르게 나타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게 하는 예방주사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다. 특히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정부사업의 경우에는 그만큼 객관적이고 엄정한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세종학당의 설립과 운영의 경우에도 그것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고 그것은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통해 추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비용과 편익은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3.1. 세종학당 설립의 직접적 경제효과

3.1.1. 세종학당의 운영 계획

<표 3-1> 제1단계(2007년~2011년) 설립 및 운영 계획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몽골 지역	5개교	5개교	5개교	5개교	5개교	25개교
중국 지역	10개교	10개교	10개교	15개교	15개교	60개교
중앙아시아 지역	3개교	3개교	3개교	3개교	3개교	15개교
계	18개교	18개교	18개교	23개교	23개교	100개교

자료: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이 설정하고 있는 세종학당 설립 계획에 따르면 <표 3-1>과 같이 2007년부터 제1단계로 중국에 10개교, 몽골에 5개교, 중앙·서남아시아 지역에 3개교를 시작으로 매년 각각 10개교, 5개교, 3개교씩 확대, 2011년에는 중국에 60개교, 몽골에 25개교 그리고 중앙·서남아시아 지역에 15개교를 설립할 계획이다.

<표 3-2> 제2단계(2012년 ~2016년) 설립 및 운영 계획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북미,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20개교	20개교	20개교	20개교	20개교	100개교
계	20개교	20개교	20개교	20개교	20개교	100개교

자료: 국립국어원

이어 2012년부터 제2단계에 들어가 북미,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로 학당 설립의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역시 제1단계와 같이 2012년에 20개교를 설립하고 매년 20개교씩 꾸준히 설립을 확대하여 2016년에 총 1백개교로 학당 설립을 확대할 방침이다.

3.1.2. 세종학당의 인력수요

일단 각 지역별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요는 충분하다는 가정하며 각 학교당 교원의 수는 계획에 따라 최소 10명이고 여기에 책임자와 행정요원이 최소 3명이 필요하다. 설립되는 세종학당은 문화관광부에서 발급하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가 설립연도부터 3년째까지는 정원의 30% 이상, 6년째까지는 정원의 50% 이상, 9년째까지는 80% 이상이 되게 비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교원은 우선 당장은 국외 현지에서 충원하기는 어렵고 한국에서 파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한국어교원 자격증 심사 및 인증에서 2006년의 경우 3급 6백명, 2급 269명 등 869명이 인증을 받았고, 2007년에는 3급 364명, 2급 79명이 인증을 받은 바 있다. 2년간에 걸쳐 2천299명이 신청을 해서 1천312명이 인증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인증을 받은 교원 자격증 소지자 중 10명의 절반인 5명이 국내에서 파견되고, 5명은 현지에서 양성과 인증과정을 거쳐 발탁된 인원으로 충원될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표 3-3> 종류별 한국어 교원 자격증 인증 현황(2007년 4월말 현재)

심사년도	신청자 수	종류별 인증자 수				비고
		계	1급	2급	3급	
2006년	1751	869	-	269	600	합격률 49.6%
2007년	548	443	-	79	364	합격률 80.8%
계	2,299	1,312	-	348	964	(평균 57.1%)

주: 국내 한국어 교육학과 설치 대학(원) 28개 대학, 연간 졸업자 수 5백여명
 자료: 국립국어원

또 행정을 담당하는 3인 중 책임자 1인은 국내에서 파견할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세종학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국내 혹은 국외 대학은 이러한 교원 인력을 갖추어가면서 그만큼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국내와 국외에서 창출하게 된다. 이런 가정을 바탕으로 산술적인 한국인강사인력의 수요를 도출하면 <표 3-4>와 같다.

<표 3-4> 제1단계 설립 계획에 따른 교원 수요 전망

(단위: 명)

		2007	2008	2009	2010	2011	소계	2012	2013	2014	2015	총계
몽골	신설학당	5개	5개	5개	5개	5개	25개	0	0	0	0	25
	신규교원	5	10	15	20	25	75	20	15	10	5	125
중국	신설학당	10개	10개	10개	15개	15개	60개	0	0	0	0	60
	신규교원	10	20	30	45	60	165	50	40	30	15	300
중앙	신설학당	3개	3개	3개	3개	3개	15개	0	0	0	0	15
아시아	신규교원	3	6	9	12	15	45	12	9	6	3	75
계		18	36	54	77	100	285	82	64	46	23	500

몽골지역은 2007년부터 5개의 학당이 각각 매년 1명씩 5개년간 충원해 가야 하고 2008년에 개교한 세종학당 5개교도 마찬가지로 매년 1명씩 5개년간 충원을 계속해가야 한다. 이렇게 보면 2011년까지 25개 교에서 모두 75명, 그리고 2015년까지 총계 125명의 한국어 교원을 국내에서 충원해야 한다. 중국 역시 매년 10개의 학당들이 각 학당별로 1명씩 2007~09년에는 매년 설립되는 10개 학당에서 10명씩을 5년 동안 충원해가야 하고, 2010~11년에도 매년 신설되는 15개 학당에서 5년 동안 매년 15명씩의 강

사수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2011년까지 총 165명의 교원을 필요로 하고, 2015년까지 총 3백명의 교원 수요를 낳게 된다.

중앙아시아 지역도 각 학당별로 1명씩 3개 학당에서 매년 3명의 강사 수요가 누적적으로 발생하여 2011년까지 45명, 2015년까지 총 75명의 교원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이런 추정에 따라 제1차 계획에 의한 세종학당 설립은 2011년까지 285명, 2015년까지 총 5백명의 한국어 교원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교원 수요는 각 학당이 요건에 따른 최소한의 인원을 매년 충원해간다고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이보다 더 많게, 더 빠르게 교원을 충원해갈 수 있다.

<표 3-5> 제2단계 설립 계획에 따른 교원 수요 전망

(단위: 명)

		2012	2013	2014	2015	2016	소계	2017	2018	2019	2020	총계
북미, 중남미,	신설 학당	20개	20개	20개	20개	20개	100개	0	0	0	0	100
유럽, 아프리카	신규 교원	20	40	60	80	100	300	80	60	40	20	500

제2단계 세종학당 설립 계획에 따른 강사인력수요는 2012년에 북미,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지역에 각 학당별로 1명씩 20개 학당에서 5년간 누적적으로 매년 20명의 강사수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2016년까지 총 3백명의 교원을, 2020년까지 모두 5백명의 교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 제1차, 제2차 세종학당 설립 계획에 따른 교원 수요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285명, 2016년까지 누계 8백명, 2020년까지 누계 1천명의 한국어 강사 수요를 창출한다.

이외에도 각 학당은 행정요원을 3명 이상 두어야 한다. 3명 중 2명은 현지에서 채용하고 1명씩을 국내에서 파견한다고 가정하면 국내에서 1차 계획에 따라 1백명, 2차 계획에 따라 1백명씩을 파견하게 된다. 즉 2백명의 행정요원 수요가 발생한다. 결국 1~2단계 세종학당 설립을 통해 국외에서 1천2백명 분의 일자리가 창출되게 된다.

3.1.3. 세종학당의 직접적 경제적비용

그런데 모든 사업은 효과만 발휘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만큼의 비용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특히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정부 예산의 지출이 필요하다. 그런데 세종학당의 경우 교육시설을 새로이 건축해서 보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정부 내 같은 부서 소속으로서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재외 한국문화원과 협력하거나, 현지의 대학교 혹은 각종 한국어 교육 기관 또는 국내 대학 등과 업무협정을 통해 개설하려는 것이 특징이다(세종학당 운영규정 제 4조,5조). 따라서 시설 보유에 따른 비용은 전혀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이다. 단지 세종학당 운영에 필요한 교육시설 임대료와 공공요금 및 강의료 등 최소한의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운영규정 제 9조).

세종학당 설립에 따른 비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제1차 계획에서는 학당 설립에 따른 소요예산은 설립비용과 운영비용 그리고 한국어 교육 전문인력 양성비용, 한국어 교육교재 및 콘텐츠 개발·보급비용, 온라인 한국어 교육체계 구축비용의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비용은 단계별·연차별 설립 계획에 따라 지출될 것이며 이는 다음의 3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시설비 지원으로 2007년 4억 3천만원을 시작으로 2008년에 7억 1천만원, 2009년에 9억 9천만원 2010년에 12억 3천만원 그리고 2011년에 19억 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총 53억 2천만원, 연평균 10억 6천4백만원이며 각 학당별 5천320만원 정도이다. 이렇게 시설비가 적게 소요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종학당은 현지 자체 건물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현지 대학 또는 학교의 건물을 계약 통해 사용하고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수강학생 수의 상황에 따라 쉽게 개설과 폐교, 교체를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순발력이 큰, 저비용 고효율의 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6> 세종학당 제1차 계획 소요예산 및 투자 계획

(단위: 백만원)

연번	추진과제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평균
	세부과제								
1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		1,050	910	3,050	4,210	5,260	14,480	3,124
	1-1	시설비 지원	430	710	990	1,230	1,960	5,320	1,064
	1-2	교원 인건비 지원	520	0	1,760	2,580	2,900	7,760	1,780
	1-3	개설 지역 조사 관리	100	200	300	400	400	1,400	280
2	전문인력 양성		480	110	1,560	1,960	2,460	6,570	1,434
	2-1	교원자격 인증제 운영	60	60	60	60	60	300	60
	2-2	교원 파견	200	0	800	900	1,000	2,900	620
	2-3	초청 연수	200	0	600	800	1,000	2,600	600
	2-4	현지 교사 재교육	20	50	100	200	400	770	154
3	한국어 교육교재 및 콘텐츠 개발·보급		200	400	1,000	1,500	2,000	5,100	1,026.8
4	온라인 한국어 교육체계 구축		20	390	350	450	550	1,760	334
합 계			2,594	1,800	6,375	8,100	8,100	29,594	5,918.8

자료: 국립국어원

두 번째로 교원 인건비로 2007년 5억 2천만원을 시작으로 2009년에 17억 6천만원, 2010년에 25억 8천만원 그리고 2011년에 2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총 77억 6천만원이 소요된다. 연평균 17억 8천만원이며 각 학당별 7천 760만원 정도이다. 시설비를 제외하면 전체 비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것도 세종학당 운영의 유연성에 따른 것이다. 각 학당 별로 최소 10명씩의 교원이 필요하도록 요건에서 정하고 있으나, 이 모든 인건비를 직접 정부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세종학당 설립에 관해 협력을 맺고 설립한 대학 또는 학교 기관들이 교원을 채용, 운영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에서는 각 학당 별로 1명씩에 해당하는 인건비만 지원하면 되는 것이다.

끝으로 개설 지역 조사·관리비용이 2007년 1억원을 시작으로 2008년에 2억원, 2009년에 3억원, 2010년에 4억원 그리고 2011년에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총 14억원, 연평균 2억 8천만원이며 각 학당별 1천4백만원 정도이다. 이렇게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비는 2007년 10억 5천만원을 시

작으로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 9억 1천만원, 2009년에 30억 5천만원 2010년에 42억 1천만원 그리고 2011년에 52억 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총 144억 8천원, 연평균 31억 2천4백만원이며 각 학당별 1억 4천480만원 정도이다.

이러한 직접적인 시설과 운영에 관련된 비용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비용은 한국어 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어 교원자격인증제도 운영비용, 한국어 교육전문가 현지파견 비용, 현지 한국어 강사 등 초청연수 비용 그리고 현지 교사 재교육비용 등 다양한 추가적 비용이 발생한다. 먼저 교원자격 인증제 운영에 드는 비용으로 2007년 6천만원을 시작으로 2008년에도 6천만원 2009년에도 6천만원, 2010년에도 6천만원 그리고 2011년에도 역시 6천만원이 예산이 소요되어 총 3억원, 연평균 6천만원이며 각 학당별 3백만원 정도이다.

두 번째, 교원과파견비용으로 2007년 2억원을 시작으로 2009년에 8억원, 2010년에 9억원 그리고 2011년에 10억원이 예산이 소요되어 총 29억원, 연평균 6억 2천만원이며 각 학당별 2억 6천만원정도이다. 세 번째로 초청연수 비용으로 2007년 2억원, 2009년에 6억원, 2010년에도 8억원 그리고 2011년에 10억원이 예산이 소요되어 총 26억원, 연평균 6억원이며 각 학당별 2천6백만원 정도이다. 끝으로 현지 교사 재교육비용으로 2007년 2천만원을 시작으로 2008년에 5천만원, 2009년에 1억원 2010년에 2억원 그리고 2011년에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총 7억 7천만원, 연평균 1억 5천4백만원이며 각 학당별 770만원 정도이다.

이렇게 한국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비용은 2007년 4억 8천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 1억 1천만원, 2009년에 15억 6천만원 2010년에 19억 6천만원 그리고 2011년에 24억 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총 65억 7천만원, 연평균 14억 3천4백만원이며 각 학당별 6천570만원 정도이다.

이 밖에도 학당에서 필요한 한국어 교재의 개발 및 보급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07년에 2억원, 2008년에 4억원, 2009년에 10억원, 2010년에 15억원 그리고 2011년에 20억원이 집행되어 5년간 총 지출액은 51억원이 소요되고 연평균 10억 2천680만원, 각 학당별로 1억 268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한국어 교육체계의 구축에 2007년 2천만원, 2008년

3억 9천만원, 2009년 3억 5천만원, 2010년에 4억 5천만원 그리고 2011년에 5억 5천만원이 지출되어 총 17억 6천만원, 연평균 3억 3천4백만원 그리고 각 학당별로 3천 340만원이 지출될 것이다.

<표 3-7> 세종학당 설립에 따른 경제적 비용

(단위: 백만원)

구분	1단계					2단계					합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예산	2,594	1,800	6,375	8,100	8,100	10,694	9,900	14,475	16,200	16,200	94,438

이렇게 해서 제 1차 계획에서 단계별·연차별로 지출되는 예산은 2007년 25억 94백만원을 시작으로 2008년에 18억원 지출되었고, 앞으로 2009년에 63억 7천5백만원 2010년에 81억 그리고 2011년에 81억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그래서 1차 계획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295억 9천4백만원이며 연평균 59억 1천880만원, 각 학당별로 2억 9천594만원이 소요될 것이다.

동일하게 1백개교가 설립될 2차 계획에서도 각 연도별로 <표 3-7>과 같이 예산이 소요된다고 가정했을 때 648억 4천4백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지역과 환경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대략 동일하다고 가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세종학당 설립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1차와 2차 계획을 합해 되어 총 944억 3천8백만원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된다.

3.1.4. 세종학당의 직접적 경제편익

<표 3-8> 세종학당 설립에 따른 경제적 편익

(단위: 백만원)

구분	년도	예산	가중치	경제적편익
1단계	2007	2,594	20%	519
	2008	1,800	20%	360
	2009	6,375	20%	1,275
	2010	8,100	20%	1,620
	2011	8,100	20%	1,620
2단계	2012	10,694	20%	2,139
	2013	9,900	20%	1,980
	2014	14,475	20%	2,895
	2015	16,200	20%	3,240
	2016	16,200	20%	3,240
	합계	94,438		18,888

지금까지 세종학당의 비용을 살펴보았다. 이제 세종학당에 대한 직접적 경제편익을 도출해 보자. 세종학당 설립과 운영에 따른 직접적 경제편익은 금전적 수입과 학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수요의 효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세종학당 역시 장기적으로는 자체수입을 통해 재원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학당 설립에 따른 직접적 경제적 편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세종학당의 수강료와 교재수입이 직접적 경제편익이 될 것이지만 각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것이다. 세종학당 설립으로 인한 금전적 수입은 한국어 교육에 따른 수강생들로 부터의 직접적인 수강료수입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종학당의 강의는 초급1과 초급2 그리고 중급1과 중급2를 기본과정으로 하며 추가적으로 고급과정과 맞춤형강의에 대해서만 유료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고급이나 맞춤형강의에 대한 수요는 미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세종학당 운영에 따른 학생들로부터의 금전적 수입은 미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이유로 앞서 외국의 사례를 분석을 통해 그들의 직접적 경제적 편익은 얼마나 되는가를 살펴보고 이를 세종학당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설립목적이 단순한 언어의 전달이 아니고 각 나라의 이해를 돕고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일 이외에도 문화·과학·기술·교육 분야의 상호 협력 촉진까지 확대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세종학당의 설립 목표역시 단순한 한국어의 전파가 아니라 한국문화의 전파와 함께 과학·기술·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이는 한국어 전파의 파생적인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원천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둘째, 재원조달에 있어 정부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민간 기부금과 자체수입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가령 영국의 경우 정부보조금 57%, 민간기부금 3% 그리고 영어 교습비, 운영수익 등에서의 자체수입으로 40%를 충당하고 있다, 일본 역시 정부보조금 85%, 민간기부금 6%와 함께 운영수익을 통한 자체수입으로 9%를 충당한다. 독일은 정부보조금 67%과 자체수입 33%로 구성되어 있다. 파리 알리앙스 프랑세즈의 경우, 연간 운영 예산 약 144억원 가운데 95%를 수강료, 교재 판매 등의 자체 수입으로 조달하고, 약 5%만 국고 보조를 받고 있다. 또한 국외의 알리앙스 프랑세즈는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의 어학당들은 정부보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세종학당도 매년 예산대비 일정부분을 자립적으로 재원을 마련한다고 가정한다. 각 지역의 학당은 총예산의 20%를 매년 학생들에 대한 수강료와 교재비 기타 매점이나 기념품판매수입으로 자체 재원을 마련한다고 가정하여 도출을 하면 다음과 같다(실제로 세종학당이 주로 후진국에 개설됨을 고려하더라도 학습효과 자극을 위해서도 최소한의 수강료 징수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1.5. 세종학당 설립에 따른 직접적 경제효과

세종학당의 직접적 경제효과만을 살펴보자. 2007년 경제적 비용은 25억 9천4백만원이지만 경제적편익은 이보다 월등히 작은 5억 1천9백만원으로 그 차이가 무려 20억 7천5백만원이다. 이러한 차이는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커진다. 2016년에는 편익은 32억 4천만원이지만 경제적비용은 162억

원으로 그 차이는 129억 6천만원이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을 합계를 비교하면 총경제적편익은 188억 8천8백만원이고 총경제적비용은 944억 3천8백만원으로 그 차이는 755억 5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표 3-9> 세종학당 설립의 직접적 경제효과

(단위: 백만원)

구분	년도	경제적편익 (A)	경제적비용 (B)	차이 (A-B)
1단계	2007	519	2,594	-2,075
	2008	360	1,800	-1,440
	2009	1,275	6,375	-5,100
	2010	1,620	8,100	-6,480
	2011	1,620	8,100	-6,480
2단계	2012	2,139	10,694	-8,555
	2013	1,980	9,900	-7,920
	2014	2,895	14,475	-11,580
	2015	3,240	16,200	-12,960
	2016	3,240	16,200	-12,960
	합계	18,888	94,438	-75,550

이처럼 수입은 상당히 미약하지만 비용은 수입에 비해 매우 높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을 가지고 세종학당 설립의 타당성에 관한 예단을 할 수는 없다. 이는 오늘날 기술혁신 주도의 지식기반경제에서 일반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기초과학과 연구개발(R&D)투자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단기적인 수익성을 평가해서 시행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세종학당의 목적은 한국어를 널리 알려서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이란 상품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높여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경제학적으로 볼 때 국외 한국어 교육에 대한 국가의 투자는 경제적 외부효과를 갖는 것이고 그에 대한 비용지출은 초기 일정기간 동안에는 '매몰비용'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세종학당 설립에 따른 효과는 단기적인 수익효과보다는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효과 형태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분석은 세종학당 설립에 따른 간접적 경제효과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질 것이다.

3.2. 세종학당 설립의 간접적 경제효과

세종학당 설립으로 외국인들의 한국어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적 효과는 그 설립 취지대로 외국 일반 대중의 한국어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즉, 국외 투자 기업의 생산성 증대 효과, 한국 제품의 수출 증대 효과, 국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생산성 증대 효과, 국내 외국어 교육 비용 감소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국외 한국어 보급 기관의 역할과 함께 어우러져 일반적으로 발생할 재외 교포 한글 습득에 따른 효과가 있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에 관해 자국어의 국외 보급 역사가 오래된, 즉 세계 언어가 되다시피한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들, 혹은 이민으로 나라가 건국될 만큼 이주민 수용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에서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어 있다. 캐나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그러하다. 그 연구들에서는 주로 시계열분석방법을 사용하는데 그런 방법을 우리 사례에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시계열분석이 가능할 만큼 통계가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모델을 구성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다양한 대체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분석하고 이를 기존 외국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보기로 한다.

3.2.1. 국외 투자 기업의 생산성 증대효과

국내기업의 국외 투자는 1997년을 정점으로 외환위기 발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지만, 2000년대 들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기업의 국외 투자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아시아 지역은 2002년도 전체 국외 투자의 49.8%, 2005년도에 60.0%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2002년도에 중국, 미국, 네덜란드, 베트남, 홍콩 순으로 중국이 국내기업의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미국을 앞섰으며, 홍콩, 베트남 등 그 외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2007년까지 누계액 기준 순서는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등).

<표 3-10> 한국의 국외직접투자 규모 추세

(단위: 백만 달러, 건)

	신고기준		투자기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92	992	2,151	1,540	1,341
1993	1,523	2,174	1,764	1,441
1994	2,650	3,687	3,188	2,360
1995	2,500	5,282	3,471	3,185
1996	3,208	7,152	4,376	4,498
1997	2,762	6,065	4,005	3,759
1998	1,667	5,843	2,764	4,741
1999	2,342	4,627	3,350	3,319
2000	3,864	6,115	5,444	5,105
2001	3,951	6,404	6,420	5,173
2002	4,675	6,448	7,773	3,828
2003	5,367	5,993	9,000	4,161
2004	7,088	8,181	12,925	6,103
2005	8,749	9,318	15,979	6,78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표 3-11> 한국의 지역별 국외 투자 동향

(단위: 억 달러, %)

지역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아시아	17.6	23.3	19.2	32.1	44.6	52.6	55.9
유럽	4.8	3.6	22.8	13.2	3.4	8.8	8.3
북미	18.4	13.7	19.5	14.2	8.2	15.2	14.7
중남미	3.4	16.9	2.0	4.0	1.9	3.4	9.3

주: 신고기준 금액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전체적인 국외 투자 가운데에도 對중국투자는 건수 및 금액 면에서 특히 2002년도에 전년대비 각각 21.6%, 79.2% 증가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중국투자는 증가율 87.0%의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성장전망이 높은 중국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동시에 국내중소업체들이 외환위기 이후의 사업구조 조정기를 거쳐 본격적인 국외생산체제 구축에 나섰다기 때문이다.

<표 3-12> 한국의 국외 투자 기업, 지사 현황(2006.1.1 현재)

(단위: 개, 천 달러)

	투자기업,지사 수	(신고)투자액	(실제)투자액
중국	19,253	23,781,203	15,833,021
아시아(중국 외)	8,793	23,143,876	12,983,143
북미	8,384	18,136,243	13,852,756
유럽	1,456	10,988,847	6,789,734
중남미	773	5,609,767	3,958,977
아프리카	235	1,813,070	815,869
대양주	1,029	2,625,720	1,209,733
중동	179	1,965,388	1,334,755
합계	40,102	88,064,114	56,777,988

자료: 무역협회 내부자료,2007

그 결과 2006년 현재 한국의 국외 투자 기업, 국외지사 숫자는 모두 4만 102개에 이르며, 누계투자액은 신고액 기준으로 880억 5천411만 달러, 실제액 기준으로 567억 7천799만 달러에 이른다(무역협회 내부자료). 특히 중국은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투자 기업 수가 1만 9천 253개, 신고된 누적투자액은 237억 8천120만 달러, 실제누적투자액은 158억 3천302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의 투자도 점차 늘어나서 투자 기업수가 8천793개, 신고누적투자액은 231억 4천388만 달러, 실제누적투자액은 129억 8천314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밖에도 북미에는 투자 기업수가 8천384개, 신고누적투자액이 181억 3천624만 달러, 실제투자액 138억 5천276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밖에도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대양주, 중동 등에 계속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한국 국외 투자 기업의 수의 증가하면서 고용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 보면 2001년과 2002년 기준으로 73만 8천531명과 78만 8천888명이다. 업체당 볼 때 120.9명과 115.6명, 투자액 1백만 달러당 고용유발인원은 71.4명과 63.2명이다.2)

2) <표> 대 중국 한국투자 법인의 고용효과 추이

(단위: 명)

	전체 산업			제조업		
	총 인원	업체당인원	고용유발인원	총 인원	업체당인원	고용유발인원
2000년	738,531	120.9	71.4	686,971	133.8	79.1
2001년	788,888	115.6	63.2	731,049	127.5	69.7

3.2.1.1. 국외 투자 기업의 생산성 증대, 현지시장 확대 효과

이렇게 왕성하게 늘어나는 국외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언어소통의 곤란함이다. 그 때문에 현지교민들을 많이 채용하게 된다. 특히 한국 기업이 급격하게 중국에 한 것은 한국경제의 급속한 구조조정 탓도 있지만, 그 밖에도 중국 조선족들의 역할로 인한 진출의 용이함도 주요 변수 중의 하나였다.³⁾

그래서 많은 한국 업체들은 그렇게 중견직원으로 80% 정도 우리와 의사소통이 원만한 조선족들을 채용했다. 지방정부 해당 부문, 주요도시의 투자유치관련 부문과 회사에 중견으로 활약하고 있는 많은 조선족들이 중국을 잘 모르는 한국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 수많은 한국기업의 경리, 대리, 통역, 부장으로부터 시작해 한국가정의 식모나 보모, 식당 카운터에까지 중국에 진출한 한국인이 생활하고 사업하는 모든 곳에 조선족들이 있어서 중국 사업에서 언어 면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경영을 도와왔다. 조선족들은 그렇게 한국기업에서 대리, 부장 등 직책을 가지고 근무하다가 독립하여 회사의 납품업체를 꾸리는 경우도 많다. 현재 청도시의 조선족기업은 3백여개로 추산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한국시장, 한국기업과 관련되어 있다 (길림신문, 2006.11.2).

그러나 이는 편리한 만큼 노무 인사와 조직관리에 차별을 둬서 장기적으로는 현지화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지투자에 대한 중국인들의 평가를 중국인의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중국 현지 한국기업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현지 한국기업과 접촉이 빈번한 현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주: 고용유발인원은 투자액 1백만 달러당 고용인원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2003;17)

3) 구한말 일제하에 한국인의 만주지역 정착과정과 현지에서 중국 및 일본제국주의 국가권력 간의 관계에 관한 상세한 분석으로 김재훈(2003)을 참고하라.

<표 3-13> 재중동포의 한국기업에 대한 기여도

	기여도	매우높음	높음	차이없음	낮음	매우낮음	합 계
1집단	빈도	27	93	120	5	1	246
	비율	11.0	37.8	48.8	2.0	0.4	100.0
2집단	빈도	2	6	20	8	5	41
	비율	4.9	14.6	48.8	19.5	12.2	100.0
전체	빈도	29	99	140	13	6	287
	비율	10.1	34.5	48.8	4.5	2.1	100.0

자료: 김번욱 이상직(2001; 117)

국의 투자 기업의 현지 동포 고용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질문에 대중 투자기업의 경우 종업원 구성 비율을 참조하면 재중동포 직원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재중동포의 한국기업에 대한 기여도와 기여부분에 대한 조사하였으며, 그 설문결과는 <표 3-13>과 같다. 먼저 기여도에 있어 '매우 높음' 또는 '높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집단은 각각 11.0%, 37.8%로 약 절반의 응답자는 대중동포의 기여도가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차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8.8%, '기여도가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단지 2.4%에 불과했다. 그러나 2집단의 경우 약 20%는 '기여도가 높다'고 응답한 반면, '기여도가 낮다'고 응답한 비율도 30%를 상회하고 있다.4)

<표 3-14> 기여도가 높은 이유

		원활한 의사소통에 기여	뛰어난 개인능력	한국인 및 한국기업 이해	성실성과 신뢰성	넓은 인간관계	합 계
1집단	빈도	54	11	40	11	4	120
	비율	45.0	9.2	33.3	9.2	3.3	100.0
2집단	빈도	11	0	2	0	1	14
	비율	78.6	0	14.3	0	7.1	100.0
전체	빈도	65	11	42	11	5	134
	비율	48.5	8.2	31.3	8.2	3.7	100.0

자료: 김번욱 이상직(2001; 118)

4) 조사는 2001년 7월 2일부터 2001년 7월 13일까지, 기업과의 관계에 따라 설문 대상을 구분하여 객관성 확보를 추구하기 위해 2개 집단으로 나누어 이루어진 것이다. 1집단은 천진·대련지역 대중투자기업 관리자(기업내부인)로 254명 그리고 2집단은 경제개발구 또는 보세구의 한국기업 담당자, 현지 정부의 외자유치 담당자, 현지 은행직원 등(기업외부인) 49명이다. 이상 김번욱 이상직(2001)에 의함.

그렇게 '매우 높음' 또는 '높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대답한 이유를 물었더니 1집단과 2집단 모두 한국인과 한족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기여, 한국인 및 한국기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뛰어난 개인능력, 성실성과 신뢰성 그리고 넓은 인간관계 순으로 답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이외에도 기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도 적용될 것이다. 실제로 베트남 진출 기업의 경우 진출 초기에는 라이파이한을 고용함으로써 현지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한다.

<표 3-15> 재중동포 기여도의 민족별 분포

		매우 높음	높음	차이 없음	낮음	매우 낮음	합 계
기타	빈도	11	37	104	10	6	168
	비율	6.5	22.0	61.9	6.0	3.6	100.0
재중동포	빈도	16	55	30	1	0	102
	비율	15.7	53.9	29.4	1.0	0	100.0
전체	빈도	27	92	134	11	6	270
	비율	10.0	34.1	49.6	4.1	2.2	100.0

자료: 김번욱 이상직(2001; 119)

그러나 비록 재중동포는 한국인과 현지인간의 의사소통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단지 이러한 이유만으로 현지인이 아닌 외지의 재중동포를 고용하는 것은 대중투자기업의 조직간 또는 종업원간 협력에 있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족별로 재중동포의 기여도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재중동포의 기여도에 있어 두 집단 간의 응답은 차이가 있다. 즉 기여도가 '매우 높음' 또는 '높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재중동포를 제외한 중국인 집단'에 있어서는 각각 6.5%, 22.0%로 나타났지만, '재중동포 집단'에 있어서는 각각 15.7%, 53.9%로 나타나 커다란 차이가 있다. 또한 '낮음' 또는 '매우 낮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재중동포를 제외한 중국인 집단에 있어서는 각각 6.0%, 3.6%로 나타났지만, 재중동포 집단에 있어서는 각각 1.0%, 0.0%로 나타나, 재중동포의 기여도에 대해서는 민족별로 달리 평가하고 있다.

재중동포를 제외한 중국인 집단은 기여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리

고 재중동포의 집단에서는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재중동포의 기여도 평가는 쉽지 않다. 성공적인 현지화는 종업원의 現地人化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상기할 경우 조선동포의 고용이나 승진에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재중동포는 한국인과 현지인간의 의사소통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단지 이러한 이유만으로 현지인이 아닌 외지의 재중동포를 고용하는 것은 대중 투자기업의 조직간 또는 종업원간 협력에 있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지어 혹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현지인의 차별 없는 고용이 국외 투자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긴요함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외국계 기업이 늘어나면 그 나라 언어를 익혀 그들 기업에 입사하려는 현지인 구직지망생들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예컨대 중국에서도 전반적인 중국 대학생들의 취업난 속에서도 한국어에 능숙한 학생들은 민족을 불문하고 취업률이 높다. 연변대학의 경우 한족 학생들이 다니는 한국어과 학생들은 매년 거의 100% 취업이 될 정도로 취업률이 높고, 여기에 조선족 학생들을 포함하는 조문학부 전체를 기준으로 봐도 80% 이상 취업이 가능하다(길림신문, 2006.12.14).

우리는 이러한 필요성을 한국보다 훨씬 일찍 국외진출 역사를 가진 일본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일본기업 진출이 1990년대 이후 특히 급증해서, 장강삼각주 지역에 진출한 일본기업이 2004년 7천개에서 2006년에는 1만개를 웃돌았고 이중 5천개 회사가 상해에 있다. 일본기업의 중국 내 현지채용이 늘어나면서 일본어능력시험(JLPT) 응시자들도 폭증하였다. 상해에만 일본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2003년 8만명에서 2006년에 12만명으로 늘었지만 12월 3일 실시되는 일본어능력시험에 응시기회를 얻은 학생은 2만 5천명에 불과했다. 많은 일본기업들이 직원 채용 시 일본어능력시험 성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길림신문, 2006.11.16).

이렇게 늘어난 현지인력들을 차별 없이 활용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현지 토착화를 통한 생존기반 확보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그래서 중국 현지에서는 한국기업의 열 가지 인재관리 실패요인 가운데 다음 다섯 가지가 이렇게 현지인에 대한 차별대우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 ① 현지직원을 소모품으로 생각한다: 필요 없으면 언제든 내보내면 되

지 하는 생각, 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여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경우, 혹은 필요해서 잠시 쓰는 물건쯤으로 생각하는 경우이다. 그러면 현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회사를 이용한다.

② 인격적으로 예우하지 않는다: 예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대우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를 때 크게 “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저 자식” 이라고 한다든지 혹은 조그만 실수에도 큰 소리로 야단을 쳐서 그들의 문화에 정면으로 도전한다든지 등 많은 실례를 범한다. 그러면 그들은 회사를 옮긴 후에 한국기업의 적이 되고 한국인을 폄하하여 사업에 정면으로 피해를 주게 된다.

③ 희망을 주지 않는다: 급여체계는 중국과 한국의 소비수준이 완전히 틀려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승진에서조차 그들에게 차별대우를 한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 자신의 처한 수준만큼만 일을 하게 된다. 희망을 버리고 마는 것이다.

④ 한국인끼리만 행동하고 어울린다: 식사를 할 때 현지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향한다. 가끔씩은 그들을 배려하는 상사가 되어야 한다. 한국인 대 중국인 대결 구도가 되어 가는데 그들이 문제가 있더라도 과연 회사의 책임자에게 어떤 정보를 주겠는가? 정보를 얻지 못하는 회사의 경영자는 이미 자격을 상실한 경영자이다.

⑤ 중국의 문화 습관을 무시해버린다: 한국문화를 전파하고 알리는데 열심인 것은 좋은데 중국의 문화를 무시하는 것은 좋지 않다. 서로 협조하고 상생하려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5.1절, 10.1절, 추석, 음력설 때는 여기의 문화나 습관을 따라 보너스를 주거나 혹은 추석 때 월병을 주는 일 등이다.⁵⁾

국외 투자 기업이 단순한 생산 거점이 아니라 현지 시장을 향한 거점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지면 시장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고도의 기능을 수행

5) 그 외에 다음의 사항들이 지적된다(후룡강신문, 2007.9.8).

- ⑥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급여나 직급을 지나치게 높여주고 대우를 해주니 그들은 외자기업을 잠시 몸값을 높이는 정류장처럼 생각한다.
- ⑦ 회사의 나아갈 길 회사의 상황설명에 매우 인색해서 회사의 일원으로서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다.
- ⑧ 사장이 직원들 앞에서 다른 직원들 욕을 한다.
- ⑨ 직원들의 결혼식이나 큰일에 직원을 보낸다.
- ⑩ 해외 연수를 보내준다고 한다든지 언제 보너스를 얼마만큼 준다고 고의적으로나 또는 비고의적으로 사람을 기만하여 공수표를 남발한다.

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현지법인 사원과 현지 사회, 현지 법인 내에서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현지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사원이 점점 더 필요하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필요성을 일본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예컨대 광고업 혹은 유통업과 같이 현지 서비스부문 진출 확대가 진행될 때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經濟産業省,2006; 120).

본 기업과 같은 업종(광고업)의 경우 해외에서 단순한 생산공정을 갖는 것과 달리 의사소통이 중요해지고 통역을 통해서도 충분한 전달이 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일본어와 현지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으면서 회사의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해지는데, 그다지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광고).

해외사업을 할 때 처음에는 일본어가 쉽게 통하는 대만을 거쳐서 그 후 중국 본토에 진출하게 되는데, 대만 현지법인 사람을 사이에 넣어서 도움을 받았다. 그러한 일본어 환경을 갖추지 않고서는 사업을 전개하기가 쉽지 않다(유통).

이렇게 국외에 한국어가 보급됨으로써 국외 투자 기업에 생산성 증대 효과와 시장 확대 효과가 발생할 것인데 그 효과의 크기를 추산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서는 그 효과를 현지에서의 통역고용비용 감소 효과를 통해 미루어 짐작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3.2.1.2. 현지에서의 통역 고용 비용 감소 효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외 투자에서 우선 부딪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통역을 고용하게 된다. 유럽과 북미와 같이 영어가 통하는 지역에서는 상관없지만 아시아지역에서는 국내의 전문통역사의 인력도 부족하지만 현지에서 한국어가 가능한 통역을 구하는 것은 더더욱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국외 투자에서 통역이 사업성공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례1> 한국어 통역 부족과 통역 비용 증가사례: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해있는 한 건설업체의 관계자는 최근 한국어 통역을 구하기 위해 타슈켄트에 있는 컨설팅 업체를 찾았다. 급여는 1년 계약으로 숙식 제공과 함께 한 달에 6백~1천 달러를 제시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대졸 초임이 1백 달러 정도에 불과한 점에 비취 상당한 수준의 급여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일부 업체는 전문 용어를 구사하는 통역의 경우 최대 1천5백 달러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어 통역의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성원건설로부터 의뢰를 받은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도 통역이 부족해 중급수준의 관광가이드의 경우 지난해만 해도 10달러면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하루에 30~50달러를 요구한다"면서 "만족할만한 수준의 통역을 빠른 시일 내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시아경제, 2007.3.17).

<사례2> 한국어 통역 부족과 통역비용 증가사례: 베트남

베트남에 진출해있는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진출 초기에 라이파이한 등 통역을 구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데, 임금은 현지 평균 대졸자 임금의 3-5배를 준다고 한다. 즉 평균 임금이 1백 달러인데 비해 3백-5백 달러의 보수를 받는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도 통역에 대해 평균 임금의 5배 정도인 1천-2천 달러의 보수를 지급한다고 한다. 또 대체로 국외 현지인들은 외국에 진출해있는 한국기업체에 취직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려 한다. 이는 한국 내에 진출해있는 외국인업체에 취업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언어를 배우려 노력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다.

<사례3> 한국어 통역관 부족과 통역비용 증가사례: 중국

한중 경제 문화 교류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한국은 지난해 일본을 제치고 중국의 제1관광객 원천 국가로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2005년 중국에 온 한국관광객은 연인수로 354만명에 달했는데 그중 7분의 1이 북경에 들렀다. 그러니 연인원 숫자로 50만명이 북경에 관광하러 왔다. 그런데 관광객 수는 그렇게 많은데 비해 한국어 가이드는 태부족이다.

북경시관광국의 통계수자에 따르면 2004년 11월까지 북경시의 가이드 자격증소유자는 1만 4591명인데 그중 한국어 가이드 자격증 소유자가 단 430명으로 관광객 수자에 비하면 1: 796이다.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북경에는 한국어 자격증을 딴 가이드가 20-30명밖에 안되었다. 그때는 정규대학 졸업자만 가이드 자격증 시험을 치를 자격이 있었고 또 대부분이 연변에서 북경에 건너온 조선족이었는데 그들이 중국어로 역사, 지리, 문화지식 등을 시험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웠다.

2000년부터 북경에 오는 한국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한국어가이드는 모자라고 해서 북경 관광국에서는 가이드 자격증 시험을 치는 기준을 많이 낮추어 고중 졸업 이상 학력이면 시험자격을 주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북경가이드관리회사에 등록된, 한국어가이드 자격증이 있는 가이드는 임시가이드 자격증 소유자까지 합하여 약 2천명 정도 된다. 여기에는 여행사에서 바쁠 때 불러다 쓰는 가이드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처럼 국외 각지의 통역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된 지역별 투자 기업 수와 공급부족상태의 한국어 통역의 임금, 적정공급상태의 한국어 통역관 임금을 비교함으로써 세종학당 설립에 따른 통역 공급 증가가 국내기업의 국외 투자와 관련된 통역 고용 비용의 감소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적정수요의 통역 임금을 추정하기에 앞서 몇 가지 가정을 해야 한다. 통역사의 적정 임금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자료의 부족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현지 가이드가 10달러에서 최근에는 30~50달러를 요구한다

는 내용을 근거로 통역사의 임금이 기존보다 약 3배~5배가 올랐다고 가정을 한다. 또한 현재 공급부족상태의 통역 임금이 6백~1천 달러를 호가하고 전문통역의 경우 1천5백달러의 비용이 든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대략 1천 달러라고 가정한다. 즉 공급이 부족한 통역의 비용이 한 기업 당 6백~1천5백 달러가 들고 공급부족이 없을 경우 약 2백~350달러임을 추정할 수 있다.

또 통역 고용비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본 분석에서는 전 지역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해서 통역 고용 비용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text{중국의 통역 고용 비용 감소 효과} = \text{지역별 기업 수} \times (\text{공급부족시의 임금} - \text{적정공급시의 임금})$$

<표 3-16> 세종학당 설립에 따른 통역 고용 비용 감소 효과

(단위: 개, \$)

지역	기업수	공급부족시 통역 고용 비용 (A)	적정공급시 통역 고용 비용 (B)	A-B	통역비용 감소 효과 (기업수×(A-B))
중국	19,253	600~1,000	200~330	270~800	5,198,310~15,402,400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8,793	600~1,000	200~330	270~800	2,374,110~7,034,400
합계	28,046				7,572,420~22,436,800

주: 중국 5,198,310\$~15,402,400\$=19,253×(600\$~1,000\$-200\$~330\$)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2,374,110\$~7,034,400\$=

8,793×(600\$~1,000\$-200\$~330\$)

위와 같이 세종학당 설립에 따른 통역 고용 비용의 감소는 세종학당 설립이 아시아 지역에 한정되기 때문에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추정했을 때 최소 757만 달러에서 최대 2천244만 달러의 비용 감소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이를 환율 9백원을 곱해 계산하면 68억 1천3백만 원에서 201억 9천6백만 원의 통역 고용 비용 감소 효과를 낳는다. 이러한 비용감소 효과는 세종학당 설립에 따라 발생할 국외 투자 기업의 생산성 증대효과의 최소 부분이라 추산할 수 있다.

3.2.2. 한국제품의 수출증대 효과

국외에서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이 늘어나면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그만큼 높아지고 이는 곧 무역 증대로 나타난다. 이에 관해 계량적으로 분석한 W.K.Hutchison(2002)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외국에서 영어를 제 1언어로 사용하는 인구가 10% 증가할 경우 수출과 수입이 1.3%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 영어를 제 2언어로 사용하는 인구가 10% 증가할 때 수출이 1.7%, 수입이 2.3%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영어를 제 2언어로 사용하는 인구의 비율이 제 1언어로 사용하는 인구의 비율에 비해 수출에 대해 1.3배 더 중요하고 수입에 대해 1.7배 더 중요한 것이다. 수입에 대한 효과가 더 높고, 또 제 2언어로 사용하는 효과가 더 높은 것은 그만큼 외국에서 수출증대를 위해 미국(한글의 경우 한국)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이렇게 언어의 국외보급은 교역 증대 효과를 낳고, 언어의 모국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촉진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에 관한 유사한 연구로 Gould(1994), Boisso & Ferantino(1997), Crystal(1997), Chiswick & Miller(1998), Rauch(1999) 등이 있다.

아직 외국에서 한국어 사용이 영어만큼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외국에서의 연구를 그대로 적용하여 추계를 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런 분석을 참고삼아 외국에서 한국어 사용의 교역증대 효과를 추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어 보급으로 인한 한국제품의 수출 증대 효과는 우선 한류의 확산을 빼고는 논할 수 없다. 한국어 보급은 한류문화의 보급과 함께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자연스럽게 문화적 교류와 경제적 교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먼저 한류의 경제적 효과를 간략히 살펴보고 한국어 보급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겠다.

3.2.2.1. 한류의 경제적 효과

한국 언론에 소개된 바와 같이 중국인들이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해 상당히 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류는 주로 청소년층에서 나타나는 문화 현상이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한류 현상이 언론 보도

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의견(53%)이 절반에 달했으나, 언론 보도가 과장되었다는 의견도 상당한 수준(42%)에 달하였다고 한다. 즉, 공연장, 한국 드라마 등 한류를 쉽게 느낄 수 있는 분위기에서는 한류의 열기가 대단하게 느껴지지만, 한류가 일반 도시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님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류가 국가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여 수출에 이바지하려면 특정한 연령층이 아닌 서민들에게까지 전반적으로 분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보급이 확대되면 한류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아시아 지역의 학습자들은 목적이 국제 결혼과 함께 한국으로의 취업이란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 보급의 효과는 매우 높을 것이다.

<표 3-17> 한류의 경제적 효과 종합

	수출액		부가가치액 (억원)	명목GDP 기여 (%)
	백만달러	억원		
상품수출	918	10,508	5,727	0.07
관광객 유치	825	9,449	7,277	0.09
영화·방송프로그램 수출	130	1,485	1,335	0.02
합 계	1,872	21,440	14,339	0.18

자료: 박귀현(2005; 15)

먼저 한류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고 한국어 보급과 한류의 관계를 살펴보자. 한류의 경제적 효과는 먼저 상품부문에서 조사대상 5개국(중국, 일본, 홍콩, 대만, 태국)에 대한 한류의 수출 증대 효과가 9억 1천8백만 달러로 이들 국가에 대한 소비재 총수출액 127억 5천2백만 달러의 7.2%에 달하였다. 품목별로는 4억 9천9백만 달러로 전체 한류효과의 64.2%를 점한 전기·전자·기계제품이 최대 수혜품목이었으며 식음료,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의 한류효과도 1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그 다음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이 13.4%, 스포츠·잡제품이 10.1%로 높았다. 개별품목별로 보면 국별로 한류영향품목이 약간씩 다르게 나타났지만, 인삼, 담배, 소주 등의 식음료와 화장품, 핸드백, 악세서리, 일부 의류 등 일반소비재, 승용차, 에어컨, 칼라TV 등 가전제품이 한류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 국가별 한류의 수출 증대 효과

(단위: 백만 달러, %)

	합 계	일 본	중 국	홍 콩	대 만	태 국
소비재 총수출 (A)	12,752	4,535	4,157	2,409	983	668
한류 효과 (B)	918	346	342	88	104	38
비 중 (B/A)	7.2	7.6	8.2	3.7	10.6	5.7

자료: 박귀현(2005; 10-13)

국가별로 한류 효과가 가장 큰 나라는 일본으로 3억 4천6백만 달러였으며, 중국이 3억 4천2백만 달러, 대만이 1억 4백만 달러로 1억 달러를 상회한 반면, 홍콩, 태국은 8천8백만 달러, 3천8백만 달러로 낮은 수준에 그쳤다. 국별 총소비재 수출에서 점하는 한류 효과의 비중은 중국이 가장 큰 8.2%였으며, 홍콩이 3.7%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외국관광객 유치분야에서는 2004년 총 관광객 증가 수 96.8만명 중 한류로 인한 관광객 증가 수는 64.7만명으로 66.9%를 차지하였으며, 분석대상 4개국(일본, 중국, 대만, 태국)으로부터의 관광객 증가 수 83.0만명 중 78.0%를 점하여 한류가 관광객 증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류의 효과 64.7만명이 한국 내에서 지출한 총지출액은 9천449억원으로 국내 순부가가치유발액은 7천277억원에 달하여 2004년 우리나라 GDP를 0.09% 끌어올렸다.

<표 3-19> 관광객 유치에서 한류 효과

(단위: 천명, %)

	관광객수		관광객 증감 (C=B-A)	한류효과 (D)	한류효과 의 비중 (D/C)
	'03년 (A)	'04년 (B)			
일 본	1,726	2,354	628	500	79.7
중 국	190	265	75	36	48.9
대 만	186	295	109	98	89.3
태 국	42	60	18	13	71.4
소 계	2,144	2,974	830	647	78.0

자료: 박귀현(2005; 5-7)

<표 3-20> 한류 관광의 경제적 효과

국가	전체관광객 (천명)	한류비율 ^{주1)} (%)	한류관광객 (천명)	1인당 지출액 ^{주2)} (달러)	총지출액 (만달러)	총지출액 ^{주3)} (억원)
일본	2443	20.1	491	1,108.5	5억 4,433	6,230
중국	627	59.5	373	1,338.0	4억 9,937	5,716
대만	305	53.5	163	1,064.5	1억 7,364	1,987
계	3,375	-	1,027	-	12억 1,735	1조 3,934

주: 1)한국관광공사(2004.12), 『한류관광마케팅의 파급효과분석 및 향후 발전방향』

2)한국관광공사(2004), 『외래여행객실태조사』, p.107

3)2004년 대미평균환율 1,144원 적용

자료: 한국은행(<http://ecos.bok.or.kr/>)

국별로는 2004년 최대 한류 효과국인 일본 관광객 증가수 62.8만명중 79.7%인 50.0만명이 한류의 영향으로 증가한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만도 10.9만명의 관광객 증가수중 89.3%인 9.8만명이 한류의 영향으로 증가하여 일본과 대만의 관광객 유치에 한류 효과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겨울연가, 한국식품 붐 등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체관광객수는 일본이 244만 3천명이고 중국은 62만 7천명 그리고 대만은 30만 5천명으로 일본이 월등히 많지만, 한류로 인한 관광객수의 비율은 일본이 20.1%, 중국 59.5%, 대만 53.5%로 중국과 대만이 월등히 높다. 1인당 지출액도 일본이 1천108.5달러, 중국이 1천338달러, 대만이 1천064.5달러로 중국의 경우 일본보다 더 많은 관광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와 한국어 보급 확산은 한류의 중국시장 공략을 가속화시켜 관광산업을 크게 성장시킬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체관광객수는 일본이 244만 3천명이고 중국은 62만 7천명 그리고 대만은 30만 5천명으로 일본이 월등히 많지만, 한류로 인한 관광객수의 비율은 일본이 20.1%, 중국 59.5%, 대만 53.5%로 중국과 대만이 월등히 높다. 1인당 지출액도 일본이 1천108.5달러, 중국이 1천338달러, 대만이 1천064.5달러로 중국의 경우 일본보다 더 많은 관광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와 한국어 보급 확산은 한류의 중국시장 공략을 가속화시켜 관광산업을 크게 성장시킬 것이다.

3.2.2.2. 한류와 한국어 전파의 시너지효과

이제 한국어와 한류의 관계를 살펴보자. 먼저 대중문화 콘텐츠 수출증가의 관광산업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한류 열풍시기 중 문화콘텐츠의 파급효과로 한국을 찾는 방문객 수가 급증했다. 2004년 한류 붐을 일으킨 국가의 관광객 중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답한 비율이 47%에 달한다.

특히, 한류의 경제적 효과는 관광산업에 두드러지는데, '겨울연가' 촬영지인 남이섬의 방문객 수 증가와 주관람층인 여성 방문객 입국 수 등을 볼 때 관광산업에 대한 문화콘텐츠의 영향력은 뚜렷하다. 이러한 문화콘텐츠에는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고 따라서 한국어교재를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사용한다면 한국어를 통해 한류가 전파되어 한류와 한국어는 서로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문화 산업의 업종별 수출 추이를 보면 증가추세에 어떤 경향성을 찾아볼 수 없는 출판업, 주로 해외자본의 하청형태로 수출이 이루어지는 애니메이션 등과 달리 음악, 영화, 방송 등과 같이 그 내용면에서 국적성이 비교적 뚜렷한 업종의 경우 2001년부터,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2003~04년부터 큰 증가세를 보여 왔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2005년에 게임산업의 수출규모가 가장 커서 5억 6천470만 달러였고 그 다음 캐릭터산업으로서 1억 6천370만 달러였다. 영화·방송프로그램 분야를 보면, 영화 수출이 對日수출 급증을 배경으로 전년비 30.4% 증가한 7천6백만 달러, 방송프로그램(드라마) 수출은 동 73.3% 증가한 1억 2천18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2005년 총 문화콘텐츠 수출규모는 전년대비 31.6% 증가한 12억 3천6백만 달러로 2003년 이후 급증세를 이어갔다.

<표 3-21> 문화 산업의 수출규모

(단위: 백만 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출판	54.3 (-)	62.2 (14.5)	64.2 (3.2)	67.8 (5.6)	75.9 (11.9)	149.7 (97.2)	182.2 (21.7)	191.3 (5.0)
만화	- (-)	0.3 (-)	0.4 (33.3)	0.7 (75.0)	0.8 (14.3)	4.1 (412.5)	1.9 (-53.7)	3.3 (73.7)
음악	8.6 (-)	8.2 (-4.7)	7.9 (-3.7)	7.4 (-6.3)	4.2 (-43.2)	13.3 (216.7)	34.2 (157.1)	22.3 (-34.8)
게임	82.3 (-)	107.7 (30.9)	101.5 (-5.8)	130.5 (28.6)	140.8 (7.9)	181.6 (29.0)	387.7 (113.5)	564.7 (45.7)
영화	- (-)	6 (-)	7.1 (18.3)	11.3 (59.2)	15 (32.7)	31 (106.7)	58.3 (88.1)	76 (30.4)
애니메이션	85 (-)	81.7 (-3.9)	85 (4.0)	121.4 (42.8)	89.2 (-26.5)	75.7 (-15.1)	61.8 (-18.4)	78.4 (26.9)
방송	10 (-)	12.7 (27.0)	13.1 (3.1)	18.9 (44.3)	28.8 (52.4)	42.1 (46.2)	70.3 (67.0)	121.8 (73.3)
캐릭터	- (-)	65.8 (-)	69.2 (5.2)	76.9 (11.1)	86 (11.8)	116.3 (35.2)	117.3 (0.9)	163.7 (39.6)
합계	240.2 (-)	344.6 (43.5)	348.4 (1.1)	434.9 (24.8)	440.7 (1.3)	630.7 (43.1)	939.4 (48.9)	1,236 (31.6)

주: 수출규모가 작고 통계가 연속적이지 못한 광고, 디지털교육/정보 부문 제외.
 자료: 문화관광부, 2006 문화산업통계, 2003 문화정책백서

문화콘텐츠 산업의 세계적 성장추이와 우리나라의 경우를 업종별로 비교해보면, 2004년 세계 문화콘텐츠 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1조 2천5백억 달러로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7.8%의 성장을 보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수출규모는 2004년에 48.9%의 성장률을 보여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2009년까지 연평균 7.3% 성장하면서 2009년에는 1조 7천8백억 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인데 우리나라는 1998-2005년 간에 연평균 59.3% 성장한 것이다. 게임산업의 경우 연평균 성장률이 8.1%로 Microsoft, SONY 등 대규모 자본의 투입으로 성장이 두드러졌는데, 우리나라는 83.7%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였다. 더구나 레저에 대한 인식 변화와 기술발달로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표 3-22> 문화 산업 지역별 수출현황(2005년도)

(단위: 천 달러, %)

	만화산업	영화산업	애니메이션 산업	방송산업	캐릭터산업	디지털교육 및 정보산업	합계 (영화제외)
중국	8.9	87.0	0.6	8.8	36.7	3.7	19.7
일본	10.4		31.5	61.9	8.5	53.9	30.1
동남아	14.1		0.5	25.0	5.4	4.0	10.1
북미	43.7	2.7	56.9	2.1	11.4	112.8	18.8
유럽	12.6	9.6	4.5	0.0	25.2	4.7	12.6
기타	10.3	0.7	6.0	2.2	12.8	20.9	8.1
전체 금액	3,268	75,995	78,249	105,885	163,666	5,203	356,271

주: 문화 산업 중 출판,음악,게임산업 등은 지역별 분류 미상으로 제외됨.
 자료: 문화관광부(문화산업통계,2006)에서 계산.

문화 산업의 지역별 수출 추이를 보면 동아시아지역에서 국가별 수출 규모 산출이 어려운 영화산업을 제외할 경우 일본에 대한 수출이 30.1%를 차지해서 가장 컸고 그 다음이 19.7%를 차지한 중국, 이렇게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이 59.9%를 차지한다. 영화산업을 포함할 경우 그 비중은 더욱 커서 전체 문화 산업 수출의 64.7%를 차지해서 동아시아지역의 비중을 엿볼 수 있다.

그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의 수출액 1억 2천980만 달러(1천485억원)의 국내 부가가치유발액은 1천335억원으로 2004년에 GDP를 0.02%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졌다. 이러한 한류문화의 수출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이끌 것이며 이는 다시 서민들에게 보급되어 서민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환류되는 현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표 3-23> 세종학당의 연간 졸업생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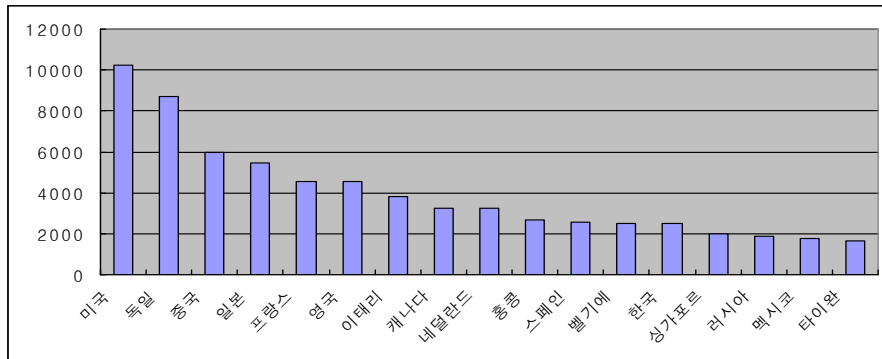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학교수	10개교	20개교	30개교	45개교	60개교	60개교
연간 교육인원	6,000~ 8,000	12,000~ 16,000	18,000~ 24,000	27,000~ 36,000	36,000~ 48,000	99,000~ 132,000

이렇게 세종학당에서 배출되는 한국의 학습자수는 10개교가 설립되는 2007년에 연간 6천-8천명이 될 것이며 그 후 가속적으로 증가해서 60개교가 설립되는 2011년까지 누계 9만 9천 내지 13만 2천명이 될 것이라 추산된다. 이들 세종학당 졸업생들이 국외에서 한류의 전령사가 되어 한국의 문화 산업, 더 나아가 한국 상품의 수요자, 또 매니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만큼 한국제품의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질 것이다.

3.2.2.3. 한국제품의 브랜드 이미지 상승효과

[그림 3-1] 국가브랜드 수익

(단위: 1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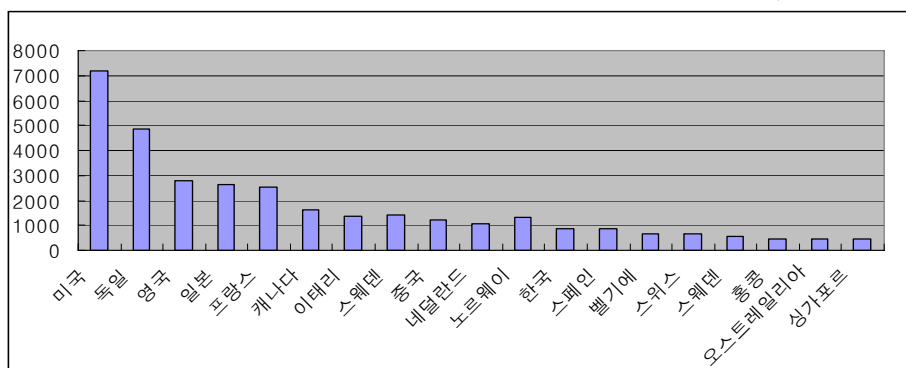
주: 브랜드 수익=매출액*국가지수
 자료: 조동성(2007; 12)

조동성(2007)의 2006년도 국가브랜드 가치평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가 브랜드 수익은 (1)미국 10조 2천160억 달러, (2)독일 8조 6천730억 달러, (3)중국 5조 9천520억 달러, (4)일본 5조 4천730억 달러 (5)프랑스 4조

5천770억 달러 (6)영국 4조 5천740억 달러 (7)이태리 3조 7천980억 달러 (8)캐나다 3조 2천640억 달러 (9)네덜란드 3조 2천320억 달러 (10)홍콩 2조 6천840억 달러 (11)스페인 2조 5천560억 달러 (12)벨기에 2조 4천970억 달러 (13)한국 2조 4천870억 달러 (14)싱가포르 2조 180억 달러 (15)러시아연방 1조 8천6백억 달러 (16)멕시코 1조 7천850억 달러 (17)타이완 1조 6천770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중 한국은 13위로 2조 4870억 달러의 국가브랜드의 수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가브랜드 수익은 매출액에 국가지수(산업지수)를 곱해 도출된다.

[그림 3-2] 국가브랜드 가치

(단위: 10억 달러)



주: 브랜드 가치=브랜드 수익*브랜드 파워지수
 브랜드 파워지수=브랜드 연상+브랜드 인지도+지각된 품질+기타 자산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들의 연상, 인지도, 지각된 품질, 자산 측정
 자료: 조동성(2007; 14)

이와 같은 국가브랜드 수익에 브랜드 파워지수를 곱해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도출 할 수 있는데 브랜드 파워지수는 브랜드 연상, 브랜드 인지도, 지각된 품질, 기타 자산을 통해 도출 된다. 이를 구하기 위해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들의 연상, 인지도, 지각된 품질, 자산 측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도출한 국가브랜드 가치는 (1) 미국 7만 2천10억 달러 (2) 독일 4만 8천620억 달러 (3) 영국 2만 7천660억 달러 (4) 일본 2만 6천550억 달러 (5) 프랑스 2만 5천290억 달러 (6) 캐나다 1만 6천110억 달러 (7) 이탈리아, 스웨덴 1만 3천5백억 달러 (8) 중국 1만 2천240억 달러 (9) 네덜란드 1만 420억 달러 (10) 한국, 노르웨이 8천660억 달러 (11) 스페인 8

천580억 달러 (12) 벨기에 6천610억 달러 (13) 스위스 6천560억 달러 (14) 스웨덴 5천450억 달러 (15) 홍콩 4천730억 달러 (16) 오스트레일리아 4천 720억 달러 (17) 싱가포르 4천610억 달러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한국은 8천660억 달러로 노르웨이와 함께 공동 10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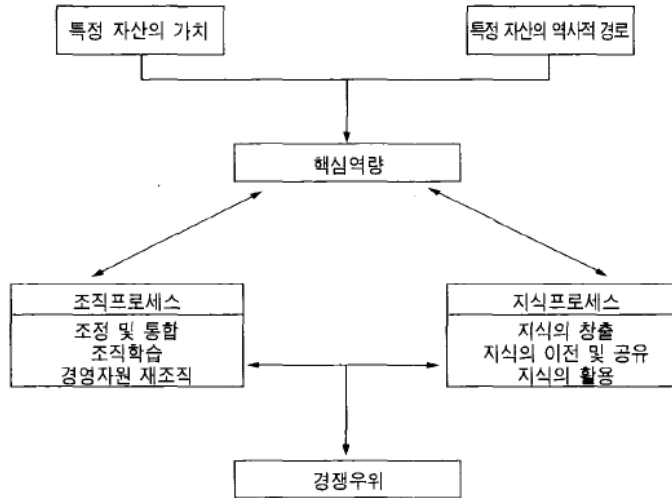
이러한 브랜드파워는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반응으로 광고를 통해 올릴 수도 있지만 문화적 접촉을 통해 친근감을 통해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한류의 열풍과 함께 한국어의 국제화는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주고 브랜드파워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과 함께 콘텐츠 개발에 한류를 담는다면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한류가 전파됨으로써 한국이라는 국가의 브랜드 파워를 향상시키는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국가 간의 문화적 교류와 함께 경제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세종학당의 설립은 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실질경제성장 10% 전후의 높은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베이징 올림픽으로 향후 10년간 지속될 것이며 따라서 한국어의 보급과 한류문화의 전파는 한중교역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여기에 높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이들의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여 소비층이 확산되면 고품질의 한국제품에 대한 수요는 가속화될 것이다.

이처럼 진행될 세종학당 설립에 따른 한국의 브랜드 가치 증대가 얼마나 될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W.K.Hutchison(2002)은 영어를 제 2언어로 사용하는 인구가 10% 증가할 때 수출이 1.7%, 수입이 2.3%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수입에 대한 효과가 더 높은 것은 그만큼 외국에서 수출증대를 위해 미국(한글의 경우 한국)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이러한 수출증대 효과를 브랜드가치 상승으로 치환해서 생각해보면 중국과 동아시아에서 한국어 사용인구가 1% 증가하면 현재 한국의 브랜드가치 8천660억 달러가 0.17%, 14억 7천220만 달러 증가하여 8천674억 7천220달러로 될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세종학당 설립으로 한국의 브랜드가치가 1조 3천250억원의 국가 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킨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3.2.3. 국내 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의 생산성 증대 효과

[그림 3-3] 지식경영프로세스



일반적인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 사례를 고려할 때 국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그 출신국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비율이 높다. 반면 언어소통능력 부족으로 인해 유입국에서는 단순노동 종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 취업기업에서의 생산성 향상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특히 오늘날의 경제는 지식기반경제, 가치경영의 시대로 접어들어서 종업원 간의 정보와 지식의 유통 및 보급이 생산성 증대에 긴요하다. 국내 취업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사용능력 확대는 그들을 고용하는 국내기업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A.Gonzalez(2000) 등에 따르면 미국에서 남미계 이주민들은 영어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득이 17% 높아진다. 종사직종도 영어구사능력이 취약할 때는 서비스직, 생산직이 대부분이지만 영어사용능력이 향상되면서 전문직과 사무직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영어사용능력 가운데에도 회화능력은 체제기간에 따라 상승해가지만 문자해독(읽기) 능력은 교육과 학습에 의해 상승해간다(Chiswick 1991). 이에 관한 유사 연구로 G.J.Borjas(1994), G.Carliner(1995), E.Funkhouser(1996), J.E.Hayfron(1999), R.Rivera-Batiz(1990)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약 40만명 전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취업해 있다. 2000~01년에 30만명 전후의 숫자가 취업해 그 후 약 2년간에 걸쳐 급격히 증가하여 40만명 전후의 숫자를 2007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⁶⁾ 특히 2005년 8월 17일부터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국내취업을 원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소속 국가 정부나 기관을 통해 한국정부에 노동허가를 신청, 허가를 받은 뒤 최장 3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해서 국내 취업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적용받아서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도록 하고,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착취 가능성을 제거하였다.

그 고용허가제에 의해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의 국적별 분포를 보면 고용허가제-일반은 2007년 5월말 현재 우리나라와 송출국가 정부 간 양해각서(MOU)⁷⁾가 체결된 국가가 10개국에 이르지만 인력이 수입되고 있는 국가는 6개국이다. 국적별로 보면 일반고용허가제의 경우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순이어서 대체로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특례고용허가제의 경우 8만 9천2명, 99.8%가 한국계 중국인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6) 후진국의 해외 근로자 용역수출에 관한 상세한 분석은 김재훈(1998a)을 참고하라.

7) 2007년 9월 현재 MOU(인력송출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는 모두 13개국이다. 2005년 인도네시아, 몽골, 스리랑카, 필리핀, 태국, 베트남 6개국과 MOU를 체결하였고, 2006년에는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이 추가되었다. 노동부는 2007년 2월 제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방글라데시, 미얀마, 네팔, 키르키즈, 동티모르 5개국을 송출국가로 선정하고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키즈와 MOU를 체결하였다. 양해각서는 송출과정의 투명성, 이탈률 및 사업주선호도 등 평가를 거쳐 매2년마다 갱신여부를 결정한다.

<표 3-24> 외국인력 체류현황 추이(2000.12~2007.4)

(단위: 명, %)

연도	총계	취업사증				연수사증			불법체류자
		소계	전문취업 등 ¹⁾	연수취업 (E-8)	비전문취업 (E-9)	소계	해투연수생	산업연수생 ²⁾	
00. 12	285,506	19,063	17,000	2,063	-	77,448	18,504	58,944	188,995
	(100.0)	(6.7)	(6.0)	(0.7)		(27.1)	(6.5)	(20.6)	(66.2)
01. 12	329,555	27,614	19,549	8,065	-	46,735	13,505	33,230	255,206
	(100.0)	(8.4)	(5.9)	(2.4)		(14.2)	(4.1)	(10.1)	(77.4)
02. 12	362,597	33,697	21,506	12,191	-	39,661	14,035	25,626	289,239
	(100.0)	(9.3)	(5.9)	(3.4)		(10.9)	(3.9)	(7.1)	(79.8)
03. 12	388,816	200,039	20,089	20,244	159,706	50,721	11,826	38,895	138,056
	(100.0)	(51.4)	(5.2)	(5.2)	(41.1)	(13.0)	(3.0)	(10.0)	(35.5)
04. 8	423,858	209,382	19,554	43,270	147,478	33,528	9,445	24,083	180,948
	(100.0)	(49.4)	(4.6)	(10.2)	(34.8)	(7.9)	(2.2)	(5.7)	(42.7)
04. 12	421,641	195,664	20,306	48,937	126,421	36,555	8,430	28,125	188,483
	(100.0)	(46.4)	(4.8)	(11.6)	(30.0)	(8.7)	(2.0)	(6.7)	(44.7)
05. 12	345,579	126,497	23,489	50,703	52,305	38,290	6,142	32,148	180,792
	(100.0)	(36.6)	(6.8)	(14.7)	(15.1)	(11.1)	(1.8)	(9.3)	(52.3)
06. 12	425,107	194,195	27,556	51,517	115,122	44,108	5,831	38,187	186,894
	(100.0)	(45.7)	(6.5)	(12.1)	(27.1)	(10.4)	(1.4)	(9.0)	(44.0)
07. 4	410,181	180,684	29,138	50,742	100,804	38,140	5,337	32,803	191,357
	(100.0)	(44.0)	(7.1)	(12.4)	(24.6)	(9.3)	(1.3)	(8.0)	(46.7)

주: 1)취업사증에서 “전문취업 등”은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행행, 특정활동 및 내항선원임.

2)산업연수생은 중기협, 건설협, 수산협, 농축산업임.

자료: 노동부, 2007년 5월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통계

고용허가제에 의해 취업 중인 외국인력의 성별 분포를 보면 고용허가제-일반의 경우 남성 비율이 87.9%에 이르지만, 고용허가제-특례자는 남성의 비율이 62.4%로서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다. 고용허가제-특례자의 경우 여성비율이 높은 것은 외국국적 동포에게 서비스업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취업관리제가 고용허가제로 통합된 것으로 서비스업종의 여성인력 수요 때문이다. 혼인상태를 보면 외국인 일반은 65.8%가 미혼이지만 특례자는 94.3%가 기혼자이다.

<표 3-25> 국적별 외국인의 평균연령 및 평균 체류기간

(단위: 개월)

국적		평균연령		체류자의 평균체류기간		출국자의 평균체류기간	
		체류기간	사업체수	체류기간	사업체수	체류기간	사업체수
일반	스리랑카	27.3	5,919	16.9	5,836	14.5	83
	인도네시아	28.7	6,849	18.7	6,732	19.6	117
	몽골	27.9	10,712	16.1	10,508	12.7	204
	필리핀	30.3	16,705	15.2	16,434	12.0	271
	태국	30.1	14,530	16.0	14,255	12.6	275
	베트남	23.8	18,321	15.4	18,264	15.7	57
	소계	27.9	73,036	16.0	72,029	13.6	1,007
특례	한국계중국	45.0	89,002	21.0	88,056	27.6	946
	한국계러시아	44.9	24	24.7	24	-	-
	기타	43.7	130	19.7	129	5.5	1
	소계	45.0	89,156	21.0	88,209	27.6	94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허가제 원자료(2007년 5월 30일 현재).

<표 3-25>는 국적별 평균연령과 E-9사증 취득자들의 입국시점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 한국에서의 평균체류기간을 살펴본 것이다. 2007년 5월말 현재 체류자들의 평균체류기간을 보면 일반외국인은 16.0개월, 특례자는 21.0개월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였다가 2007년 5월말 이전에 출국한 출국자들의 체류기간을 확인해 본 결과 외국인 일반은 13.6개월, 특례자는 27.6개월로 집계되었다. 이렇게 볼 때 원천적으로 고용허가제가 국내 고용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평균 체류기간이 2년 전후 임을 고려할 때 한국어를 충분히 사용할 만큼의 기간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외국으로부터의 노동력 유입과 그들의 언어소통능력, 그리고 소득수준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B.R.Chiswick & P.W.Miller,1995 등)에 따르면 장래 체류 예상기간이 유입국에서의 언어소통능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한국사회는 아직 외국인의 장기 체류를 허용하지 않고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에서는 명시적으로 외국인의 최대 3년간 한국 내 고용을 허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학습해야 하는 동기부여가 그다지 크지 않을 수밖에 없다.

<표 3-26>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고려사항 (복수응답)

(단위: 개소, %)

		사업 체수	신체 조건	연령	출신 국가	한국어 능력	성	요구임 급수준	직업 경력	학력	기타	기술 자격증
전체		300	61.7	54.3	51.3	40.0	29.7	27.3	18.3	5.0	4.0	2.3
업종	경공업	68	60.3	51.5	57.4	35.3	41.2	29.4	11.8	2.9	1.5	1.5
	중공업	132	62.1	56.8	68.2	30.3	25.8	26.5	15.2	8.3	2.3	0.8
	건설업	50	72.0	60.0	18.0	52.0	24.0	22.0	24.0	0.0	4.0	10.0
	음식업	50	52.0	46.0	32.0	60.0	30.0	32.0	30.0	4.0	12.0	0.0
규모	1~9인	119	59.7	52.1	50.4	43.7	29.4	27.7	21.8	2.5	3.4	0.8
	10~29인	137	60.6	54.7	53.3	36.5	32.1	26.3	17.5	7.3	2.9	3.6
	30인이상	44	70.5	59.1	47.7	40.9	22.7	29.5	11.4	4.5	9.1	2.3

자료: 사업체 실태조사 결과, 유길상(2007; 41) 재인용

게다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의 입장을 보면 채용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61.7%)이 신체조건이어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연령(54.3%), 출신국가(51.3%), 한국어능력(40.0%)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신체조건과 연령을, 제조업은 출신국가를, 건설업과 음식업은 한국어 능력을 중시하고 있다.

반면 근로자의 인적자본의 질을 나타내는 학력, 직업경력, 기술자격증 등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외국인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대부분(88%)이 교육훈련을 필요로 하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단순반복적 업무인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표 3-27> 외국인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업무의 수준

(단위: 개소, %)

	전체	경공업	중공업	건설업	음식업
사업체수	300	68	132	50	50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는 기술적 업무	0.7	0.0	0.8	2.0	0.0
실업고 또는 직업훈련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받아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적 업무	11.3	7.4	15.2	14.0	4.0
교육훈련을 필요로 하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단순 반복적 업무	88.0	92.6	84.0	84.0	96.0

자료: 사업체 실태조사 결과, 유길상(2007; 42) 재인용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의 성격을 <표 3-28>에서 보면 일정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12.0%에 불과하고, 교육훈련을 필요로 하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단순 반복적 업무가 88%인 것으로 나타났다.⁸⁾

이처럼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사업체가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외국인근로자의 학력, 경력 등 인적자본적인 속성보다는 신체조건, 연령, 출신국가, 성 등의 요소를 더 많이 고려하고 있으며, 우수한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있는 숙련인력을 선호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외국인근로자가 맡고 있는 업무가 너무 단순 반복적이기 때문에 인적자본을 어느 정도 축적하고 있는 숙련된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장들이 대체로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장이고 고용 이유가 주로 육체적 노동의 요소가 비중이 높은 단순노동이라 하더라도 언어소통의 어려움은 직무수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실제 <표 3-28>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외국 인력의 직무수행에 관한 요인별 영향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요인으로서 언어문제가 66.1%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3-28> 외국인력의 직무수행에 관한 요인별 영향 실태

(단위: 개,%)

구분		빈도	(비율)
외국 인력의 직무수행 장애요인	언어문제	546	(66.10)
	기능문제	78	(9.44)
	문화적 차이 문제	198	(23.97)
	기타	4	(0.48)
외국 인력의 숙련형성 영향요인	출신국가	57	(6.75)
	본국에서의 직업경험	191	(22.63)
	학력	27	(3.20)
	언어능력	419	(49.64)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조사」 2003

8) 이러한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의 성격으로 인해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학력수준은 고졸 55%, “학력은 무관하다”는 응답이 24.7%, 중졸 16%이고,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희망하는 경우는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송출국에서의 직장경력이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선호하는 사업체도 29%에 불과하여 현재의 직장경력자 고용비율 47%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외국인 고용허가제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을 의무적으로 부과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주요 대상국가에서 한국어 학습이 크게 늘어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0회째로 실시한 2006년도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는 전 세계 28개국 73개 지역에서 약 3만 1천여명이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길림신문, 2006.10.10).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한국어 유형·무형의 한국어 학습 활동을 가지기 때문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1차 대상 국가인 필리핀,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에서 이미 한국어 교육 기관 개설이 늘고 있고 2차 대상 지역인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에서도 이와 관련한 한국어 교육 기관 설립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최근 국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한국입국 전에 송출기관으로부터 사전교육을 받았는지를 보면 일반 외국인근로자는 대부분이 사전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교육내용을 한국어, 한국문화, 노동관련 제도 및 법, 산업안전 분야로 구분해보면 한국어교육을 가장 많이 받았다.

<표 3-29> 취업교육 내용별 수강비율

(단위: 명, %)

	응답자수		한국어		한국문화		노동관련제도/법		산업안전	
	'07	'05	'07	'05	'07	'05	'07	'05	'07	'05
전체	205	406	83.5	95.2	71.4	89.1	67.0	86.1	63.6	88.0
중국 조선족	12	0	25.0	-	58.3	-	66.7	-	50.0	-
몽골	29	64	96.6	93.7	65.5	68.3	48.3	71.4	41.4	66.7
태국	48	81	95.8	97.5	77.1	92.6	77.1	86.4	81.3	88.9
필리핀	67	75	92.5	83.8	73.1	97.3	58.2	95.9	67.2	95.9
베트남	36	118	58.3	98.3	66.7	92.4	80.6	93.2	52.8	90.7
인도네시아	13	68	92.3	100.0	76.9	92.1	84.6	88.9	76.9	96.8

자료: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결과(2007년 5월 30일, 2005년 6월 25일)

게다가 외국인근로자 중 29.3%는 송출기관이 실시하는 사전교육 외에 별도로 한국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베트남과 태국, 인도네시아 출신이 별도로 한국어 교육을 받은 비율이 높다. 한국어 학습방법은 주로 사설학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0> 외국인근로자 스스로 평가한 한국어 및 영어능력 수준

(단위: %, 명)

		한국어 능력			영어 능력				전체인원
		상	중	하	상	중	하	무응답	
일반 고용허가	2007.6	1.3	76.0	22.7	0.6	37.4	15.7	46.3	73,036
	2005.12	2.4	77.3	20.3	0.8	40.9	17.5	40.9	9,061
특례 고용허가	2007.6	40.0	56.8	3.2	0.1	0.7	99.2	-	89,156
	2005.12	45.3	50.1	4.5	0.2	0.6	99.0	0.2	3,918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허가제 원자료(2007년 5월 30일, 2005년 6월 25일 현재).

그러나 외국인근로자 스스로 평가한 한국어능력 정도를 보면 고용허가제-일반의 경우 한국어 능력이 상급 수준이라고 응답한 자는 1.3%에 불과하고 중급이라고 응답한 자가 76.0%에 이른다. 특례자는 국적동포인 관계로 한국어 수준이 상급이라고 응답한 자가 40.0%, 중급자가 56.8%로 중급 이상이 96.8%에 이르고 있다.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국내 사용자에게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업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적응을 위해 취업 교육 시 가장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조사한 설문문에 대해 고용허가제-제조업에서 한국어 교육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56.0%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한국어 능력강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국내 사업주가 평가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생산성 및 노동비용을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내국인근로자와 비교해보기로 하자. <표 3-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시간은 내국인 근로자보다 다소 높은 101.5%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업무량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내국인의 94.7%, 생산성은 89.0%, 임금수준은 86.7% 수준이고,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감안한 총 노동비용은 내국인 근로자의 90.1%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즉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수준은 내국인의 86.7%이지만 이는 생산성과 총 노동비용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시장임금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31> 내국인근로자 대비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 임금, 노동비용

(단위: 개소, %)

		사업체수	근로시간	업무량	생산성	임금수준	총 노동비용
전 체		300	101.5	94.7	89.0	86.7	90.1
업종	경공업	68	101.6	92.7	86.1	82.6	87.3
	중공업	132	102.1	93.4	87.4	84.5	88.4
	건설업	50	102.2	98.4	91.5	88.7	92.3
	음식업	50	99.2	97.4	94.8	96.2	96.5
규모	1~9인	119	100.2	95.0	91.1	87.5	90.8
	10~29인	137	102.4	93.7	88.1	85.8	89.8
	30인 이상	44	102.3	97.1	86.5	87.7	89.6

자료: 사업체 실태조사 결과, 유길상(2007; 48) 재인용

특히 건설업과 음식업의 경우에는 생산성이 내국인 근로자에 대해 각각 91.5%, 94.8% 수준이어서 임금수준이 각각 88.7%와 96.2%에 이르고 있다. 이 두 부문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체로 중국 조선족 출신임을 생각하면 결국 한국어 소통능력이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조사결과에 따르면 1995년의 경우 한국에서 식당종업원의 임금은 한국인이 월 1백만원, 조선족은 60만원으로 40% 차이가 났지만 매년 격차가 줄어 최근에는 모두 월 13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인은 이미 작년부터 조선족은 한국인과 꼭 같이 130만원을 받고 있으며 가사도우미(가정부)는 150만원인 한국인과 격차가 10만원밖에 안되는 140만원으로서 임금 격차는 1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9)

조선족이 30%를 차지하는 건설일용직종의 경우에도 조선족의 봉급이 한국인의 절반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잡부와 목수 모두 일당이 1만~2만원 차이로 줄어들었다. 일부 조선족은 잡부(일당 5만 8천원)에서 출발했지만 기능을 익혀 임금이 높은 목수(일당 9만6천원)직에 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길림신문, 2007.8.9).

이렇게 볼 때 국내 취업중인 외국인 근로자들 중 중국 조선족을 제외

9) 2006년 8월 말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조선족은 22만1천여 명이고 불법체류자(약 3만2천명)를 포함하면 25만 여명, 이들의 남녀비례는 1대 1 정도이며, 이중 44.7%가 음식점업 취업희망자로서 10만명 이상의 조선족이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한국의 거의 모든 음식점에서 조선족들이 일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 숫자를 20만명으로 간주하고 그들이 한국어 소통능력이 중-상 수준으로 향상되면 생산성이 지금보다 10-20% 상승하여 내국인 근로자에 가깝게 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그들의 임금수준이 음식업의 식당 종업원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월 130만원 수준으로 즉, 15%인 월 19만 5천원, 연간 234만원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20만명에 대해 계산해보면 4천680억원의 임금소득 증대와 그만큼의 생산성 증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 추산할 수 있다.

3.2.4. 국내 영어교육 비용 감소 효과

현재 한국은 급격하게 진행된 세계화의 물결 속에 대외지향적 경제구조가 정착됨에 따라 전 국민이 글로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영어교육에 쏟아붓고 있다. 영어사용능력은 곧 그 사람의 사회경제적 성취와 직결되고 영어사용의 양극화는 곧 사회양극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는 발달한 선진학문 습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영어사용능력을 키우기 위해 조기유학이 일반화되고, 이 와중에 소위 '기러기아빠'가 양산되어 심한 경우에는 가족의 해체현상까지 확산되고 있다.

영어 사용은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 성공을 위한 명에로까지 된 실정이며, 이에 따른 국제수지 상의 해외여행수지 적자의 주요인으로 작용해서 국가적으로 외화유출이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눈을 돌려보면 앞에서 계속 살펴본 바와 같이 국외에서는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국외 현지에서 한국어가 보급되어 한국기업의 국외 사업장에서 적어도 현지인 중견간부들이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될 경우 한국 최고관리자들이 현지어 습득은 불가피하겠지만 영어 사용에 따른 부담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외 한국어 보급이 우선 국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따른 교육수지 적자를 보완해줄 것이고, 국내에서 영어 교육을 위해 전 국가적으로 투자되는 비용의 일부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해 경제적인 추산을 해보기로 한다.

우선 유학생 교류의 실태를 보면 2006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3만 2천557명으로 이는 2000년 6천160명, 2003년 1만 2천314명에 비해 급속히

늘고 있다. 출신지역별로 보면 아시아지역 유학생이 2만 9천227명으로 전체의 89.9%에 달한다(국정브리핑, 2007.5.1).

하지만 국내학생들의 국외유학 혹은 연수로 나가는 인원의 숫자와 그에 따른 비용 지출은 국내 유학 혹은 연수 관련 상황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예컨대 재미 한인 유학생 숫자만 보더라도 2006년 11월 현재 8만 7천 724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14.3%를 차지해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에 유학 가 있는 한국학생의 숫자(6개월 이상 장기 유학)는 2006년 6월 현재 중국 전역 268개 대학에 3만 150여 명이다(한국대학신문, 2006.6.9).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외에서 유학 혹은 연수와 관련해서 지출한 돈은 2006년 1~7월간만 보더라도 모두 24억 3천만 달러(2조 3천3백억원)인데 비해 같은 기간에 외국인 학생들이 지출한 돈은 그 0.4%에 불과한 1천50만 달러에 그쳐서 교육수지 적자가 24억 1천95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한국은행 자료).

2005년 현재 국외에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된 대학은 47개국 643곳이며, 한국학교·한국교육원·한글학교 수는 96개국 2천1백여 곳에 이른다. 사용자 순위로 볼 때 한국어는 프랑스어보다 한 단계 앞선 세계 12위. 재외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약 50만명에 이른다(한겨레신문, 2006.10.26).

<표 3-32> 세종학당 설립에 따른 유학생의 변화 전망

	한국어 강좌가 개설된 대학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	유학생
2005년	643	2,100	약 50만명	3만 2,500명
2012년	1,000	3,000	약 80만명	5만명
차이	357	900	약 30만명	1만 7,500명

<표 3-33> 세종학당 설립에 따른 교육수지 적자 변화 전망

	유학생	수입	지출	수지
2005년	3만 2,500명	1,050만 달러 (100억 67백만원)	24억 3천만 달러 (2조 3300억원)	24억 1,950만 달러 (2조 3,199억원)
2012년	5만명	200억원	2조 3,300억원	2조 3,100억원
차이	1만 7,500명			99억원

세종학당의 계획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950개의 학당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파급효과로서 한국어 강좌와 한글학교 수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약 50만명의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의 수는 대폭 늘어나 약 80만명까지 추산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 수의 증가는 국내로의 유학생의 수를 연쇄적으로 늘리게 된다.

또한 현재 각 대학들은 유학생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등록금 할인, 복수학위제, 글로벌 기숙사 운영, 해외 자매결연대학에 한국어교육원 설립, 그리고 나아가 특정 학문분야(국제경제통상, 중국학)에 대한 대학 혹은 대학원 해외(특히 중국) 현지 설립 등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5만명 유치를 목표로 2005년부터 'Study Korea Project'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종학당의 설립이 교육수지 적자의 상당한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추정결과 세종학당의 2차 계획에 따라 2012년에는 950개교가 모두 설립되면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보급이 이루어지고 이에 한국문화와 산업 및 경제 그리고 과학기술에 관심이 높아져 유학생 수가 점차 늘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2012년에는 유학생이 5만명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교육수지가 2005년에 2조 3천199억이 적자이지만 2012년에는 2조 3천1백억원으로 99억원의 경상수지 완화효과가 있을 것이다.

한편 국외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이 증가해서 한국인 투자자들이 국외 사업장에서 현지어 사용은 불가피하겠지만 최소한 영어 사용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을 경우 국내에서 막대하게 지출되고 있는 영어교육

비용의 일부를 줄이는 효과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살펴보자. 영어사용능력에 대한 부담감은 조기유학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단순화를 위해 해외어학 연수비와 국내에서 최근 조성되고 있는 영어마을, 그리고 국외 세종학당 설립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국내 설립되고 있는 영어마을은 그 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조성 후 운영의 성공 여부를 단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조성 후 운영이 순조롭지 못하여 수요가 줄어들면 운영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비 또는 그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을 많이 채택한다.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연간 운영비는 이용과 운영에 관한 전망에 따라 지원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경기도 영어마을의 경우 이용인원 연간 2백명 기준 5박 6일 프로그램의 연간 상시(50주) 운영비가 약 39억원, K대학의 경우 약 36억 9천9백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표 3-34> 지역형 영어마을 예와 세종학당의 연간 운영비 비교

영어마을 운영비 항목	소요액	영어마을 운영비 항목	소요액
인건비	9억원	제세공과금	1억 5천만원
식비	4억원	시설관리비	2억원
교재구입비	2억 5천만원	광고홍보비	5천만원
소모품비	2,400만원	기념품제작비	3백만원
용역임대료	2천만원	버스임대료	1,800만원
차량구입 및 유지관리비	1천만원	예비비	3천만원
1개 영어마을 연간 운영비(100명 기준): 총 50주 합계 20억 5,500만원			
(200명 기준): 총 50주 합계 36억 9,900만원			
세종학당 연간 설립 및 운영비(200명 기준) 지원: 연간 9,444만원			

자료: 신미정(2005; 80)

이 약 37억원의 운영비에 대해 그 중 75%를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부담할 경우 지원금은 27억 7천5백만원이 되고 50%를 지원할 경우 지원금은 18억 5천만원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물론 입소자 개인의 부담금이 주당 9만 2천5백원 또는 18만 5천원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연간 운영비 37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영어마을은 최소 250억원에서 최대 3백억원 정도의 해외연수를 통한 외화유출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신미정,2005; 72-75). 그러나 입소자 부담금도 결국 국내에서 지출되는 비

용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이 아닌 국가경제적 비용으로 보면 37억원이 되는 것이다(물론 여기에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시설 조성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를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에 따른 비용지출과 비교해보면 어떻게 될까?

세종학당의 경우 그 설립 및 운영비, 전문교원 양성 및 파견비용, 교재 및 교육콘텐츠 개발과 제작, 온라인 한국어교육체계 구축 등 제반 소요비용이 1차와 2차 계획에 따라 모두 944억 3천8백만원이라고 추정되었다. 이는 연평균 94억 4천380만원이며, 각 학당별로 10년간 9억 4천438만원이 소요된다고 보았으니 연간 학당 별로 9천444만원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세종학당 연간 운영비 9천444만원은 영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인 해외연수 비용 3백여 억원, 영어마을 운영비 37억원 등과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내외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1명과 국내 영어 학습자 1명에 대해 지불되는 비용의 차이는 3백여 억원 혹은 36억여 원의 차이가 있고 그만큼의 외화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3.2.5. 국외동포 한글 습득에 따른 효과

세종학당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효과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어의 세계 보급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로서 국외동포들의 한글 습득에 따른 효과가 있다. 즉 현재 한국의 경우 국외 한국어 보급을 담당하고 있는 외교통상부, 문화공보부,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의 각 기관들이 국외 동포들, 특히 그 2~3세 또는 그 3~4세로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잊지 않고 따라서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단순한 민족적 의의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에 그만큼의 경제적 효과를 갖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우리는 우선 이를 세계적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가장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화교들의 세계적 네트워크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에서 쉽게 엿볼 수 있다.

2000년 현재 전 세계에 유통 중인 화교자본은 약 3천억 달러로 추정된다. 화교들이 보유한 주식 총액은 1999년 5천668억 달러, 2000년 6천163억 달러, 2001년 4천56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sia Week). 화교들의 대 중국투자는 1990-2000년간 7백-1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

다.¹⁰⁾ 그래서 2000년 말까지 중국의 외자기업 2만 8천여 개 중 중국 화교의 투자 기업이 1만 6천5백여 개로서 총투자기업의 약 60%를 차지했었다.¹¹⁾ 중국의 개혁개방의 총 설계사 등소평이 13억 대국의 개혁개방에서 먼저 중국의 심천, 주해, 하문, 상해 등 남부 연안 도시를 경제특구로 만들고 1차로 문을 연 것도 이들 화교들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¹²⁾

우리나라도 많은 재외동포들이 전세계적으로 분포, 거주하고 있다. 해외 151개국에 570만명의 한인들이 분포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10만명 이상의 한인들이 살고 있는 5개국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국가에 살고 있는 한인의 수는 전체 국외 한인의 93%에 해당하는 530만명이다.

이들의 생활수준은 각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우리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잠재적 소비자가 될 수 있으며, 축적된 자본을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잠재적 투자가라고 볼 수 있다. 현재는 한국경제에 국외 한인들의 투자가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단계는 지났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역시 이들은 잠재적 소비자의 역할을 꾸준히 하고 있다. 재외 한인의 숫자가 두 배로 늘어나면 한국의 수출은 16%, 수입은 14% 가량 늘어난다는 추계가 있다.¹³⁾

예컨대 2003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2차 세계 한상대회에서 수출 2천 28만 2천5백달러, 수입 2천034만 2천달러, 재외동포의 국내 투자 2천222만 달러, 국내기업의 외국(중국, 우즈베키스탄) 투자 150만 달러가 이루어졌다.(공공자치 연구원, 한상네트워크를 통한 교역증진효과, 2004년) 이는 아직도 재외 한인들이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재외동포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기존의 숫자를 전제로 하더라도 그들이 3세, 4세로 내려가더라도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고 따라서 모국과의 유대감을 유지할 수

10) 정영록, 화교비즈니스 네트워크가 한국경제에 주는 함의, 재외동포재단·국제경제연구소 공동 주최, IIE국제학술세미나 발표문, 2002년 8월

11) '조선족디아스포라는 유대인보다 먼저 중국의 화교들께서 배우자'(홍룡강신문, 2007.1.6)

12) 해외 화교네트워크의 구조에 관한 상세한 분석은 김재훈(1998b), 중국경제의 개혁 개방과정에서 그 화교네트워크가 끼친 기여에 관해서는 김재훈(1999)를 참조하라.

13) 최인범, 한민족 동포경제 현황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재외동포재단·국제경제연구소 공동 주최, IIE국제학술세미나 발표문, 2002년 8월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게 하는 최선의 방안이 바로 그들 재외 동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문화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재외동포라 할지라도 그들이 한국어를 잊고 한국문화를 잊은 채 현지언어를 사용하고 현지사회에 동화되어 가버리면 그들에게서는 이미 한국인으로서의 유대감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다.

“7백만명의 국외동포는 우리나라의 훌륭한 자산이지만 이들에게 무관심하거나 방치할 땐 이방인에 불과합니다.”(박희양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상임이사; 세계일보, 2006.6.1)

이렇게 재외 한인들이 한글을 습득하는 것은 잠재적 세계 한인경제네트워크가 실제로 가동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경제적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주고, 한류를 현지에서 확산케 하는 거점의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부가 재외동포가 많은 곳에 학교를 세우는 등 이들의 민족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편협한 민족주의가 아닌 생활터전으로 삼는 국가에서 당당히 뿌리내리고 세계시민으로 거듭 성장하도록 돕는 게 국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박희양 상임이사).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국외 이민자들의 자녀가 중고교 정규과목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면, 그 기대 효과는 크다. 부모의 언어를 배움으로써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정체성을 기를 수 있고, 한국과 연계된 진로를 모색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어를 제2외국어 정규 교과목에 넣기 위해서는 교민사회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관건이다.

<표 3-35> 재외동포현황(2005년 현재)

권역	선진국 지역		후진국지역		전체	
	재외동포(명)	비율(%)	재외동포(명)	비율(%)	숫자	구성비
아시아	472,666	12	3,340,679	88	3,813,345	57.4
오세아니아	1,551	1	115,816	99	117,367	1.8
북미	0	0	2,285,666	100	2,285,666	34.4
중남미	107,162	100	0	0	107,162	1.6
유럽	0	0	299,974	100	299,974	4.5
중동	4,770	100	0	0	4,770	0.1
아프리카	10,054	100	0	0	10,054	0.2
계	596,203	9	6,042,135	91	6,638,338	100.0

자료: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의 분포를 크게 나누면 한국과 같은 수준 이상의 선진국 지역과 그렇지 못한 후진국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005년 기준으로 재외동포는 약 664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후진국 지역의 교포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교포의 약 9%에 해당한다. 선진국 지역의 재외동포들은 그 소득 수준으로 볼 때 스스로 현지에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해가면서 한국어 교육도 습득해간다고 볼 수 있어서 한국정부의 정책 시행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한국어보다는 한국 문화의 전파가 상대적으로 더 필요할 수 있다.¹⁴⁾

예컨대 러시아에서 동포 4세인 엠넬리 교장이 1992년 설립한 모스크바 1086 민족학교는 7백여명 재학생 가운데 60%가 동포이고, 나머지는 러시아인, 한국인, 미국인 등이다. 이 학교에서는 러시아 교육 과정을 기본으로 하고, 한국어, 한국 역사, 문화, 풍습, 예절을 가르친다. 이 학교 입학 경쟁률은 13 대 1이 넘을 정도인데, 그 이유는 한국 대기업들이 러시아에 활발하게 진출하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러시아 학생들이 많고, 대학진학률도 모스크바 학교 가운데 으뜸인데다 인성교육을 강조해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

14)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선진국 지역의 한국어학교들이 모두 쾌적한 여건 아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유럽 지역에는 독일·영국·프랑스 등 총 22개국에 96개의 한글학교가 설립돼 있고, 한글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 수는 대략 4천2백명, 교사는 644명 선이다. 한글학교는 수업료로 학생 당 15-50 유로(약 1만8천-6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대부분 건물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서울경제신문, 2006.8.9).

는 학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한겨레신문,2007.11.5).

반면 후진국 지역은 현지 동포들이 한국어 교육을 위한 시간과 경제력 투입 역량이 상대적으로 뒤처진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한국정부의 정책 시행의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재외동포를 위해서나 한국 취업을 원하는 현지인들을 위해서나 한국어 보급을 위한 한국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이는 일본정부의 해외 일본어 보급정책에서도 나타난다; 앞의 일본 사례 참조). 이처럼 이들 후진지역¹⁵⁾은 출국자의 30%, 입국자의 24%, 그리고 교포의 9%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것은 후진지역과의 인적교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정갑영 외,2006; 13).

이와 유사하게 심각한 위기감이 느껴지는 곳이 중국이다. 중국사회가 개혁 개방정책을 실시한 이후 중국 조선족도 그에 호응해서 많은 발전을 이룬 것도 사실이나 그 부작용으로서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조선족으로서의 전통문화와 전통언어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체계가 붕괴됨으로써 심각한 문제점을 낳고 있다. 과거 중국 조선족은 주로 동북 3성과 내몽골 농촌지역에서 집거지를 형성, 생활해왔으나 한국기업들의 중국 대량 진출과 함께 거주판도가 점차 경제발달지역인 연해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기존 동북 3성(2000년 기준으로 호적인구에 의한 조선족의 분포상황은 동북 3성인 길림성 114만 5688명, 흑룡강성 38만 8458명, 요녕성 24만 1052명) 이외에 남으로부터 북으로 심수, 광주를 중심으로 한 화남지역(6만명), 상해, 남경, 항주를 중심으로 한 화동지역(8만 5천명), 청도, 위해, 연태를 아우르는 산동지역(18만명), 북경, 천진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지역(17만명) 등이 상대적 5대 집거구를 형성하였으며 서부대개발의 진행으로 성도, 서안을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2만명)도 새로운 집거구의 형태를 갖추어가고 있다. 특히 청도, 북경, 상해, 천진, 심수, 위해, 연태, 광주 등의 연해 진출 인구가 50만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도시거주 조선족 인구가 총 9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따라 북경, 청도, 심양, 상해 등지에 코리아타운이 속출하고 있는데 심양 서탑, 북경 왕징지역, 상해 자등로지역, 청도 이촌지역 등은 코리아타운이

15) 지금까지 한국어 (문화)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지 않은 모든 지역을 총칭하여 비서구권이라 부르고, 동서유럽, 북미(미국, 캐나다),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같이 (문화)교류를 나름대로 활발하게 진행한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를 여기서는 이렇게 분류한 것이다.

비교적 성숙되어 가고 있다. 천진, 대련, 위해, 연태 등 기타지역에도 충분히 코리아상권이 형성되었다고 하긴 어렵지만 코리아타운의 형태를 갖추어가고 있다. 그 외에도 해외진출 조선족도 24만명 가량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국 13만명, 일본 5만명, 러시아 3만명, 미국 2만명, 유럽연합 및 기타 나라 및 지역에 1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길림신문 2005.12.31).

중국 조선족이 대도시로 진출한 후 문제가 되는 것은 민족 동화 현상이다. 아이들이 한족학교에 다니니 민족 언어나 문화를 잃어가게 되고 도시에 흩어져 살다보니 민족신문이나 잡지, 도서를 접하기가 어려워지고 텔레비전, 예술공연 등 문화생활도 민족적인 것과는 멀어져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이처럼 민족공동체의 연대성이 약화된 관계로 타민족과의 통혼비율이 증가되는 것 또한 커다란 우려거리다.¹⁶⁾ 그래서 90년대 중반이후 조선족사회에서는 개혁개방이후 나타난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위기설', '해체설'이 나오기 시작했다.¹⁷⁾ 그러나 이 커다란 추세를 저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조선족사회에 대두된 문제를 중국의 개방과 도시화과정에서 불가피한 '진통'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적극적 대응책이 모색되고 있다.

조선어학교의 운영이 대표적인 예이다. 처음에는 주말학교 형태로 운영하다가 요즘에는 한족학교에 조선어문 과목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기숙사까지 있어 상당히 많은 조선족 아이들에게 조선어문을 가르치고 있다. 조선족운동회나 조선족예술단의 초청공연 등도 전부 있어온 것들 외에 각 조선문 신문사의 지국 창설이나 잡지들의 발행도 공동체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모임이나 협회를 설립, 활성화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 일 등도 강조되고 있다. 이렇듯이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도 기왕 불어닥친 도시화의 물결 속에 대도시에서의 민족공동체 재편성으로 눈길을 돌려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위 장춘식; 흑룡강신문, 2006.5.28).

여기에 최근 새롭게 사업을 위해 중국으로 몰려간 한국인들이 있다.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70만 명을 넘어서서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

16) 張春植(중국사회과학원 민족문학연구소 부연구원), '도시화시대 민족공동체의 재편성을 위하여'(흑룡강신문, 2006.5.28)

17) 정신철(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조선족사회 어디로 가야 하나?'(흑룡강신문, 2007.8.28)

는 외국인 중 한국인의 수가 가장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인들은 매년 6만~7만명씩 증가하여서 북경올림픽과 함께 1백만명을 넘어설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길림신문,2007.6.14).

이렇게 새롭게 모여는 한국인의 2세 교육도 문제이다. 예컨대 심양시의 소학교,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인 학생수가 1천여 명이 넘고 있다. 단일 학교 중 한국학생이 가장 많은 곳은 조선족1중으로 재학 중인 학생이 1백여명에 이르고, 서탑조선족 소학교에 50~60여명, 소가툰조선족소학교 20~30여 명, 조선족6중에 40여명, 조선족2중에 20여명이 다니고 있다. 그 외에 심양시 화신국제학교(소학교)에 60여명, 동북육재에 50~60여명, 녹도국제학교에 30여명, 외국어학교에 60여명이 재학 중이며 심양국제학교(영어수업)에도 약 50여명이 다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흑룡강신문, 2006.12.16).

이들에 대해 심양한글학교 권유현 교장은 한국인으로서 중국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국어뿐만 아니라 모국어를 완벽히 구사하고 쓸 줄 알아야 함을 강조한다(흑룡강신문, 2007.3.3). 민족정체성 보존을 위한 이러한 노력들 모두가 매우 중요한 작업이지만 이것들을 한 줄에 꿰는 일이 중요하다. 그것을 꿰는 네트워크가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이고 이는 결국 정부의 몫이다. 게다가 국외동포들의 한국어 능력 유지는 한민족네트워크를 계속 유지케 해서 모국과의 경제적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캐나다에서 이민 증가가 그 출신국과 캐나다 간의 무역 증대에 미치는 효과를 추계한 K.Head & J.Ries(1998)에 따르면 이주민들은 그 출신국의 사정을 잘 알아서 그 출신국과 캐나다 간 교역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해서 이민의 10% 증가는 캐나다 경제에 수출을 1.0-1.3%, 수입을 3.1-3.9%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특히 아시아계 이민의 경우는 그 출신국과의 유대관계가 깊어서 중국인을 비롯한 동아시아계 이민 10% 증가는 캐나다 경제에 수출을 2.9%, 수입 7.4% 증가시키는 효과를 낳는다고 평가된다.

이를 한국경제에 적용해서 거꾸로 생각하면 예컨대 한국계 국외동포가 한국어 능력을 계속 유지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지켜갈 경우 그 10%에 대해 한국경제에는 수출 7.4%, 수입 2.9%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국외동포 3-4세의 한국어 사용능력 유지는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다.

4. 세종학당 설립에 따른 사회적 효과

4.1.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 적응력 증대 효과

<표 4-1> 외국인과의 혼인 현황

(단위: 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 혼인건수	334,030	320,063	306,573	304,932	310,944	316,375	332,752
외국인과의 혼인	12,319	15,234	15,913	25,658	35,447	43,121	39,690
총혼인건수대비 구성비	3.7	4.8	5.2	8.4	11.4	13.6	11.9
증 감 륜	16.5	23.7	4.5	61.2	38.2	21.6	-8.0
한국남자+외국여자	7,304	10,006	11,017	19,214	25,594	31,180	30,208
증 감 륜	26.5	37.0	10.1	74.4	33.2	21.8	-3.1
한국여자+외국남자	5,015	5,228	4,896	6,444	9,853	11,941	9,482
증 감 륜	4.6	4.2	-6.4	31.6	52.9	21.2	-20.6

자료: 통계청

우리나라에서 외국인과의 혼인은 2006년 총 3만 9천690건, 총혼인건수 대비 11.9%로서 2004년 이후에는 1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해왔고, 2000년의 1만 2천319건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외국인과의 혼인 중에서도 한국 남자와 외국여자의 혼인이 더 많아서 매년 전체 외국인과의 혼인 가운데 6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혼인 총 3만 2백건을 외국 여자의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48.4%인 1만 4천6백건, 베트남이 33.5%인 1만 1백건, 일본이 4.9%인 1천5백이건 순으로 나타난다. 특히 베트남 여자와의 혼인은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74.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캄보디아도 전체 외국 여자와의 혼인의 1.3%에 불과하나 151.0%의 증가율을 보였다. 중국, 베트남 여성과의 혼인이 전체 외국인과의 혼인의 81.9%를 차지하고 있다.

<표 4-2>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별 혼인

(단위: 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률
	계	7,304	10,006	11,017	19,214	25,594	31,180		
중국	3,586	7,001	7,041	13,373	18,527	20,635	14,608	48.4	-29.2
베트남	95	134	476	1,403	2,462	5,822	10,131	33.5	74.0
일본	1,131	976	959	1,242	1,224	1,255	1,484	4.9	18.2
필리핀	1,358	510	850	944	964	997	1,157	3.8	16.0
몽골	77	118	195	318	504	561	594	2.0	5.9
캄보디아	*	*	*	19	72	157	394	1.3	151.0
미국	235	265	267	323	344	285	334	1.1	17.2
우즈베키스탄	43	66	183	329	247	333	314	1.0	-5.7
기타	779	936	1,046	1,263	1,250	1,135	1,192	3.9	5.0

주: * 기타에 포함

자료: 설동훈,한건수 외(2005; 4)

<표 4-3> 부부의 평균 혼인 연령차

(단위: 세)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남자+외국 여자	6.7	7.4	7.8	8.2	8.3	9.1	11.5
한국 여자+외국 남자	6.5	6.5	5.2	4.1	3.1	2.7	4.1
한국 남자+한국 여자	2.7	2.6	2.6	2.6	2.6	2.5	2.4

자료: 설동훈 한건수 외(2005; 56)

결혼 부부의 혼인 연령차를 보면 2006년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 간 혼인의 경우 평균 11.5세로 2000년의 6.7세보다 4.8세 높다. 이는 한국인 부부의 혼인 연령차인 2.4세보다 약 4.8배 높고, 외국 남자와 한국 여자 부부의 평균 혼인연령차인 4.1세보다도 2.8배 높은 것이다. 이 가운데 초혼 및 재혼별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와의 혼인 연령차를 보면 초혼 남자와 외국 여자 부부의 연령차는 11.1세로 2000년의 6.2세보다 4.9세 높으며, 재혼 남자와 외국 여자 부부의 연령차는 12.2세로 2000년의 8.8세보다 3.4세 높아졌다. 특히 재혼 남자와 외국 여자의 연령차(12.2세)가 초혼 남자와 외국 여자의 연령차(11.1세)보다 1.1세 높다.

그에 비해 외국 여자와 혼인한 한국 남자의 평균 혼인연령은 초혼 남자가 37.1세, 재혼 남자 47.0세로 전년보다 각각 0.5세 낮아졌으나 2000년에 초혼 남자 34.0세, 재혼 남자 45.0세였던 것보다는 각각 3.1세, 2.0세 높아진 것이다. 반면 초혼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평균 혼인연령은 26.0세로 2년 전인 2004년보다 3.2세 낮아져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연령을 보이고 있다.

<표 4-4> 농림어업 종사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별 현황

(단위: 건, %)

국적	2005					2006				
	계	베트남	중국	필리핀	기타	계	베트남	중국	필리핀	기타
건수	2,885	1,535	984	198	168	3,525	2,394	718	170	243
		53.2	34.1	6.9	5.8		67.9	20.4	4.8	6.9

자료: 통계청

외국인과 혼인한 한국 남자가 종사하는 업종별로 혼인실태를 살펴보면 특히 농림어업에 종사하며 2006년에 혼인한 한국 남자 8천596명 중에는 41.0%인 3천525명이 외국 여자와 혼인하였다.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은 베트남, 중국, 필리핀 순인데, 각각 67.9%, 20.4%, 4.8%를 차지하며, 전년에 비해 베트남은 56.0% 증가, 중국과 필리핀은 각각 -27.0%, -14.1% 감소한 것이다.

이렇게 국제결혼의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한국남자와 결혼한 외국 여자들이 연령 차이가 크고, 주로 중국과 베트남에서 많이 와서 비교적 삶의 조건이 열악한 상태에 있다고 일반화시켜도 무리가 없는 경우가 다수이다. 자녀를 낳고 한국에 살기 위해 온 이들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말을 사용하고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말과 글이 안 되면 가족생활도, 문화 적응도, 제대로 된 사회생활도 어렵다. 체계적인 언어교육이 필수적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사회는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못했다. '눈치'와 '손짓'으로 시작된 이들의 한국생활이 순탄키는 어려웠다. 일부는 아쉬운 대로 사전이나 알팍한 여행자용 소책자를 가지고 더듬더듬 한국말을 학습했다. 현재 삶의 조건을 보더라도 농촌의 가정에 고립 분산 상태에 처해 있어서 한글을 배우기 위해 교육 기관에 모이기도 쉽지 않은 실

정이다.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첫 조사에 따르면 인터뷰 대상자 19명 중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경험한 사람은 단 1명뿐이었다(왕한석 외,2005; 244). 언어구조가 한국어와 유사한 일본인을 제외하고는 체계적 교육 없이 한국어를 잘 하는 이주여성을 만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조사에 의하면 이주여성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수단은 주위 사람들과의 언어적 접촉을 제외하고는 소책자(여행사용)·사전·TV시청이 거의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 결혼이주 여성의 숫자가 8만명이 넘고 또 그들로부터 태어난 2세들이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20년 국제결혼 이민자 2세 167만 명(전체 인구의 20%)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주민 한국어 미숙으로 어려움 많은 현실이다. UN에서도 한국의 민족적 배타성에 대한 우려, 다문화사회에 대한 대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인과 결혼하여 필연적으로 한국어 사용 능력을 요구받는 이주 여성의 증가는 과거 이주 노동자의 증가 시 인식되었던 한국어 학습 동기(매우 선택적이고 제한적이었음)와는 사뭇 다르다. 한국어 학습 필요성이 크게 제기됨은 물론 한국 문화 학습의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다수가 정규적인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의 학습이 불가능한 형편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결국 일부 정부 산하기관의 사업 영역으로 편입되기도 하고 자원봉사자의 활동 영역으로 설정되기도 하였다. 이들에 의한 교육은 그 체계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정형화가 덜 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교육과는 달리 비정규 교육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 국내취업 외국인근로자도 한국어 미숙으로 인해 다양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외국인근로자들의 애로 요인을 보면 언어 및 문화적 이질감에 따른 어려움이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의사소통의 장애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정도를 5에서 0으로 나누어볼 때 병원, 은행, 약국, 가게, 대중교통, 우체국, 식당 등을 이용할 때 어려움이 많고, 그 외 일상생활에서 부탁할 때, 친구와 대화할 때, 모르는 곳 찾아갈 때, 전화할 때, 물건 구입할 때 등의 경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합법취업 외국인근로자들의 애로요인 현황(복수응답)

(단위: 명, %)

	응답자	구성비
언어 및 문화적 이질감	237	34.3
한국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	133	19.2
고물가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92	13.3
직장에서의 차별대우 및 육체적 폭력 사용	41	5.9
종교적 차이	41	5.9
본국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	131	19.0
기타	16	2.3
전체	691	100.0

자료: 유길상 이규용 외(2005; 91)

이렇게 볼 때 한국사회로 외국인이 진입하기 전에 국외 현지에서 한국어 습득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에 대한 국가적 노력을 기울일 경우 앞으로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이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2. 문화 교류 증대 효과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일본 내에서 두드러진 변화의 하나가 한국에 대한 이미지 변화와 한국어 학습자의 증가이다.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문화적으로 공유하는 바가 크며 국가 간의 교류도 활발한 일본에서 2002년 월드컵 이전까지는 한국어 학습자가 기대만큼 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이해의 폭도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것이 많은 이의 증언이다. 그러나 2002년 한일공동월드컵의 준비 및 진행 기간 TV 화면을 통해 비추어지는 한국 영상과 마침 붙어닥친 한류 열풍으로 일본 내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크게 일었다.

이는 곧 한국어 학습 열기로 이어져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광풍이 일본 내에 불어닥쳤다. NHK를 통해 방송되는 외국어 강좌 중 한국어 강좌인 ‘안녕하십니까?’의 방송 교재 판매 부수가 2005년에는 20만 부를 넘어서며 중국어 강좌를 앞지르고 2위를 차지했는가 하면 관공서, 시민단체, 사설학원에서의 한국어 강좌 수가 2천 곳을 훨씬 넘어 3천 곳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한 보고는 일본 내에서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열기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려주는 단적인 예이다(조항록, 2007; 4).

미국에서도 한국어반을 개설한 중·고등학교는 2006년 현재 60개교로 5천명의 학생이 정규 수업과정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올 9월 학기엔 15개 학교가 더 개설할 예정이다. 스페인어, 불어, 일본어, 중국어와 비교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세계 언어 중 9번째, 아시아 언어로는 세 번째로 한국어가 미국 대입시험(SAT)의 제2외국어로 채택되었다. 한류의 영향으로 동남아에서 불기 시작한 한글 배우기 열풍은 이제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경향신문, 2006.7.26).

드라마 《대장금》으로 거세진 홍콩에서도 한류바람이 한국어 배우기로 증폭되고있다. 홍콩 중문대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2005년 열린 첫 한국어강연대회에서는 60명가량의 신청자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현재 홍콩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사람은 3천명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길림신문, 2005.11.24). 또 한국드라마 《대장금》의 열기로 중국 장춘에도 한류가 거세차게 불어치며 한국어 배우기가 류행의 붐을 탔다. 장춘시에 있는 모 강습반의 등록표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중 80%이상이 30세 이하이며 여성들이 위주였다. 수강생의 증가로 이 강습반에서는 한국어반을 4개에서 5개 반으로 증설하였다. 강습반의 교사는 “지금 한국어를 수강하러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한류열풍의 영향을 받고 온 것이다. 많은 여학생들은 한국의 배우들을 숭배해서 여기에 온 것이라고 말한다”며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절반 이상 차지한다고 하였다(길림신문, 2005.11.24).

한때 이소룡 영화를 보기 위해 중국어에 관심을 갖고,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화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 일본어를 배웠듯 이제 세계인들은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를 보기 위해 한글을 공부하고 있다. 일본인 어머니와 한국계 2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히카루 초이(14)는 말한다.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을 보고, ‘신화’의 노래를 들으며 한국어를 배워요. 내가 한글을 배운다니까 가장 좋아하는 분이 윤사마 팬인 엄마였어요.”

바야흐로 한글이 국제언어로 발돋움하고 있고, 언어를 수출하는 것은 곧 우리 문화를 수출하는 일과 맥을 같이한다. 주불 한국문화원에서 2004년 10월 한국어 수강생 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 한국문화를 제대로 알고 싶다: 한국영화,음식,혹은 여행을 통해 한국을 발견하고 한국이란 나라를 제대로 알고 싶어 한국어를 시작한 경우가 많았다. 한국 영화를 자막 없이 보고 싶다거나 위성방송 아리랑TV를 통해 알게 된 한국가요와 드라마의 내용을 잘 알고 싶다는 대답도 있었다. 특히 일본,중국,인도네시아 등 프랑스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학생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그 가운데 일본인 수강생이 많은 편인데 이들은 한국 친구들이 많은데다 이웃나라를 잘 알아야 한다고 답했다.

-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다는 호기심: 프랑스인 가운데 아시아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이나 서구 언어와 완전히 다른 아시아 언어를 하나쯤 알고 싶다는 생각에 한국어를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 다른 아시아 언어에 비해 한글이 쉽게 느껴져 한국어를 시작했거나 중국어, 일본어를 공부하다가 한국어로 관심의 폭을 넓힌 예도 있었다.¹⁸⁾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를 배우게 된 외국인들은 이렇게 다시 한국어를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기 마련이다. 국외 한국어교육 기관들은 모두 그렇게 한국문화 국외 확산의 거점이 될 수 있다. 그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북경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왕징에 생긴 문화센터가 그 예이다. 저녁이나 주말이 되면 왕징에 생긴 HBT문화센터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사귀고 춤을 즐기는 청년들이 북적인다. HBT문화센터에 약 5백명의 회원이 있는데 그 중 40%가 조선족이고 40%가 한족, 20%가 한국인이다. 그리고 자문단, 이사회, 운영팀, 강사 등 자원봉사자들이 약 70여명이다. 이 인맥을 바탕으로 <日曜名士堂>이 매주 1회의 명사특강을 개최해서 문화센터의 핵심콘텐츠를 형성해가는 등 격조 높은 문화콘텐츠가 차곡차곡 채워지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화센터의 인맥과 고급콘텐츠의 만남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족들에게도 봉사하고 섬기면서 진정한 생산적인 만남과 교류를 매개해주는 것이다. 중국사회에서 이러한 인맥은 엄청난 재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홍룡강신문, 2006.8.2).

2006년 2월말 한국정부가 종전의 한국문화홍보원(1994년 정식 설립)을

18) 주프랑스 한국문화원(http://www.coree-culture.org/kr_cour01.php)

인수하여 설립한 한국문화원도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하면서 ‘韓流’와 ‘漢風’을 교류하는 한중 문화 교류의 거점으로서 양국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촉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인을 상대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보급하고 소개하는 활동을 펴왔지만 앞으로는 일방적인 홍보에 그치지 않고 한중 양국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한국어강좌, 한국음식강좌, 한국전통춤강좌, 사물놀이강좌, 한국영화상영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참여 인원은 매기 약 7백명 정도 된다. 금요일 저녁 6시마다 한국문화원내 다목적공연장에서 무료로 한국영화를 상영하는데 매번 1백여명의 중국인이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모여들며, 한국의 IT기술과 문화예술을 접목시켜 마련한 상설전시공간에는 월 평균 4백~5백명 정도의 중국 전역 대학생들이 단체 관람을 오고 있다. 또 각종 한글, 영문 및 중문서적과 자료가 1만 여권 이상 구비돼있는 도서관도 운영하고 있다. 다량의 멀티미디어 컴퓨터가 준비돼있어 인터넷접속을 통해 한국의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 외에도 특히 2007년의 경우는 한중 수교 15주년을 맞아 ‘한중교류의 해’로 정하고 한중 문화산업포럼, 한중 전통예술합동공연과 한국 전통음식특별전, ‘2007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BEIJING, ‘2007 한중예술가 4인화전’을 비롯해 주중 한국문화원 개원 1백일 기념행사, 한국문화교실 수강생들이 그동안 배운 한국어와 판소리, 사물놀이 등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한국의 박완서, 은희경, 신경숙 작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문학좌담회를 열기도 하는 등 다양한 문화 교류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하반기에는 한중교류 패션아트 초대전을 비롯해서 북경세계서예미술전 기간에 맞추어 열리는 확정 이돈홍 선생 초대 서예전, 한중 실내건축 작품교류전,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한국의 20여명 작가가 참여하는 비디오아트 및 사진 전시, 제2회 ‘중·한 서예명가초대전’, 중요무형문화재 107호 누비장인 김해자 개인전, 장백산천지를 주제로 한중수교 15주년기념 사진전, 서울예술단 뮤지컬 “공길전”, 영화작품 ‘밀양’의 이창동 감독과 중국의 영화감독, 중국영화의 전문가들과 함께 양국의 영화발전에 대해 토론하는 ‘2007 한중감독초청영화제’ 등이 개최되었다.

언어와 문화의 국외 확산의 관계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일본에서도 동일하다. 즉,

언어는 문화의 근간이고,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언어 습득이 중요하다. 해외에 일본문화를 보다 심층적으로 적확하게 침투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외국인이 일본어를 습득하고, 일본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는 것이고 다시 본국과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經濟産業省,2006; 120).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설립될 세종학당도 단순한 한국어 교육 기관에 그치지 않고 세계 각국 현지에서 한국문화를 보급하고 현지 문화를 흡수 교류하는 창구로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세계 각국에 기존에 존재하는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그리고 현지동포들의 문화예술단체를 엮어 네트워크를 형성해가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5. 세종학당 설립의 교육적 효과

5.1. 한국어 교육의 확대

세종학당 추진의 1차적 효과는 한국어 교육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데에 이의가 없을 것이다. 기금까지 국외 한국어 교육의 발전 과정을 살펴본 연구는 한국어 교육 주변 환경과 정부의 정책 변화에 주목하여 왔는데 세종학당의 추진은 한국 정부의 의욕적인 한국어 국외 확대 정책으로서 효과적으로 실시될 경우 국외 한국어 교육 현장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국외 한국어 교육의 발전은 크게 두 차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나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약 10년의 기간이고 또 하나는 21세기에 들어선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이다.

우선 1980년대에 한국어 교육이 한 차례 도약하였다는 데에 이견이 없는데¹⁹⁾, 이 중에서 조항록(2005a)는 1980년대에서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를 도약기라 명명하며 그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① 한국의 경제성장과 국제적 역할 증대, ②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③ 재외동포 후세의 증가, ④ 구 공산권 국가와의 수교를 주요 배경으로 들고 있다.

이와 함께 조항록(2007)에서는 21세기의 시대적 환경 변화와 한국어 교육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어 교육의 주변 환경은 아래와 같은 요인으로 빠른 확대를 보이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 ① 중국의 경제 발전과 중국 유학생의 한국 유입
- ② 최근의 한류 열풍
- ③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실시와 한국어능력시험의 의무 부과
- ④ 2002한일월드컵 이후 일본 내에서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변화와 한

19) 한국어 교육의 발달 과정을 논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최근에 들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는데 대표적인 연구로 조항록(2005a), 신현숙(2004), 조항록(2005b)를 들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의 특정 영역에 대한 연구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국어 교육 발달을 시대 구분한 예를 찾을 수 있는데 조항록(1997), 김중섭(1999), 백봉자(2001), 조항록(2003)이 그 예이다. 이상의 연구들은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과 시대 명이 약간씩은 다르나 한국어 교육이 빠르게 도약한 시점을 1980년대로 설정하는 데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어 학습자의 증가

- ⑤ 한국 내에서의 다문화 사회의 빠른 진전과 한국어 학습 수요의 증가
- ⑥ 한국 정부의 스테디 코리아 2005의 적극 추진과 지방 대학의 입학 지원자 확보 방안의 강구 노력
- ⑦ 국어기본법의 제정 시행, 한국어 국외보급유관기관 협의회 운영,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어사업부의 신설, 국립국어원의 한국어보급팀(현 한국어진흥팀)과 같은 국가 차원의 한국어 교육 지원 정책 기반의 조성

그렇지만 한국어 교육을 둘러싼 주변 환경의 변화가 외국의 한국어 교육을 고무 발전시키는 쪽으로 작용하지만은 않는다. 왜냐하면 위에서 제시한 한국어 교육환경의 변화는 중국, 일본, 몽골,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 이외의 지역의 한국어 교육은 발전을 위한 모티브가 제한되어 있어 지역적으로 침체를 보이는 곳도 있다.

세종학당의 추진 역시 궁극적으로는 전세계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는 지역적으로 추진 시기를 달리하여 그 효과는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세계 주요 지역의 현재의 특징적 양상과 세종학당 추진 이후 예상되는 효과를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1.1. 일본

5.1.1.1. 현황

2002한일월드컵 이후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한류 열풍으로 한국어 학습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를 반증하는 현상으로 NHK 한국어 방송교재의 판매 부수의 증가(월 20만부로 중국어로 제치고 1위로 도약), 사설학원/시민단체 한국어 강좌의 급증(약 2천여 곳), 교재 출판의 급증 등이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한국어 입문 학습 단계에 국한하고 있고 모두 진정한 학습자군으로 분류하기 힘들고 한국어 교육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게 될 센터시험에서의 한국어 응시자가 기대하는 만큼 늘고 있지 않으며 한류 의존성이 높다는 한계가 있다.

5.1.1.2. 기대 효과

세종학당의 추진은 기본적으로 일반 대중을 주 학습 대상으로 삼고 개방형으로 운영되며 문화와의 통합을 중시하고 있는 만큼 일본을 대상으로 한 세종학당의 추진은 큰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 내에서의 한국어 교육 열기는 대학보다는 일반 대중으로의 확대가 크게 일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상당 부분은 문화(한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증가일로에 있는 사설학원의 한국어 교육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세종학당의 운영 모델을 그대로 적용해야 할지에 대하여는 검토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5.1.2. 중국

5.1.2.1. 현황

경제 성장에 따라 나타나는 시류 중의 하나로 외국 유학 붐이 일고 있으며 한국도 미국/캐나다, 대양주, 일본에 이어 제4의 유학 선호국으로 부각되어 한국어 학습 기반이 넓혀져 가고 있다. 또한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진출과 한류로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내 한국어학과 설치 대학이 50여 개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자습대학, 사회교육원에서의 한국어 강좌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²⁰⁾ 국내 대학과의 연계 프로그램도 꾸준히 늘고 있다. 사설 학원 또한 점증하는 추세이며 향후 외국인고용허가제 대상 국가로 지정될 경우 사설 학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급격한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적지 않아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된 발전을 위하여는 많은 관심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으로 교사 요인에서 한족과 조선족 간의 협력 관계의 설정이 불투명하며 저변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중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기대하는 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급격한 확대를 관리,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도 결여되어 확대 양상

20) 중국 내 사회교육으로서 한국어 교육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주목할 만한 연구로 묘춘매(2006)에서는 중국 내 사회 교육으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에 대한 정확한 진단, 교육 현장 평가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 부실 교육의 우려가 가장 큰 곳이다. 광활한 대륙에서의 대규모의 한국어 교육을 선도하고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 메커니즘의 창출이 요구된다.

5.1.2.2. 기대 효과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의 발전 모티브는 한국어 교육이 학습자에게 경제적 이익과 문화적 향유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에 기인한다. 다시 말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든지, 한국정부의 외국인고용허가제로 한국으로 들어올 자격을 갖도록 한다든지, 우리 동포에게는 방문 취업 시험을 통과하도록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경제적 이익과 폭넓게 퍼져 있는 한류에 기반하여 한국 대중예술을 향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요자층의 확대는 대학 내 교육 또는 중고등학교 내 교육과 같은 공교육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대학의 사회교육, 일반 사설 교육 기관의 단기 속성 한국어 교육 등과 같은 개방형 교육을 요구한다. 이렇게 볼 때 개방형 교육을 중심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세종학당의 설치는 중국 내 한국어 교육 수요에 상당 부분 부응할 수 있고 세종학당에서 제공되는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은 중국의 한국어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²¹⁾

5.1.3. 동남아

5.1.3.1. 현황

지역 내 경제성장과 한국과의 교류의 증대, 한류,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시행 등으로 한국어 교육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베트남, 태국의 한국어 학습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며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네팔 등 한국어 교육이 전무하였거나 부정기적인 지역에서도 안정된 운영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라 민간 영역에서의 한국어

21) 중국 내에서 세종학당의 추진이 한국어 교육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이 해영(2007)에서 제기되고 있다.

교육 시도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그러나 이 지역의 한국어 교육을 면밀히 살펴볼 때 한국과의 교류도 증가하고 국력도 성장하고 있는 인도, 파키스탄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부진하다거나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진전된 말레이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오랜 기간 소강상태에 머물러 있다든가 하는 외형상의 문제와 함께 교육과정, 교재, 교사, 교수법 등 교육 관련 기본 인프라의 구축이 미약하기 그지없다. 비록 이 지역 한국어 교육이 확대 동인이 비교적 지속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나 현재의 확대 추세를 안정적인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지원 방안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5.1.3.2. 기대 효과

중국과 마찬가지로 최근 한국어 교육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 지역으로 그 기반이 주로 경제적 이익과 문화의 향유에 있다. 경제적 이익과 관련해서는 현지 진출 한국 기업에의 취업이나 외국인 고용허가제 응시에서는 중국의 비슷한 상황이나 한국인 상대의 관광 가이드, 자영업 등은 중국과 달리 남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중국에 있는 방문취업제 응시는 이곳과는 무관하다. 문화의 향유는 중국 못지않게 확산되어 있는 한류의 영향으로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가별로 경제수준의 차이가 커 한국어 학습 열기가 역내에서 고루 나타나기보다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와 같은 기존의 한국어 학습 분위기 형성 지역에 미얀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네팔 등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 불모지와 같은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확장 지역은 한국어 교육 교육 기관, 교육과정, 교사, 교재 등 교육기반이 미비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세종학당이 개설될 경우 해당 지역 한국어 교육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5.1.4. 미국/캐나다

5.1.4.1. 현황

세계적 초강대국, 한국과의 관계 증진, 다수의 재외동포 거주, 선진 문

화와 선진 학문 국가 등이라는 점에서 한국어 교육의 기반이 비교적 안정된 곳이며 한국어 교육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현재의 재정립기의 발전 동인의 영향을 그리 받지 않는 곳으로 한국어 교육의 급격한 확대 양상을 발견하기 힘들다. 특히 타 지역과는 달리 사회 교육 차원에서의 한국어 교육 확대 양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일부 특정 영역에서의 한국어 교육 발전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은 heritage-non heritage 관련성, 중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 발전 모델 미구축, 재외동포 사회의 정체성 문제 등으로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5.1.4.2. 기대 효과

1980년대 이후 한국어 교육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온 곳으로 최근의 한국어 교육 환경의 변화에 그리 민감한 지역이 아니다. 이 지역의 한국어 교육은 크게 대학, 일부 중고등학교와 같은 공교육과 한글학교와 같은 재외동포 대상의 한국어 교육으로 양분되어 있다. 즉 사회 교육, 대중 교육 차원의 한국어 교육이 그리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종학당의 개설은 지역 내 한국어 교육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한다. 이 지역에도 미미하나마 한류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는 만큼 대중 교육으로의 확대 가능성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역내 대학의 한국어 교육이 비교적 양질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교육과정, 교육자료, 교수방법에 있어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5.1.5. 서유럽

5.1.5.1. 현황

1930년대 서구에서의 최초의 한국어 교육이 실시된 핀란드 헬싱키 대학을 비롯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요 대학에 한국어 과정이 개설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에 주춤하거나 심지어 축소되는 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 특성에 맞춘 한국어 교육 발전 모델의 구축이 미흡하였으며

최근의 한국어 교육 발전 동인의 영향이 거의 없는 곳으로 한국어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각별한 연구와 노력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5.1.5.2. 기대 효과

서유럽의 한국어 교육은 영국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학 내 교육이라는 엄연한 테두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학의 기초 영역으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폭넓게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일반 대중의 한국어 학습 요구를 불러일으키거나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세종학당이 추진될 경우 이 지역에 대한 새로운 시도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최근 동포 사회와 입양아들 사이에서 한국어 학습에 대한 요구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는 보고도 있는 만큼 민족 교육 내지는 사회 교육으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현 지인이 흥미를 가지고 어렵지 않게 한국어를 배우고 언어와 문화를 통합하여 접할 수 있는 교육과정, 교육자료, 교수방법의 개발이 하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

5.1.6. 동유럽/중유럽

5.1.6.1. 현황

냉전 시기 구공산권 내의 결속력 강화 차원에서 주요 대학에 예외 없이 한국어학과가 설치되었고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비교적 한국어 교육이 양호한 발전을 가져왔다. 냉전의 소멸 이후에는 한국 정부의 각별한 관심 지역으로 교육 담당 인력에 대한 지원이 비교적 양호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들어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어들면서 한국어 교육제도 정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 기업의 진출로 한국어 학습자가 소수 늘고는 있으나 뚜렷한 발전의 동인을 찾기가 어렵다.

5.1.6.2. 기대 효과

동유럽/중유럽의 한국어 교육도 서유럽과 비슷하여 한국학의 기초 영역으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자리매김되어 있고 대학 내 교육으로 진해오디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만 서유럽에 비하여 현지 진출 한국 기업에의 취업 등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여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가 점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종학당이 추진된다면 일반인 학습자를 유발할 수 있으나 그 수는 그리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한국 기업이 진출한 곳을 선정하여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5.1.7. 러시아

5.1.7.1. 현황

지역적으로 페테스부르그 지역, 모스크바 지역, 극동 지역 등으로 나뉘며 이들 지역 간에 최근 한국어 교육의 발전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앞의 두 지역은 한국어 교육의 역사가 길고 한 때 발전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서유럽의 양상과 비슷하게 주춤한 상태이다. 이 지역 역시 지역 특성에 맞춘 발전 모델의 구축이 부족하였으며 최근의 발전 동인의 영향을 거의 받고 있지 않다. 다만 극동 지역의 경우 한국과의 교류의 증대, 한류 등으로 한국어 교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5.1.7.2. 기대 효과

러시아 내 세 지역 중 극동 지역의 경우 세종학당의 추진은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동포의 거주, 국내 기업의 진출, 한국과의 교류의 증진, 한류의 영향 등으로 극동 지역에서의 한국어 교육 열기는 높아지고 있으며 일반 대중 사이에서의 관심도 높아진 상태이다. 다만 현지의 여건상 대학 부설 또는 문화원/교육원 부설의 운영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아직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자료나 교수 방법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고 전문가층도 두텁지 않은 만큼 많은 준비가 요구된다.

5.1.8. 대양주

5.1.8.1. 현황

다수의 재외동포 거주, 1980년대 이후 현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우리 정부의 관심으로 한국어 교육이 빠르게 발전했던 지역이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 발전 전략의 부재 등으로 현재는 한국어 교육이 침체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최근 한국어 교육 발전 동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5.1.8.2. 기대 효과

현지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매력이 그리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수요자층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과거 한국어 교육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사례를 감안한다면 잠재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세종학당의 추진에 있어 일반인을 주목표로 설정할 것이나 이 지역에 한하여 대학 내 한국어 교육 기관을 설치하여 인접 지역과 인근 교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기회를 점차 넓혀 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1.9. 중앙아시아

5.1.9.1. 현황

다수의 동포 거주 지역이고 공산권 세계의 해체 이후 한국어 교육이 폭발적으로 확대되었던 지역이다. 최근에는 한국 투자 기업 진출, 한류, 외국인고용허가제 대상 내지는 후보 지역으로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 특성에 맞춘 발전 모델에 논의가 전무한 상태로 곳곳에서 한국어 교육 발전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다.

5.1.9.2. 기대 효과

한국어 교육 확대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고 실제로 점진적 확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고용허가제와 한류의 영향으로 일반인 사이에 한국어 학습 욕구가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한국어 교육 공급 시스템이 매우 빈약한 곳으로 세종학당 추진의 성과가 크게 기대되는 지역이다. 다만 문화 간 거리가 큰 지역이고 한국어 교육 관련 경험과 데이터가 많지 않은 지역인 만큼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특히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인 만큼 수요자 접근성과 유인 전략을 개발하여야 하는 지역이다.

5.1.10. 중남미

5.1.10.1. 현황

1980년대 후반 재외동포 후선의 한국어 교육 붐으로 한 때 빨리 발전을 보였으나 이후 동포사회의 정체성 문제, 국내와의 연계 문제로 주춤한 상태이며 최근의 한국어 교육 발전 동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곳으로 한국어 교육 발전이 매우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학 차원의 한국어 교육 등 타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발전 양상을 찾기가 어려우며 재외동포 대상의 교육 역시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다.

5.1.10.2. 기대 효과

대학 내 한국어 교육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일반인 사이에서도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은 지역인 만큼 세종학당의 추진 성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지역이다. 여기에 또한 한국가의 교류도 그리 활성화되지 않아 경제적 이익 추구 차원에서의 학습자 유발도 그리 기대할 수 없다. 다만 현지 교민 사회에서 한국어 학습에 대한 요구가 큰 만큼 이에 맞춘 세종학당의 추진이 필요하다.

5.1.11. 중동/아프리카

5.1.11.1 현황

1990년대 후반까지는 한국어 교육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지역으로 최근 들어 한국어 교육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비록 규모는 크지 않으나 다수의 국가로 확대되고 있으며 나름의 발전 모델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현지 종사 일부 선도자에 크게 의존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국내로부터의 관심이 크게 요구되는 지역이다.

5.1.11.2. 기대 효과

아직은 한국어 교육 초기 단계로서 대학 내 교육이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지역이다. 또한 일반 수요자층도 그리 존재하지 않아 일반인을 대상으로 세종학당의 역할이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다만 대학 내 교육의 초기 기반 구축 단계에서 국내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세종학당이 초기에 이들 대학과의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후 현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일반인 대상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2. 한국어 교재 개발 및 사용의 측면에서 본 기대 효과

세종학당의 추진은 국외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교재의 다양화와 함께 질적 제고를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세종학당 추진의 태동 단계인 2007년에는 세종학당의 추진 방향 및 내용에 맞춘 교재를 개발하여 시용하지 못하였으나 2008년도에 세종학당 사용을 위한 교재의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 이후의 결과물은 국외 한국어 교육 현장의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는 기존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는 교재가 현지 특성을 고려하고 수요자 요구를 수렴하거나, 교재 개발의 원리를 철저히 적용한 체계적인 교재를 찾기 어렵다는 현실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국외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교재 개발의 역사적 흐름과 최근의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한국어 교육 태동과 점진적 성장기의 교재 개발의 사적 흐름에 대하여는 본 논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만큼 이 시기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1970년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국어 교육의 확대기인 1990년대 후반 이후는 확대기와 최근 경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5.2.1. 태동과 점진적 성장기의 한국어 교재²²⁾

국외에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의 시초를 언제로 보느냐는 교재에 대한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멀리는 중국 송나라의 손목(孫穆)이 고려의 어휘를 수록한 계림유사를 편찬한 사례를 효시로 들기도 하고 본격적인 교육용으로 개발한 고려관역어를 효시로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현존하는 교육용 교재로서는 명나라 시기에 편찬된 조선관역어를 교재의 효시로 들기도 한다. 이에 비하여 근대적 의미의 체계적인 교재의 개발은 1881년의 『한어입문(韓語入門)』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쓰시마번에 1872년에 설치된 조선통사(朝鮮通事)를 폐지하고 부산의 초량왜관에 설치한 초량관어사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상권과 하권으로 구성되었다. 이 책은 총 4편 21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책 머리에는 문법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후 개화기 동안 『交隣須知』(1883), 『A COREAN MANUAL or PHRASE BOOK: with INTRODUCTORY GRAMMAR』(1887, 1893), 『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1890), 『日韓通話』(1905) 등 간헐적으로 한국어 학습 관련서가 출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재들은 한글 자모 제시, 발음 제시, 어휘 대역, 관용구 소개, 이야기 대역, 문법과 구조 설명 등을 근간으로 하였으며 편찬의 목적 역시 교육 목적보다는 한국과의 교류에서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한국어에 대한 이해와 기초적인 문법 지식 제시였다. 이는 당시의 교수법이 문법번역식 교수법이 주를 이루었고 한국과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한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교육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다루면서 여기

22) 여기에서의 논의는 조항록(2004)를 바탕으로 함

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편찬된 교재의 효시는 미국에서 발간된 『Spoken Korean - Basic Course -』(1945)이다. 미국언어학회와 집중언어프로그램 위원회가 공동으로 펴낸 이 책은 당시 급격하게 확산되던 군대교수법의 영향을 받았다. 군대교수법이 그렇듯이 구어를 중심으로 말하기 능력 신장을 위한 여러 장치가 고안되었고 한 단원 내에서 학습 단계를 설정하는 등 교재로서의 짜임새를 갖추었다.

국내에서는 1959년에 설립된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교재로 사용할 목적으로 집필된 *An Intensive Course in Korean I, II*(1960, 1965)가 체계화된 교재의 시작이다. 이 책은 당시 외국어 교육계를 풍미하던 구조주의 언어학과 행동주의 심리학에 뿌리를 둔 구두청각교수법의 기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이를 시발로 하여 60년대에 국내에서 다수의 교재가 출간되는데 이는 한국어 교육 기관의 신설과 관련이 있다. 이미 1956년에 준한 미군 영내에서 미국 군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한국어 강좌용 교재 *Learn Korean I, II, III, IV*가 1963년에 출판되고 명도원의 *Myungdo's Korean*이 1968년에 출판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본, 한국어 듣기, 한국어 읽기 등이 비록 정식 출판은 아니지만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개발되어 활용되었고 새국어독본, 새국어회화, 새국어작문, 새국어문법 등이 재외국민용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출판되었다.

그러나 국외에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은 국내보다 좀 더 빨라 40년대, 50년대에 미국의 워싱턴대학, 예일대학에서 한국어 교재를 펴냈으며 60년대에는 하버드대학 등 몇몇 대학에서 교재를 펴냈다. 『Spoken Korean - Basic Course -』과 *An Intensive Course in Korean I, II*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한 종합적인 교재의 성격을 갖는다면 핀란드 헬싱키 대학의 람스테트가 쓴 문법서는 한국어의 범주 교육을 위한 보조 교재 개발의 시초라 볼 수 있다. 러시아 페테스부르크 대학의 홀로도비치 역시 한국어 교재를 집필하였는데 이 역시 교재 개발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70년대에 들어와 국내에서 교재 개발이 활발해지는데 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거나 교육 기관이 신설되면서 기관에서 사용할 목적의 교재가 편찬되었다. 1972년의 언어교육연구원의 한국어 교재가 그 예이다.

둘째, 이미 개발된 교재의 수정 보완본이 편찬되었다. 이 시기는 인지주의 학습법의 대두로 언어학과 외국어 교육학에 있어 획기적인 변혁이 있던 시기로서 새로운 이론을 도입하여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예가 『An Intensive Course In Korean II』(박창해, 1975)를 들 수 있다.

셋째, 교재 개발의 경험이 조금씩 축적되면서 기존의 범주 또는 영역별 교재의 통합현상이 나타났다. 즉 단일 교재 안에서 발음, 어휘, 문법, 기본대화를 중심으로 하는 말하기와 듣기 등을 담은 교재가 나타났다. 이의 대표적인 예로 『Korean 1』(박창해, 1973)을 들 수 있다.

넷째, 학습자 집단의 변인이 다양화되면서 특정 학습자 집단을 위한 교재가 출판되었다. 이의 예로 선교사를 위한 『Korean For Missionaries』(1982), 『선교사 한국어 교본』(1980)을 들 수 있다.

5.2.2. 한국어 교육 도약기의 한국어 교재²³⁾

1980년대 중반부터 일기 시작한 한국어 교육의 본격적인 도약은 곧 이어 교재 개발의 러시를 가져왔다. 국내의 경우 기존 연세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개발된 교재에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한국어문화연수부의 『한국어 I』 ~ 『한국어 IV』(1986), 『한국어 1』 ~ 『한국어 4』(1991),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I』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VII』과 이에 따른 각각의 숙제집이 속속 출판되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교육 역사가 긴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가 1979년에 『한국어 1』 ~ 『한국어 3』을 출판한 이후 약 10년 동안의 사용 후 수정 보완을 거쳐 1989년에 『한국어 I』 ~ 『한국어 IV』를 1989년에 출판하였다. 여기에 연세대 한국어학당이 기관 교재로서 『한국어 1』 ~ 『한국어 6』을 완간하고 『한국어독본 초급』 ~ 『한국어독본 고급』을 완간하였으며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가 기관 교재를 개발하여 공식적으로 출판하였다. 정부에서도 한국어 교재 개발에 관심을 가져 문화관광부가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에 의뢰하여 『한국어 1』 ~ 『한국어 3』을 개발, 출판하였으며 국제교육진흥원에서도 재외동포 교육용 교재를 발간하

23) 여기에서의 논의는 조항록(2004)를 바탕으로 함

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한국어 교육을 실시한 몇몇 기관에서는 자체 교재를 개발하지 못한 채 타 교육 기관의 교재를 사용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중반 사이에 발간된 교재는 공통점을 갖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교재의 성격이 강하다. 기관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주 교재와 보조 교재를 함께 개발함으로써 자체 교육과정에 맞춰 교사와 학습자가 사용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²⁴⁾

둘째, 대부분이 구조주의 언어학과 행동주의 심리학에 기초한 구조와 형태 중심의 교재가 개발되었다. 당시 한국어 교육계는 역사가 오랜 기관은 구두청각 교수법을 여전히 중심 교수 방법론으로 채택하고 있었으며 신생 교육 기관은 기존의 한국어 교육계가 채택해 온 구두청각 교수법과 서구의 새로운 경향인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을 절충적으로 적용하는 교수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재 편찬에 있어서는 한국어 교육계의 전통적인 방법론이라 할 수 있는 구두청각 교수법을 고려한 구조주의 방법이 폭넓게 도입되었다.

셋째, 학습자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이를 충족하기 위한 영역 별 보조 교재의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서양어권 학습자에게 생소한 한자 교육을 위한 교재가 개발되었고 문법서도 개발되었다. 여기에 발음 학습용 교재가 개발되고 신문 읽기 연습 교재도 출간되는 등 이 시기에는 국내외적으로 영역 별 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였다.²⁵⁾

넷째, 한국어 교재에서 삽화의 도입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삽화는 교재 구성 상 도입부에 해당 단원의 학습 내용을 유추하도록 하거나 교재

24) 주교재와 보조교재를 동시에 개발 사용한 기관의 예로는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를 들 수 있다. 연세대는 기본 대화, 어휘, 문법, 문형 학습을 주로 하는 주교재와 읽기 학습용 교재를, 고려대는 어휘, 문법을 포함한 회화용 교재와 읽기 교재를, 이화여대는 주교재에 맞춘 숙제책을 동시에 출간하였다.

25)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자 교재의 효시는 U. S. Army Language School(1955), Selection of Hanja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특수교육용 교재로서 일반적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재는 Fred Lukoff(1982)의 A First Reader in Korean Writing in Mixed Script이다. 그러나 기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한자 교재로는 손연자(1992)의 『외국인을 위한 생활 한자』를 들 수 있다. 문법 교재로는 오랫동안 한국어 교육에 종사했던 임호빈, 홍경표, 장숙인(1987)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과 백봉자(1999)의 『외국어로서이 한국어 문법』을 들 수 있고 발음 교재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1991)의 『표준한국어발음연습』,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1995)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을 들 수 있다.

내 과제 제시에 있어 보조적으로 활용되었다. 이는 당시 외국어 교재가 보편적으로 채택한 교재 개발 방식의 일 단면을 수용한 의미도 있으며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강화하고 학습 효과를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

5.2.3. 한국어 교육 확대기의 한국어 교재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이르는 한국어 교육 확대기는 한국어 교재 개발에 있어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가장 풍부한 결과를 낳은 시기이다. 이 시기 교재개발의 현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의 교육 기관들은 그 동안 사용해 오던 교재를 새로이 개편하기도 하였고 사용 교재가 없던 기관에서는 교재를 개발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둘째, 국내외에서 범용의 교재를 편찬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며 이의 결과로 몇몇 범용 교재가 선을 보였다.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 개발 교재, KLEAR(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Research Center, 한국어교육연구센터)의 영어권 대학생 대상의 교재,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 한국어 교재 개발, 일본 내 고등학교 한국어 교육용 교재도 이 범주에 속한다.

셋째, 이 시기에는 문법, 한자, 작문, 어휘사전 등 특정 범주를 다룬 교재의 개발이 활발해졌다. 앞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하와이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KLEAR에서는 한국어 학습용 일반 교재 이외에 『한국어 문법』, 『한국어 작문』, 『생활 한자』, 『한국어 용례사전』 등을 함께 개발하였다. 개인적 차원의 저술에서도 백봉자(1999)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 라혜민·우인혜(2000)의 『Easy Korean Grammar』, 王俊(2001)의 『韓國語 文法』 등 다양한 종류의 문법 교재가 출판되었다.

넷째, 이 시기에는 산업체 근로자, 군인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물론 1980년대 초에 선교사라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교재의 개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한국어 학습자 변인의 다양화를 반영하여 특수 교재를 개발한 것은 의미있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산업 연수생의 연수 목적으로 집필된 조항록 외(2002)의 『한국어와 한국생활』 과 안설희 외의 외국인 노동자를 위

한 재미있는 한국어 1,2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 나타난 특징 중의 하나는 한국어 학습용 멀티미디어 교재의 출현이다²⁶⁾. 멀티미디어 교재는 웹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용 교재와 CD롬 타이틀이라는 컴퓨터 보조 학습 교재,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로 나눌 수 있다. 국내에서의 웹 기반 교재의 개발 및 교육 서비스는 서강대 한국학센터의 'Korean Studies at Sogang'과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의 국제교육진흥원의 'KOSNET'이 대표적이며 모두 1998년에 처음으로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국외에서는 호주 모나쉬 대학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CD롬 타이틀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화연수부가 집필하고 콤팩트시스템이 개발한 '유타의 한국 기행'과 농심데이터시스템의 'NDS Korean'이 대표적인데 이들 교재는 각각 일본어권 한국어 학습자와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라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삼았다. 2000년 이후에는 일부 교재가 CD롬 타이틀을 인쇄된 종이 교재의 보조 학습용으로 병행 개발하였는데 주로 본문 대화 장면 구현과 듣기 학습, 그리고 연습문제 풀이 보조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이선근 외(2000)의 『한국어 1』과 아름답게 트는 한국어교육연구소(2000)의 『easy Korean for foreigners』가 있다. 한편 종이 교재와 함께 비디오 테이프를 함께 개발한 교재로는 정재훈(1999)의 『Interactive Korean Through Video 1』 ~ 『Interactive Korean Through Video 6』을 들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중심으로 하여 이 시기 한국어 교재 개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재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기관 교재, 범용 교재, 특수 집단 대상의 교재, 특정 범주 별 교재, 멀티미디어 교재 등이 개발됨으로써 변화하는 한국어 교육 환경에 대응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각각의 교재는 교육 목표, 교육과정, 대상 집단 및 사용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다. 관련 교수법 역시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의 중심 원리를 주로 상정하고 있으나 교재에 따라 구조

26) 멀티미디어 교재의 개발에는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멀티미디어 교재는 국가기관 또는 일반 기업체에서 개발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지원 하에 개발되었다. 서강대학교의 웹 기반 한국어 교육은 교육부의 가상대학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호주 모나쉬 대학의 웹 기반 한국어 교육은 호주 정부의 지원으로, 정재훈(1999)의 비디오 교재는 호주 주정부와 삼성전자의 지원으로 개발되었다.

주의 교수요목을 염두에 편찬된 것도 일부 있다.

셋째, 위에서 충분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 시기 교재의 개발은 과거 직관과 경험에 따라 개발하던 방식과는 달리 과학적인 실험과 조사를 통하여 데이터를 추출하고 한국어의 제반 특성, 관련 교수법과의 연계 하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발되었다. 이는 각 교재의 서문 또는 관련 교재 개발 보고서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5.2.4. 최근 국내외의 한국어 교재 개발 현황

최근 한국어 교육의 급속한 확대의 배경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다양한 만큼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개발되는 교재도 매우 다양하다. 최근 한국어 교육의 주요 배경으로 한류 기반 학습자의 증가,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른 수험 대비 성격의 학습자 증가, 국내 기업의 외국 진출에 따른 현지 취업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 증가를 들 수 있는 이러한 종래의 한국어 교육 발전 양상과 사뭇 성격이 다른 것으로 교재 개발에서도 새로운 관점과 방향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의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재 개발에 필요한 기초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기존 교재의 분석, 사용 대상 현장의 특성 및 교육과정 연구, 수요자 요구 분석 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재를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증가하였다. 문화관광부/한국어세계화재단의 범용 교재 개발이나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교재 개발이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 국내 주요 교육 기관은 기존의 교재를 보완 출판하기도 하고, 새로이 교재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전에 비하면 그 수가 크게 늘어났다. 연세대, 서울대, 선문대 등이 교재를 개편하였고 성균관대, 배재대, 건국대 등이 교재를 개발하였다. 이들 교재는 대부분 범주와 기능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으며, 기능은 두세 개 기능의 통합 교육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셋째, 학습자 변인이 다양해짐에 따라 교재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학문 목적의 한국어 교재와 직업 목적의 한국어 교재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으며,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제2언어 교재로서의 한국어 교재가 등장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이미혜(2006)의 Korean Language for a Good Job, 허용(2007)의 인문 한국어, 강현화(2007)의 경영 한국어,

김중섭(2006), 조현용(2006)의 유학생 한국어 교재, 농림부, 여성가족부, 한국어세계화재단의 결혼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재, 묘춘매(2004)의 기초한국어를 들 수 있다.

넷째, 국내에서 기관 교재에 국한하지 않은 범용의 교재 개발이 늘고 있다. 이채연 외의 특특 튀는 한국어, 스티븐 리비어(2006)의 서바이벌 한국어를 들 수 있다.

다섯째, 인터넷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와 공중파 방송을 통한 한국어 교재의 개발이 추가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의 웹 기반 교재, 경희사이버대의 웹 기반 한국어 교재, 상명대의 웹 기반 교재,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방송 교육 자료 등을 들 수 있다.

여섯째, 국외 현지에서의 독자적인 교재 개발이 늘고 있다. 현지인만이 중심이 된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몽골, 인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등 세계의 주요 지역에서 다양한 한국어 교재가 개발되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지금에 이르는 시기에 개발된 교재의 주요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⁷⁾

5.2.4.1. 교육 기간별 (통합 교재)

<정규 교육과정>

- 서울대 “한국어 1~4”
- 이화여대 “말이 트이는 한국어 1~5”
- 서강대 “서강 한국어 1~4”
- 경희대 “한국어 초급~고급(전 6권)”
- 성균관대 “배우기 쉬운 한국어 1~6”,
- 건국대 “한국어 1,2”
- 한국외대 “한국어 1”
- 배재대 “배재 한국어 1~2”
- 신라대 “특특 튀는 한국어 1~6”
- 경북대 “한국어 1”

27) 방성원(2007)의 정리를 바탕으로 함

<단기 교육과정>

- 서울대 “Active Korean 1, 2”
- 연세대 “100시간 한국어 1, 2, 5”

5.2.4.2. 기능별 (분리 교재)

<말하기>

- 성균관대 “말하기 쉬운 한국어 1~6”
- 이해영 외 “초급 한국어 말하기”
- 김중섭 “외국인 학부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말하기”
- 연세대 “한 달 완성 한국어 중급 말하기”

<듣기>

- 이해영 외 “Exciting Korean 1, 2”
- 연세대 “한 달 완성 한국어 중급 듣기”

<읽기>

- 조현용 “외국인 학부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읽기”

<쓰기>

- 라혜민 · 우인혜 “외국인을 위한 기초 한국어 쓰기”
- 신현숙 “들으면서 쓰는 한국어 펜맨십”
- 김정숙 외 “초급 한국어 쓰기”
- 연세대 “한 달 완성 한국어 중급 쓰기”

5.2.4.3. 특수 목적 / 특정 학습자 집단 대상

<학문 목적>

- 김중섭 “외국인 학부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말하기”
- 조현용 “외국인 학부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읽기”
- 김경숙 외 “외국인 대학생을 위한 교양 한국어 1, 2”(선문대)

<직업 목적>

- 이미혜 “Korean Language for a Good Job”

<재외동포>

- 김왕규 외(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어 1~8”

<이주 노동자>

- 조항록 외(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어와 한국생활”
- 안설희 외(한국국제노동재단)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재미있는 한국어 1, 2”

<여성 결혼 이민자>

- 여성가족부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초급”
- 충청북도 교육청 “관심·사랑·화합으로, 하나가 된 우리”

5.2.4.4. 언어, 문화 등 특정 요소 전문 교재

<문법>

- 백봉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개정판)”
- 우인혜 “쉬운 한국어 문법”
- 국립국어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2”
- 이윤진 “한국어 문형 표현 100”/“지하철이 고장나서 늦었어요”

<한자>

- 김지형 외 “漢子로 배우는 한국어 1”
- 이영희 “Learn Hanja The Fun Way”

<문화>

- 백봉자 외 “한국언어문화사진집”, “한국언어문화듣기집”

<속담>

- 최권진 “속담으로 배우는 한국어”

5.2.4.5. 웹 기반 교재

- 영어 지원
 - 문화관광부 “Korean through English”
 - 서강대 “Korean Studies at Sogang”
 - 경희사이버대 “사이버 한국어 과정”
 - 상명대 “배론 한국어”
 - 서울대 언어교육원 “Click Korean”

• 다언어 지원

- 국제교육진흥원 “KOSNET”(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 재외동포재단 “Teen Korean”(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5.2.5. 세종학당 추진이 한국어 교재 개발에 미칠 효과

세종학당의 추진은 개설 지역의 한국어 교재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 등 세종학당의 초기 설립 지역의 경우 중국을 제외한다면 기존 한국어 교재의 현황은 현지 교육 환경의 변화의 수요자 다양성에 거의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의 몽골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한국어 교재는 사전류, 문법서 등 참고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내 개발 교재의 현지 번역 사용 또는 주요 대학의 학과 교육용 교재의 부분적 개발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학과 교육용 교재의 경우도 교육과정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하며 기능 교재 역시 독해 교재, 회화 교재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관심있게 보아야 할 것은 현지의 교재 중 대다수가 현지인의 독자적 개발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며 국내 전문가 개발의 교재 역시 한국어 교육 경험이나 교재 개발 경험이 그리 많지 않은 사람에게 의하여 개발되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현지 교재 개발 과정에 대한 고보가 전무한 상황에서 교재 개발 과정이 어느 정도 체계적이었는지를 알 수가 없으나 기존 교재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일반적으로 교재 개발의 기본 원리를 충실히 따랐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몽골의 한국어 교재 현황>

강남욱·박상희(2002), 몽한 학습소사전, 역락.

강선화(1997), 몽한 포켓 소사전, 울란바타르 대학교 출판부.

김현정(2005), 한몽 용어사전(Monkhtetseg, D. 번역), 한국국제협력단.

계로이 편(1992), 한글독본, 몽골국립대학교 한국어과.

계로이 편(1996), 한자, 몽골국립대학교 한국어과.

김기성(1998/2002), 몽골어/한국어 회화집, Admon 출판사.

몽골국립대 한국학과(1994), 한국어 I-IV(몽골어 판),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지음. 몽골국립대학교 출판부.

몽골국립대 한국학과(2003), 한몽 사전, 서울대 출판부.

방수영(2006), 시사한국어, 몽골인 학습자를 위한 고급 독해 교재, 한국국제협력단.

여병무(1993/97), 한몽 소사전, 울란바타르대학교 출판부.

여병무·강선화(1994/99), 한몽·몽한 소사전, 울란바타르대학교 출판부.

울란바타르 대학교 한어학과 편(1995), 한국어 I-IV, 울란바타르대학교 출판부.

울란바타르 대학교 한어학과 편(1997), 한국어 독해교재(중급), 울란바타르대학교 출판부.

울란바타르 대학교 한어학과 편(1997), 한국어 독해교재(고급), 울란바타르대학교 출판부.

윤순재(1995), 한국어 듣기교재, 울란바타르대학교 출판부.

이계심(1997), 한국어회화 I-IV, 울란바타르대학교 출판부.

이계심(1997), 한국어 발음법, 울란바타르대학교 출판부.

임태수(2000), 한자 I-IV, 울란바타르대학교 출판부.

장석호(1994), 한자, 울란바타르 한국어학교.

Battor, J.(1996), 한국어를 배우는 지름길, 몽골국립대학교 한국학과.

Monkhnaran, L.(2004), 한국어 문법.

Monkhchimeg, B.(2006), 한국어 자습서, Husliin ongo 출판사.

Narmandakh, D.(2005), 한국어 회화법, Sogoo nuur 출판사.

Sainbilegt, D.(1998), 한몽 어휘집, Urlakh erdem 출판사.

Temuulen, B.(2007), 한국어 문법.

Erdenesuren, D.(1999), 4학년 한국어번역교재, 인문대학교 한국어과.

Erdenechimeg, G.(1996), 한국어회화집.

이러한 상황에서 세종학당이 추진되고 여기에서 사용할 교재의 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지역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논의를 통해서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세종학당은 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자료의 개발, 전문 교원의 활용을 주요 추진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개발되는 교재는 기존 현지 교재의 수준과 사용 효과보다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정부가

주관하는 세종학당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전문 연구팀에서 기획하고 추진하겠지만 현지 교육 특성의 파악, 수요자 요구 분석, 전문 개발진의 참여, 국내와 현지 전문가 사이의 협업 등이 예상된다. 이러한 과정은 지금까지 현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예로서 교재 개발 과정의 측면과 교재 유형 및 내용, 교수 방법론과의 연계, 사용 효과의 측면에서 현지 한국어 교육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둘째, 교재는 교육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누가 무엇인가를 배운다 할 때 바로 그 '무엇'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수-학습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아내는 도구이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교육 목표의 설정이나 평가의 자료가 되고 교육 내용의 위계화, 조직화가 진행됨으로써 교육과정의 개발 및 평가 체계의 정립에 큰 영향을 끼친다. 즉 교육 전반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셋째, 교재는 교수자에게는 교수 전략을 학습자에게는 학습 전략을 제공하게 된다. 잘 개발된 교재는 교수 방법론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고 학습자의 학습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세종학당의 추진 과정에서 개발되는 교재는 현지 한국어 교육 실재를 한 단계 상승시킬 것이다.

넷째, 세종학당의 추진 과정에서 개바로디는 교재는 현지 한국어 교육의 학습자 중심성을 강화시킬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아직 국외 현지에서의 한국어 교재는 개발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수요자 요구 분석을 성행하지 못하였다. 세종학당 사용 교재의 개발 과정에서 현지 수요자 요구를 적절하게 수행할 경우에 한국어 교육에 수요자 요구가 적절하게 반영될 것이고 이는 결국 수요자 중심 교육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종학당의 교재는 현지 한국어 학습자 기반을 크게 확충시킬 것이다. 국외 현지에서의 한국어 교육 발전 패러다임이 종래의 주요 대학의 정규 교육 중심에서 일반 사회 교육의 측면이 추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세종학당의 교재는 일반 사회 교육을 급속하게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현지 사용 교재는 대다수가 정규 학과 사용 교재라고 볼 수 있다. 이 교재는 사용 목적과 사용 대상, 사용 현장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일반 대중의 한국어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 세종학당의 추진 과정에서 개발되는 교재는 일반 사회인 교육을 전제로 하는 만큼 사회 교육의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교재의 개발은 현지 한국어 교육 문화를 정확하고 바람직한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세종학당의 초기 개설 지역은 모두가 최근에 한국어 교육의 열기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곳으로서 일부 상술에 따른 파행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거나 비전문인에 의한 교육의 영역이 적지 않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교재 개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현지 전문인의 자질 향상이나 개발 이후 현지 교육에 끼칠 영향 등은 교육 전문성을 높일 것이므로 비전문인에 의한 교육, 상술에 기초한 파행 교육 등의 입지를 한층 좁힐 것이다.

다만 이렇게 기대효과가 큰 교재의 개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아래와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교재 개발의 기본 원리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 교육 목적 및 교육 목표의 설정, 수요자 요구 분석, 교육과정의 개발, 내용의 선정 및 조직, 시험 사용 및 보완 등 교재 개발의 절차를 충실히 따라야 하고 최근의 교수법 원리 등이 적절하게 녹아들어야 하며, 유연성이나 수월성 등이 보장되어야 하고 고도의 편집 기법 등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시각 자료, 청각 자료의 적절한 개발과 함께 교사용 지도서와 학습자용 워크북의 병행 개발을 통하여 사용 편의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교재 개발진은 국내 전문가 집단과 현지 전문가 집단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현지인은 현지 사정에 정통하지만 아직은 교재 개발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고 국내 개발진은 교재 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현지 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내 개발진의 전문성과 현지 개발진의 현장 이해를 적절하게 접목해야 한다.

셋째, 교재 개발 이후 사용의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사용설명회를 개최한다든가 교사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교사의 교재 사용 능력을 높이고 사용상의 문제점을 수합하여 보완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용 교사의 커뮤니티를 개설 운영하여 협동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웹상에서 보조 자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면 더욱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5.3. 한국어 교사 육성 및 자질 향상의 측면에서 본 기대 효과

세종학당의 추진이 가져올 교육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 중의 하나로 현지 한국어 교사의 육성 및 자질 향상을 들 수 있다. 국립국어원이 그동안 밝혀온 세종학당 운영지침을 보면 세종학당의 강사 자격으로 ① 현지 대학(원)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강사 이상의 한국어 교원 ② 국어기본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3급 이상의 한국어 교원을 제시하고 있다. 현지의 한국어 교육이 앞의 두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 의하여 실시된다면 교육의 성과는 지금까지의 성과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것으로 기대되며 이들이 교육자료 개발, 교수방법론 개발 등에 책임감을 갖고 참여한다면 한국어 교육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즉 교사 요인은 세종학당의 성공적인 운영을 가져올 요인 중의 하나로서 세종학당 추진과 관련한 핵심 쟁점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는 너무 거리가 먼 실정으로 결국 세종학당의 추진과 관련하여 현지 교원의 자질 향상 및 자격 부여는 세종학당 추진의 핵심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세종학당의 추진이 가져올 기대효과로서 현지 한국어 교사 육성 및 자질 향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종학당 재직 교사의 요건은 현지의 기존 교사 자격 요건보다 강화된 여건으로서 한국어 교사의 기본 여건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해 줄 것이다. 1단계로 세종학당이 개설된 지역은 한국어 교육의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자질있는 교사의 육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들이다. 이들 지역의 한국어 교사의 충원 과정 및 자격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1> 1단계 세종학당 추진지역의 한국어 교사의 충원과정 및 자격요건

	중국	몽골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교사 분포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족 교수와 한족 교수로 양분됨 -1세대 이후 2세대의 부재와 3세대의 역할 확대 -최근 국내 유학을 통한 하위 소지자의 급격한 증가 -중국 내 한국어 교육 전공 대학원 출신의 증가 -최근 급격히 확대된 사설 교육 기관의 경우 조선족 출신 또는 현지 체류 한국인(비전공자) 중심으로 구성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교 등 다양한 목적으로) 국내에서 파견된 교사와 현지인 교사로 양분됨 -한국어 교육의 역사가 짧은 만큼 교사의 연령대도 젊은 편임 -현지에서 배출하는 한국어교육 석사생의 부족으로 학부 출신 현지인의 비중이 높음 -최근 급격히 확대된 사설 교육 기관의 경우 현지 체류 한국인 또는 대학 졸업 학력의 현지인 교사가 주를 이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KOICA, 현지 한국인 유학생 등 한국인 교사와 현지인 교사로의 양분 양상에서 최근에 현지인 교사의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음 -한국어 교육의 역사가 짧은 만큼 교사의 연령대가 젊음(베트남의 경우 과거 북한 유학생의 재직으로 고령자가 몇 사람 있음) -현지 대학의 한국어 학과 출신이 졸업 직후부터 교단에 서는 경우가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고려인 교사와 현지인 교사의 양립에서 최근에는 KOICA, 선교사 등 한국에서 파견된 교사 요원과 현지인 교사의 양분 상황이나 유달리 KOICA 단원의 역할이 큰 지역 -KOICA, 선교사 등 한국에서 간 교사의 전문성 호가보가 부족함 -현지인 한국어 교사의 한국 유학 등 자질 향상 노력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더딤
교사의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학과 소속 교사의 경우 한국어학 또는 한국어교육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사설 교육 기관의 경우 학력, 전공 등 자격요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학과 소속 현지인 교사의 경우 한국어학 또는 한국어교육 전공으로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가 주를 이루나 한국인의 경우 전공 자격제한 없음 -사설 교육 기관의 경우 학력, 전공 등 자격요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학과의 강사는 현지 대학 한국어학과 또는 국내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거나 태국에서는 점차 석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하는 계획을 추진중임 -사설 교육 기관의 경우 학력, 전공 등 자격요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학과 소속 현지인 교사의 경우 한국어학 또는 한국어교육 전공으로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가 주를 이루나 한국인의 경우 전공 자격제한 없음 -사설 교육 기관의 경우 학력, 전공 등 자격요건 없음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 교육 수요가 급증하나 현지 정부 또는 한국어 교육계 내에서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이 없음 -한국어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사설 교육 기관 모두 한국어 교사의 자질 향상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인 교사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나 지역별로 한국어 교육을 이끌 현지인 지도자가 그리 많지 않음 -국내 파견 교사이 수 및 비중이 낮아지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려인 교사의 급속한 감소 -자질 향상 노력이 부족함 -KOICA, 선교단원의 역할이 큼

이런 상황에서 강사 자격 요건인 현지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한

국어교원 3급 자격증 소지자 이상으로 세종학당의 강사진이 충원되고 운영된다면 현지 한국어 교육계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또한 직접적으로 세종학당의 강사가 되기 위한 스스로의 자질 향상 노력도 뒤따라리라 기대한다.

<표 5-2> 1단계 세종학당 추진지역 대상 한국어 교사 자질 향상 지원 활동

	국립국어원/한국어세계화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국내 대학
활동 명칭	-전문가 파견 현지 연수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 -현지 한국어 교육자 연수(중앙아시아 1회)	-남아시아 한국어 교육자 초청 연수 -남아시아 한국어 교육자 현지 워크숍 -중국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	-인도 한국어 교육자 워크숍(서울대) -중국 산둥지역 한국어 교육자 워크숍(서울대)
대상 지역	중국,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남아시아, 중국, 몽골	인도, 중국 산둥지역
주요 내용 (최근의 사례 중심)	-전문가 파견 현지 연수의 경우 1주일 동안 한국어 교수법 중심으로 진행 -초청 연수의 경우 2주 동안 한국어 교육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	-초청 연수의 경우 2주 동안 한국어 교육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 -현지 워크숍의 경우 초청 연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여 현지 쟁점 해결 중심의 세미나와 워크숍으로 진행	-한국어 교수법 실제에 대한 몇몇 쟁점에 대한 연수
주요 특징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수 년에 1회씩 순환하며 실시하게 됨	-5개년 계획에 따라 초청 연수와 현지 워크숍의 유기적인 연계하에서 실시	부정기적이며 매우 제한된 규모로 실시

둘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세종학당의 사업 내용 중의 하나로 강사 교육 프로그램을 설정해 놓음으로써 이를 통하여 전문 교사를 육성하여 교사의 자질을 높을 것이라는 점이다. 세종학당이 1단계로 실시되는 지역은 한국어 교육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국내 관련 기관으로부터 교사 양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받기도 하였으나 ‘양성’이라는 측면에서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연수’ 내지는 ‘재교육’의 성격이 컸다. 이들 노력의 성과는 작지 않게 인정받고 있으나 현지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참여 기회와 규모 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지금까지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사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을 정리하면 <표 5-2>와 같다.

세종학당이 추진할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으나 위의 기존 프로그램과는 다른 운영을 예상할 수 있다. 현지 상설 기관으로서 세종학당이 운영되는 만큼 기존의 교사 교육 관련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별표 상에서 정하고 있는 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교과과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수료자가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 능력 향상 성격의 재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문 교사를 키워내 대학 및 사설 교육 기관에 공급함으로써 강사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은 물론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의 위계화도 가능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현지 한국어 교육계의 현안을 해결하며 이끌 수 있는 지도자 그룹의 형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교사 육성 활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상자의 측면에서 볼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여건이 프로그램 참여를 수월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참여와 관련한 비용의 부담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며 참여 기간 동안 현재의 재직 직장으로 시간적 양해를 구하는 일과 참여 기간 동안 유보해야 하는 경제적 행위에 대한 결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는 모두 경비의 문제로 진지하게 고려해야 점들이다. 이와 함께 수준 높은 교사 육성 활동을 전개하려면 국내 전문가의 현지 참여가 중요한 바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대안의 모색도 큰 중요성을 갖는다.

6. 결론-세종학당 설립의 효과와 국외 한국어교육의 체계화

6.1.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의 경제적 효과 요약

<표 6-1>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의 경제적 효과

1차, 2차 세종학당 설립/운영의 총비용 (연간)	944억 3천8백만원 94억 4천380만원
직접적 총편익 (연간)	188억 8천760만원 18억 8천876만원
간접적 총편익(연간)	1조 8천267억 9천5백만원
1)국외 투자 기업의 생산성 증대	201억 9천6백만원
2)한국 제품의 수출 증대 효과	1조 3천250억원
3)국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 생산성 증대	4천680억원
4)국내 영어 교육 비용 감소 효과 (교육 수지 개선 효과)	99억원
(영어 마을 1곳 운영비 감소 효과)	36억 9천9백만원
고용창출 효과	교원 1천명, 행정요원 2백명
직접적 경제 효과(연간)	▽75억 5천504만원
전반적 경제 효과(연간)	1조 8천192억 3천996만원
전반적 비용편익비율	192.6

지금까지 세종 학당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총비용과 총 편익을 살펴 보았다. 이를 요약해서 비교해보면 위와 같다. 총 경제적 비용은 1차와 2차 계획 모두 합계하면 944억 3천8백만 원이 된다. 이러한 투자로부터 우선 세종학당 운영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2020년까지 1천명의 한국어 교원 수요, 2백명의 행정요원 수요가 발생한다. 즉, 국외에서 고용 창출 효과가

1천2백명 발생한다. 경제적 편익으로는 약간의 수강료와 교재비, 그리고 부대 시설 운영 수입을 총비용의 20%로 가정하면 직접적 경제적 편익이 118억 3천760만 원이 된다.

따라서 직접적 경제 효과는 755억 5천40만 원의 적자가 되고, 이는 10년간 총계 값이므로 연간으로 계산해 보면 75억 5천504만 원의 적자가 된다. 그러나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정부가 시행하는 데 따른 경제적 외부 효과를 창출하는 초기 '매몰 비용'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여기에 간접적 경제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간접적 경제 효과는 몇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국외 투자 기업의 생산성 증대 효과가 있는데, 이는 국외 투자 기업의 통역 고용 비용 감소 효과를 대리 값으로 생각해보면 68억 1천3백만 원 내지 201억 9천6백만 원이 된다. 물론 국외 사업장에서 현장 근로자들은 현지어를 사용하더라도 적어도 현지인 중간 관리자들이 한국어를 사용할 경우 그 생산성 증대 효과는 단순히 통역 고용 비용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그 최대치인 201억 9천6백만 원을 현지 사업장에서의 생산성 증대 효과로 생각할 수 있다.

국외 한국어 보급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는 W.K.Hutchison(2002) 등의 분석을 참고할 수 있다. 이를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 증가에 대입해 보면, 중국과 동아시아에서 한국어 사용 인구가 1% 증가할 때 2006년 현재 한국의 브랜드 가치 8천660억 달러가 0.17%, 14억 7천220만 달러 증가하여 8천674억 7천220달러, 즉 1조 3천250억 원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상승 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한류 효과에 따른 제품 수출 증대 효과, 관광객 유치 효과, 문화 상품 수출 효과는 2조 1천440억 원이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에서도 그들과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을 때 국내 20만 (조선족을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소득과 생산성이 15%(A.Gonzalez(2000) 등은 17%) 상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4천680억 원의 생산성 증대 효과를 낳는다. 여기에 국외 한국어 사용의 증가는 그만큼 국외 투자사업장에서 현지어가 아닌 영어 사용 필요성은 줄여서 국내 영어 교육비의 감소 효과를 낳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를 한국어 습득자들의 한국 유학을 고려하면 99억 원의 교육 수지 개선 효과, 또 최소 영어 마을 1곳의 연간 운영비 감소 효과 36억 9천9백만 원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경제 효과는 1조 8천192억 3천996만 원이 되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그 결과 세종학당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비용편익비율은 192.6이 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세종학당의 설립 및 운영은 초기 매몰비용에 해당하는 투자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투자 대비 편익이 더 적은 적자를 낳는다. 그러나 국외에서 대중적 차원에서 한국어를 보급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경로로 그 경제적 외부효과를 발생시켜서 국가경제에 중장기적으로 막대한 효과를 낳는 중요한 국가적 사업이다.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정책의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하는 사업임을 이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2. 국외 한국어 보급 사업의 전반적인 예산 규모

<표 6-2> 2006년도 한국어 교육 관련 정부 부처의 실행 예산

부처	기관	예산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진흥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재외동포교육과	37억 4천만 원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 한국어세계화재단, 재외 한국문화원	16억 4천만 원
외교통상부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협력과, 한국국제협력단, 재외국민재단	145억 8천만 원

국외 한국어 보급 사업은 세종학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한국어 국외 보급 사업 협의회’에서 확정된 2006년 사업은 총 11개 기관에서 총 2백억 원 규모로 이루어졌다. 이 중 외교통상부 산하 기관들이 145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사용해서 사업 규모가 가장 크고, 그다음이 교육인적자원부로서 37억 4천만 원, 그리고 문화관광부가 16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사용해서 국외 한국어 보급 사업을 시행하였다. 여타 부서의 국외 한국어 보급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산출되지 않아서 부서 간 사업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는 현재로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국외 외국인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보급 사업이 가장 폭넓은 효과를 낳을 것임

을 고려한다면 세종학당의 국외 한국어 보급 사업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국외 한국어 학습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그 수요에 부응하는 세종학당의 설립 및 운영에 국가적 투자의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함을 우리는 절감하게 된다.

한편 여기에서 얼핏 봐서 동일한 사업에 서로 다른 부서를 통해 국가 예산이 이렇게 지출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국외 한국어 교육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도 또한 확인할 수 있다. 국외 한국어 보급 사업의 각 부서 간 중복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향후 사업의 통합 내지는 바람직한 역할 분담(특화)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바람직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6.3. 국외 한국어 보급 사업의 체계화 방안

국외 한국어 교육 및 보급을 담당하는 주요 정부 부서와 기관들은 각각 나름대로 축적된 경험과 보급 대상 면에서 차별성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제 국외 한국어 보급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기관의 일원화가 모색될 수 있을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조건적인, 즉 통폐합만이 능사는 아닐 수도 있다. 가장 중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결국 국외 한국어 교육과 보급의 체계화를 통한 효율화일 것이다. 그러자면 각 기관은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수행해 온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발전시켜 가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그 기능을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시켜가면서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폐합을 시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서 각 기관의 성격을 정리하면서 바람직한 역할 모형을 제시해 본다.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한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해 법률(국어기본법)에 의해 그 역할이 부여된 주무 부서이다. 여기에서는 한국어를 우리의 문화 유산 차원에서 이해하고 문화의 확산 및 교류의 차원에서 한국어의 국외 확산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외 한국 문화 확산과 결합해서 한국어 보급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시너지 효과)을 누릴 수 있다.

외교통상부는 국제 교류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국제 교류 과정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주요 국제 교류 내용(콘텐츠)의 하나로 설정할 수 있다. 일반 사회 교육이나 대중으로의 확산보다는 대학 내 한국어 교육, 한국학 진흥과의 관련성 도모 등이 특징으로 부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헌법상 규정된 교육에 관한 국민의 의무와 권리에 따라 재외 국민(넓게는 전체 재외 동포)을 대상으로 하여 민족 교육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에 접근한다. 최근에 국가 간의 교육 협력 증대의 필요성에 따라 국비 유학생 교류 지원 등에 있어 한국어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에서 대학 차원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노동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과정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EPS-KLT)을 포함함으로써 한국어 교육 활동을 확대해 가는 추세에 있다.

여성가족부와 농림부는 국내 다문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어의 국외 확산에는 직접 참여한 전례는 없다.

이렇게 산하 기관 등 다양한 행위자가 존재함으로써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정부의 활동이 중복, 혼선이라는 인식을 주고 있어 업무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다음 네 가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어 교육은 현재 국내외(외국의 일부 지역 제외)로 급격히 확대되는 양상에 있으며 그동안 한국 정부의 직접적 참여가 극히 적었던 만큼 부서 간 고유한 기조에 따른 참여는 제한하기보다는 서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즉 전체적인 규모가 커지고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여러 부서 간의 역할 분담 및 역량의 결집이 요구된다.

둘째, 한국어의 국외 확산 가운데에도 특히 시대적 추세인 사회 교육으로의 확산에 대해 정부 내 역량이 결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무 부서를 지정하여 모든 관련 부서 혹은 기관이 이에 협조하도록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국외 한국어 보급기관들 가운데에는 세종학당이 가장 이 역할에 충실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세종학당을 사회 교육으로서의 국외 한국어 보급 주무기관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때 한 가지 고려되어야 할 것은 사회교육 주관 부서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한국어 국외 보급과 관련한 여러 부서의 노력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 및 협

력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 협의체인 한국어 국외 보급 기관 협의회에서 논의하거나 상위 기관인 국무 총리실에서 관련 회의를 주관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어 국외 보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의제로 채택을 꾀하여야 하며 국외 확산을 위한 브랜드를 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논하는 세종학당을 이러한 국외 한국어 보급에서의 국가 브랜드의 하나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세종학당이 국외 사회 교육으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확산을 담당하게 될 경우, 이에 걸맞은 예산 확보에 관련 부서의 협조를 끌어내어야 한다.

참고문헌

- 경향신문
국정브리핑
길림신문
문화관광부, 『문화산업통계』, 『문화산업백서』, 『문화정책백서』 각 연도
세계일보
주프랑스 한국 문화원(http://www.coree-culture.org/kr_cour01.php)
주한 독일문화원(<http://www.goethe.de/ins/kr/seo/koindex.htm>)
주한 영국문화원(<http://www.britishcouncil.org/kr/korea>)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http://www.jpfr.or.kr/>)
주한 프랑스문화원(http://www.france.or.kr/CCF_kr/index.htm)
한겨레신문
한국대학신문
한국무역협회
한국은행(<http://ecos.bok.or.kr/>)
흑룡강신문
- 국립국어원(2007), 「세종학당 설립 기본계획」
_____ (2007), 『21세기 세종계획 백서』
김번욱 이상직(2001), 「중국인의 시각에서 본 대중국 투자 기업 현지화 실태조사」, 인천발전연구원 한중교류센터
김재형 이승태 홍기석(200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김원호(2005), 「한상네트워크 활성화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재훈(1998), 「발전도상경제의 노동용역 수출」, 『동서경제연구』 제10집 제1권, 한국동서경제학회, pp.41-72
_____ (1998), 「화교경제 네트워크의 구조와 행태」, 『사회과학연구』 제6집 제4호,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93-121
_____ (1999), 「화교경제 네트워크와 중화경제권의 형성」, 『공간과 사회』, 통권 제12호, 한국공간환경학회, pp.134-165

- _____ (2003), 「'제도'로 본 한국인의 만주지역 정착」, 『사회연구』 통권 제6호, 한국사회조사연구소, pp.163-199
- 박귀현(2005), 「한류의 경제적 효과 분석」, 『무역연구』, 무역협회 무역연구소
- 박현 유경준 김석영 광승준(2004), 「문화과학시설의 가치추정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방성원(2007), 「한국어 교재」, 『남아시아 한국어 교육의 주요 쟁점과 과제』, 한국국제교류재단/국제한국어교육학회 공동 주최 남아시아 한국어 교육자 현지 워크숍 자료집
- 설동훈 한건수 김현미 외(2005),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정책 방안」, 보건복지부
- 신미정(2005), 「대구광역시 영어 마을 조성의 타당성 및 파급 효과 검토」, 대구경북연구원
- 왕한석 한건수 양명희(2005), 「국제 결혼 이주 여성들의 한국어 배우기와 문화 적응」, 국립국어원
- 외교통상부(2005), 「재외 동포현황(2005년도)」
- 유길상 이규용 박영범 박성재(2005), 「해외투자기업연수생 노동시장 실태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유길상 박영범 어수봉 박성재(2007), 「외국인고용허가제시행 3주년 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노동부
- 정갑영 조현성 김철수 이주연(2006), 「비서구권 문화예술 전문인력 실태조사 및 인력양성 방안」, 한국 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정영록(2002), 「화교비즈니스 네트워크가 한국경제에 주는 함의」, 재외동포재단·국제경제연구소 공동 주최, IIE국제학술세미나 발표문
- 조동성(2007), 「2006년도 국가브랜드 가치평가 연구결과」, 산업정책연구원
- 조명성(2004), 「한상네트워크를 통한 교역증진효과 조사」, 재외동포재단
- 조항록(2001), 「한국어 교육 현황과 교육 정책」.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제 25·26집, 서울: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 _____ (2004), 「한국어 교재 개발의 사적 흐름과 최근의 한국어 교재 분석」, 『한국(조선)어 교육연구』 2호, 중국 한국(조선)어 교육연구학회
- _____ (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발달의 역사적 고찰1」, 『한국어 교육』 제16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_____ (2007), 「국어기본법과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제18권 2호, 국
제한국어교육학회
- _____ (2007), 「전환기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중 수교 15주년 기
념 중국 내 한국어 교육 학술회의 발표논문
- 최인범(2002), 「한민족 동포경제 현황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재외동
포재단 · 국제경제연구소 공동 주최, IIE국제학술세미나 발표문
- 한국관광공사(2004a), 「한류관광 마케팅의 파급 효과분석 및 향후 발전방향」
- _____ (2004b),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
- 한국노동연구원(2003),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조사」
-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대중국 투자 기업에 대한 경영실태조사」,
2003
- 經濟産業省(2006), 『グローバル經濟戰略』
- 日本國際交流基金(2005), 「日本國際交流基金年報」
- Boisso,D and M.Ferantino(1997), Economic distance, cultural distance,
and openness in international trade: empirical puzzules,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vol.12,no.4, pp.456-484
- Borjas,G.J.(1994), The Economics of Immigration,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32, issue 4, pages 1667-1717
- Carliner,G.(1995), The Language Ability of U.S. Immigrants:
Assimilation and Cohort Effects, *NBER Working Papers*, No 5222
- Chiswick,B.R. & P.W.Miller(1995), The Endogeneity between Language
and Earnings : International Analysis,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13,no.2, pp.246-288
- Dustmann,D.(1999), Temporary migration, Human capital, and language
fluency of migration,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101(2),
pp.297-314
- Gonzalez,A.(2000), The Acquisition and Labor Market Value of Four
English Skills: New Evidence from NALS, *Contemporary Economic
Policy*, vol.18, issue3, pp.259-269
- Gould,D.M.(1994), Immigration links to the home country:empirical
implications for U.S. bilateral trade flows, *Review of Economics and*

- Statistics* 76, pp.302-316
- Hayfron,J.E.(2001), Language Training, Language Proficiency and Earnings of Immigrants in Norway, *Applied Economics*, vol. 33, issue 15, pp. 1971-1979
- Head,K. and J.Ries(1998),Immigration and trade creation: economic evidence from Canada,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31,1, February,pp.47-62
- Hutchinson,W.K.(2002), Does ease of communication increase trade? Commonality of language and bilateral trade, *Scottis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49, no.5, November, pp.544-556
- Rauch,J. and V.Trindade(2002),Ethnic Chinese networks in international trad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84, no.1, pp.116-130
- Rivera-Batiz,F.(1990),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and the Economic Progress of Immigrants, *Economics Letters* 34, pp.295-300

연구책임자 : 김 재 훈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 졸업(경제학박사)

◆ 주요저서

한국경제, 한국경제의 구조,
경제사 이론, 고전경제학 비판(역서) 등

국립국어원 2007-01-67

발간등록번호

11-1370252-000110-01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발행인	이 상 규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방화 3동 827 전화 : 02-2669-9775 팩스 : 02-2669-9727
인쇄일	2007년 12월 18일
발행일	2007년 12월 21일
인 쇄	대한인쇄사(02-2279-7834)
